

인산의학 Insan Medicine

한방암의학

치료 가이드

암·난치병·코로나 천연치료제 설명서

인간의 생명도 타인의 돈벌이 대상인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무총리상 수상

한의학 박사 최 은 아 인산선생 셋째며느리



www.insan.com
www.insan.co.kr



도서
출판 인산한방암센터

셀가디언(미라클캡슐) 개발자

저자 **최은아** 한의학 박사 약력



1962년	2월	1일	경북 경산 출생
1986년	2월		순천향의대 의예과 합격, 인산선생 저서 〈우주와 신약〉을 읽고 의사의 길을 포기
1987년	8월		신약협회(회장 인산 김일훈 선생) 창립회원, 암처방 녹취 난담반 제조법 전수
1988년	1월		인산선생 삼남 김윤수와 결혼 (현재 3남 3녀), 인산선생 시봉 사리장 제조법 전수
1993년	6월		상림출판사 설립, 〈인산암처방집〉 발간
1998년	12월	1일	인산사리장 출시
2003년	5월		인산죽염 주식회사 대표이사
2004년	6월		사단법인 인산학연구원 부설 인산한의원 대표이사
2006년	4월		(사)대한명인회 죽염명인으로 선정
2006년	4월		함양죽염축제(인산가곡제) 위원장
2006년	9월		(사)한국여성발명협회 경남대표
2008년	12월		경남 메세나상 지역문화공헌상(경남도지사상) 수상
2012년	2월		대전대학교 한의학 박사
2012년			〈만성백혈병 치료, 감기보다 쉽다〉 발간
2012년			인산선생 전기 〈의황〉 발간
2013년			미국현지법인 INSAN BAMBOOSALT, INC. 대표
2013년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 특허청장상 수상
2014년	3월		경남여성경영인협회 회장
2014년	4월		경남벤처농업협회 부회장
2014년	10월	22일	경남중소기업 여성기업 대상 수상 (도지사상)
2016년	3월		경남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16년	6월		세계여성발명대회 금상 수상 (난담반과 죽염을 사용한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2017년	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2017년	12월	15일	농촌진흥청장 표창장
2021년	5월	3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상
2022년	5월	25일	중소기업유공자 국무총리상 수상

·편서 : 「인산암처방집」, 「신의원초」, 「의사여래」, 「의약신성」, 「활인구세」, 「신약본초후편」
「신약본초3_」, 계간 「인산한방임상센터」

·저서 : 「만성백혈병 치료, 감기보다 쉽다.」, 「함양죽염축제」, 「인산의학식품건강법」, 「의황」

·공저 : 「환희」 여성발명가 15인의 인생과 발명 이야기

인산의학 Insan Medicine

한방암의학 치료 가이드

암, 난치병, 코로나 천연치료제 설명서

인간의 생명도 타인의 돈벌이 대상인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www.insan.co.kr

국무총리상 수상

한의학 박사 **최 은 아** 인산선생 셋째며느리



도서
출판

인산한방암센터



머리말

나는 평생 진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왔다.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는 이것이 진실인가? 진실은? 진실은?
나는 평생 진실을 쫓아왔다. 수십억이 옳다고 주장해도 나는 의심하고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유보한다. 나는 과학신봉자, 이성주의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믿지 않았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생 '독립불구'를 좋아했다. 옳은 것이라면 지구에서 혼자서라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상이었다.

그런 내가 합격한 의대를 외면하고 내가 미신으로 치부했던 한의학에서조
차 무시당하는 가장 변방 구석진 아웃사이더 마이너 인산의학에서 과학적
진실을 발견하고 평생을 바쳐 연구해왔다. 가장 혁신적인 것은 가장 아웃사
이더일 수밖에 없다. 니체의 말대로 기존 이념은 하늘 높이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우뚝 선 거대용이 수수만 개의 비늘마다 '내가 옳다' '나만 옳다' 새
긴 채로 온 세상을 찬란히 번쩍번쩍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과거에는 신체적 고통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마음의 고통까지. 천연치료물질
은 명백히 인류의 질병고통을 줄여준다. 의문투성이의 이 세상에서 단 한 가
지는 확신한다. 전 세계 모든 병원에서, 전 세계 모든 의사가 한국의 인산선
생이 발명한 천연치료물질 '난답반'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실체를 알기만



하면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고통받는 단 한 명을 위해 이 글을 쓴다. 이 글을 본 사람 중에 단 한 명이 난답반 미리클캡슐을 복용하고 병이 나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2022년 5월 24일

인산선생 셋째며느리 **최 은 아** 한의학 박사

Contents

제1장 | 각종 암, 각종 난치병 종합 가이드

뼈, 관절, 피부, 아토피, 독감, 아기 코로나까지

- 1) 뿌리인 오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암 부위를 잘라내도, 화학항암제를 투여해도, 방사선으로 태워죽여도 재발 _10
- 2) 천연 암치료물질 난담반이란 무엇인가? _12
- 3) 난담반캡슐 성분 _14
- 4) 달걀 알러지가 있는 환자가 난담반캡슐을 먹어도 되나? _15
- 5) 난담반 미라클캡슐 복용법 _15
- 6) 난담반의 외용제 사용시 주의할 점 _17
- 7) 국제 및 국내 과학 학술지에 게재된 난담반 연구논문 _19
- 8) 암치료 처방 (천연물 처방 탕제) _20
- 9) 코로나 백신과 암환자 면역 _22
- 10) 수술하면서 난담반캡슐을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병원약을 먹으며, 화학항암제, 방사선할 때 동시에 복용해도 되나요? _24
- 11) 수술 후 타목시펜, 페마라, 항호르몬제를 먹어야 할까요? _26
- 12) 탕약과 난담반캡슐 권장 복용 기간 _28
- 13) 암환자가 부부관계를 하거나, 술, 밀가루, 닭고기, 돼지고기, 날 생선회를 먹어도 되나요? _29
- 14) 암은 중기 이후면 어렵다. _30

제2장 | 피부 아토피 가이드

아기아토피, 성인아토피, 습진, 건선, 난치피부병, 피부암, 켈로이드, 묘기증, 두드러기, 여드름, 피부경화증, 알러지, 각종 약 부작용으로 인한 갖가지 피부증세 천연치료제 설명서

- 1) 피부병의 원인과 치료원리 _32
- 2) 공개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 정리, 오장에 미치는 영향 _38
- 3) 치료사례: 난치성 피부염 20세 여 (모든 양약 치료 중단) _41
- 4) 치료사례: 얼굴 좁쌀 두드러기 소양감 작열감 (약사 54세 여, 양약 중단) _42



- 5) 피부질환, 강직성척추염 (21세 미국 남자 대학생) _42
- 6) 치료사례: 피부암 87세 여 (모든 약품치료 없이) _43
- 7) 치료사례: 5개월짜리 갓난아기의 25일간의 아토피 치료과정 기록 (모든 약품치료 없이, 스테로이드 없이) _44
- 8) 치료사례: 원쪽 엄지발가락 괴질 31세 남 (모든 약품치료 없이) _53

제3장 | 임신 출산 육아 가이드

- 1) 임신 가능성에 있을 때는 어떤 화학약품도 먹지 마라.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_57
- 2) 제왕절개 초음파 과연 괜찮을까? _58
- 3) 숨구멍이 늦게 닫힐수록 아기의 뇌와 지능이 그만큼 더 발달한다. _61
- 4) 초음파와 아기 뇌 _63
- 5) 각종 증상별 아기 오장의 관계 _64
- 6) 탯줄은 조금이나마 길게 자르는 것이 아기에게 유리하다. _65
- 7) 소금과 아기 신장 _66
- 8) ADHD, 자폐, 뇌전증, 각종 행동발달장애증후군, 백혈병, 소아암, 신증후군, 아토피, 알러지 천식 등 모든 아기 질병 _67
- 9) 아기 심장병 치료법 _70
- 10) 아기 난치병 처방 _71
- 11) 치료사례: 악성뇌종양 5세 (수술 후 남아있는 암세포 난담반캡슐과 탕약으로 치료) _73
- 12) 치료사례: 중이염 3세 남아 (난담반캡슐로 치료) _73
- 13) 5개월짜리 아기 아토피 요약 기록 _74
- 14) 치료사례: 7개월짜리 아기 중이염 (난담반캡슐로 치료) _75

제4장 | 뼈 척추 관절 디스크 뼈암 근골격계 가이드

산후풍, 요통, 교통사고 골절, 신경통 류마티스, 강직성척추염, 골수염, 골다공증, 뼈로 전이된 암, 골수암, 척추, 관절염, 천연치료제 설명서

- 1) 뼈근골격계 처방, 요통, 협착, 교통사고 치료원리 _76
- 2) 치료사례: 강직성척추염 21세 미국 남자 대학생. 병원치료하다가 중단하고 난담반캡슐과 탕약으로 치료한 사례 _85



3) 치료사례: 턱 관절, 유방암, 임파선암, 당뇨 (53세 여) 치료사례 (수술 후 치료사례) _86

제5장 |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뇌종양 임파선암, 신부전 가이드

전립선염, 전립선비대, 신장염, 신증후군, 신우신염, 요도암, 바르톨린선암
바르톨린낭종 천연치료제 설명서

- 1) 뇌, 귀, 신경, 방광, 전립선, 갑상선, 임파선 등 모든 호르몬샘의 뿌리는 신장이다. _87
- 2) 방광암 난소암 자궁암 골반 전이 (36세) _94
- 3) 치료사례: 급성 전립선염 52세 치료사례 (병원치료하다가 종단) _96
- 4) 치료사례: 전립선암 81세 치료사례 (병원치료 병행) _96
- 5) 치료사례: 갑상선암 34세 여 치료사례 (수술 안하고 병원치료 안함) _97
- 6) 치료사례: 악성뇌종양 5세
(수술 후 남아있는 암세포 난담반캡슐과 탕약으로 치료) _97
- 7) 치료사례: 악성뇌종양 (41세 남) 치료사례 (수술 후 병행) _98
- 8) 치료사례: 교통사고 뇌손상, 시신경 손상 40세 여 치료사례 (병원치료와 병행) _99

제6장 | 유방암 가이드

- 1) 유방암의 뿌리는 80프로는 폐에서 시작하고 20프로는 간에서 시작한다. _101
- 2) 유방암 처방 _102
- 3) 공개된 타목시펜의 부작용 정리 _105
- 4) 치료사례: 유방암, 임파선암, 당뇨, 관절염 53세 치료사례
수술 후 항암 거부하고 난담반캡슐과 유황오리탕약으로 치료 _107
- 5) 치료사례: 유방암 57세 치료사례 (병원치료와 병행) _107
- 6) 치료사례: 유방암 (침윤성 유관암, 46세) 치료사례 (병원치료와 병행) _108

제7장 | 난소암 자궁암 가이드

난소암, 난소혹, 난소염, 자궁암, 자궁염, 자궁근종 천연치료제 설명서

- 1) 난소암의 뿌리는 간이다. _111
- 2) 난소암, 자궁암, 난소혹, 난소염, 자궁염, 자궁근종 치료 _113



- 3) 난소암, 자궁암, 난소흑, 난소염, 자궁염, 질염, 자궁경부암, 자궁이형성증, 자궁근증 처방 _114
- 4) 치료사례: 난소암, 자궁암, 방광암, 골반 전이 (36세) 치료사례
2차 재발하자 재수술 거부하고 난담반캡슐과 유황오리탕약으로 치료 _116

제8장 | 간암 가이드

간 전이, 간암, 간경화, 간염, 담도암, 담낭암 천연치료제 설명서

- 1) 간은 인체의 뿌리인 오장의 하나이다. _119
- 2) 각종 암의 마지막 단계는 뿌리인 오장이 중독되고 쇠약해지는 것이다. _121
- 3) 간 전이, 간암, 간경화, 간염, 담도암, 담낭암 치료 _121
- 4) 간암, 간염, 담도암, 담낭암 처방 _122
- 5) 항바이러스제, 비리어드, 타목시펜, 폐마라 등 먹어야 할까요? _125
- 6) 공개된 비리어드 부작용 정리 _125
- 7) 치료사례: 간암, 비형간염, 간경화, 당뇨 (78세 남)
수술도 방사선도 항암도 안 한 환자 치료사례 _126
- 8) 치료사례: 간암 B형간염 당뇨 (57세 남)
수술도 방사선도 항암도 안 한 환자 치료과정 _127

제9장 | 폐암 가이드

폐렴, 폐섬유화, 폐결절, 천식, 폐결핵, 늑막염, 기관지염,
기관지암 천연치료제 설명서

- 1) 암으로 손상된 폐의 일부를 잘라내도 나머지 폐가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된다. _130
- 2) 폐암, 폐렴, 폐섬유화, 폐결절, 폐결핵, 천식, 늑막염, 기관지염, 기관지암 처방
독성물질의 양 A - 천연치료물질의 양 B = 0 _132
- 3) 치료사례: 폐암 재발, 62세 재발 후 병원치료 거부하고 치료한 사례 _135
- 4) 치료사례: 대장암 수술 후 폐전이 화학항암 안하고 병원치료 거부하고 치료한 사례 _136
- 5) 치료사례: 대장암 폐암 뼈암(경추암) (57세 남)
2차 3차 재발하여 모든 병원치료 거부하고 치료한 사례 _137



제10장 | 위암 췌장암 대장암 직장암 식도암

복막암 크론병 가이드

후두암, 위염, 위궤양, 식도염, 십이지장, 소장 천연치료제 설명서

1) 위암의 뿌리는 오장의 하나인 비장이다. _139

2) 치료사례: 위암 2기~3기 (39세 여, 수술도 방사선도 항암도 안함) _143

3) 치료사례: 췌장암, 위암, 비장, 복막 전이, 65세 남

화학항암하다 혈소판 수치 떨어져 중단하고 난담반캡슐과 탕약 복용 _144

4) 치료사례: 복막암 60세 화학항암 1회 받고 중단 _143

5) 치료사례: 크론병 난치항문농양 19세 모든 양약치료 중단하고 치료한 사례 _145

6) 치료사례: 민OO 57세 직장암 2기 혈압약 복용, 병원치료 병행 _146

제11장 | 코로나 가이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코로나 후유증 치료 및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후유증 천연치료제 설명서

1) 세계 최초 미국에서 한국 천연치료물질 난담반캡슐로 코로나 완치한 환자

(2020년 4월 20일) _148

2) 치료사례: 한국 최초 코로나 확진자 난담반캡슐 완치 기록 (2020년 12월 11일)

난담반캡슐로 치료된 한국 최초 코로나 환자 문선생: 폐염증

보통사람의 46배, 당뇨 _150

3) 치료사례: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난담반캡슐 복용기록

(2020년 12월 10일 ~2021년 1월) _155

4) 치료사례: 코로나 후유증 폐농양, 폐섬유화, 기흉 환자 조OO 복용 기록 _156

5) 치료사례: 코로나 후유증 흉통 환자 황OO 복용 기록 (2021. 1. 27) _157

제12장 | 당뇨 가이드

치료사례: 장OO 53세. 남. 당뇨 30년 (2021년 7월 30) _159



1 각종 암 각종 난치병 종합 가이드

뼈, 관절, 피부, 아토피, 독감, 아기 코로나까지

1) 뿌리인 오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암 부위를 잘라내도, 화학항암제를 투여해도, 방사선으로 태워죽여도 재발

인산선생 암 처방은 암 탕약과 난답반캡슐이다. 여기서 난답반캡슐(천연 미네랄면역제)이 더 중요하다.

면역의 뿌리는 오장이다. 암은 뿌리인 오장이 중독, 고갈되면 발생한다. 뿌리인 오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암 부위를 잘라내도, 화학항암제를 투여해도, 방사선으로 태워죽여도 재발하거나 간, 폐, 뼈, 임파로 전이되는 이유이다.

정상세포가 파괴되어 암으로 돌변하는 것을 막으려면 뿌리인 간, 즉 오장이 좋아져야 한다. 뿌리가 좋아지면, 간, 오장이 건강해지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암세포를 억제, 사멸시키니 완치되고 예방도 된다.

수술하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든 면역계가 강해져야 하고 간, 오장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암종을 잘라내면 해결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화학독성물질(항암제)로 암세



포를 죽이면 치료된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으로 그 부위를 태워 없애면 암이 나을 거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뿌리인 간, 오장이 좋아져야 암이 완치된다.

암환자는 폐 또는 간의 기운이 이미 쇠하여 암이 발생하였기에 간, 오장이 취약하니 당연히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조심해야 한다. 암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성물질, 화학물질과 스트레스나 과로로 발생한 인체내 유해물질, 노폐물 등이 쌓여 오장의 기능이 중독되거나 저하되어 면역계가 약화되고 세포가 파괴되는 병이다.

노폐물, 유해물질을 해독 배출하고 오장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해주어 면역계 정상화, 생체치유력을 강화시키고 정상세포가 빨리 자라게 도와주면 치료된다. (해독보원: 노폐물 배출,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하여 생체치유력 강화)

각종 암의 마지막 단계는 뿌리인 오장이 중독되고 쇠약해지는 것이다. 첫 시작이 어느 부위 암이든 상관없다.

초기 위암으로 시작해(위장의 뿌리는 비장) 수술이나 화학항암 후에 뼈로 전이되든지(뼈의 뿌리는 신장) 간으로 전이되면 오장이 다 고갈되어 완치 가능성성이 희박해진다. 신장, 간은 오장 중에서도 가장 깊은 단계이다.

또한 초기 유방암으로 시작해(유방암의 시초는 80% 폐임파, 20% 간의 약화에서 시작된다.) 수술이나 화학항암 후 폐나 간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완치가 아주 어렵다.

그리고 초기 자궁암으로 시작해(자궁의 뿌리는 간) 수술이나 화학항암 후에 뇌(뇌의 뿌리는 신장), 또는 뼈(뼈의 뿌리는 신장), 폐나 간으로 전이되어도 치료가 힘들어진다. 모두 시간을 지체하여 병독이 너무 깊게 침투한 때문이다.

초기 전립선암(전립선의 뿌리는 신장)으로 시작해 수술이나 화학항암 후에 뼈(뼈의 뿌리는 신장)나 폐로 전이되면 완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세상만사 시간이 중요하듯 병독도 시간에 달려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을 시간이 흘러 점차 병독이 커지면 가래로도 못 막는게 세상 이치다.

대다수 환자에게는 의사가 천연치료물질을 못 먹게 하는 것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인간은 자기중심주의자이고 단순한 존재이다. 자기가 배운 것만이 전부라고 목숨 걸고 지키는 존재이다.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병을 그런 타인의 독선, 오만, 아집, 이기심과 무지함에 조종당해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지체하여 치료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암이 무섭고 강력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환자들은 때때로 잊어버리는 것 같다. 잘라내거나 죽이면 해결된다고 믿고 싶어 한다. 또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릴 거라고 착각하거나 백신에 의해 면역계가 손상받지는 않을 거라고 잘못 생각한다. 백신에 의한 면역계 약화로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져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힘이 약해져 노쇠기저질환자들은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누가 어떤 주장을 하든 주장일 뿐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 대기업이든, 100조짜리 미국 화이자든, 국가 정부든, 전문가 집단이든 생명에 대해 다 알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합리적인 인간이기에 사실과 주장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눈앞에 드러난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2) 천연 암치료물질 난담반이란 무엇인가?

노폐물 배출, 면역계 정상화, 생체치유력 강화 - 몸속 암유발인자, 세포를 썩게 하는 유해물질을 배출해내고 면역계를 정상화, 생체치유력을 강화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시키고 건강한 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난담반캡슐 - 죽염의 역할 중 하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액체가 주르륵 빠져나오듯 세포내 염증, 불순물, 노폐물을 뽑아낸다. 인산선생은



난답반캡슐이 죽염의 천배, 만배 높은 약성을 지녔다고 했다. 복용하면 위벽의 노폐물을 뽑아내고 뇌부터 발끝까지 세포에 영향을 주어 나쁜 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기능을 한다. 해독하면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된다. 1단계 염증이 억제되면 2단계 염증이 제거되고 그 후 3단계 새 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피부 아토피 아기환자를 통해 관찰된다.

암은 노폐물이 배출되고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되면 치료된다.

뱃속에서 일어나는 암이나 피부표면에서 관찰되는 피부병의 발병원리, 치료원리, 진행과정은 동일하다.

유해물질 → 중독, 기능 저하 → 세포파괴 → 천연치료물질로 해독, 노폐물 배출 → 면역기능 정상화 → 중독된 오장의 기능이 원활해짐, 암세포 사멸 → 새 세포 재생촉진 → 죽은 상처는 딱정이로 밀려나고 새 세포가 자라나 상처가 회복 또는 정상 대사 기능 회복 또는 암완치.

여기서 면역기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가 위협하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면역계가 취약할 때 자가면역반응으로 폐염증이 급격히 증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는 면역체계가 망가졌다는 뜻이다. (사이토카인 폭풍)

1918년 6억이 스페인독감에 걸려 5천만~1억이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결국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라고도 한다. 코로나 해외 대량 사망 원인도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추측된다. 면역계 이상이다.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할 수는 없다. 합성약품으로 면역계를 손상시키지만 않는다면.

화학약품으로 면역 과발현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화학약품은 반응을 높이거나, 반응을 억제하거나 둘 중 한 가지 기능만 하지 높은 것은 내려주고 낮은 것은 올려주는 조절기능은 없다. 그러나 자연에는, 천연물질은 조절기능이 있다. 난답반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면역이 과발현되어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것을 조절하여 자가면역질환을 다스린다.



3) 난담반캡슐 성분

소금(죽염), 달걀흰자, 황산동(인체 필수 미네랄, 전세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아기 분유에도 들어가는 성분).

이 세가지 평범한 성분이 전부인데 어떻게 해독보원(노폐물을 배출하고 정상세포 재생촉진하는 힘을 도와줌), 거악생신(나쁜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포 생기게 함)하여 암세포 사멸유도, 염증억제, 관절염, 피부염을 개선하는 결과가 실험으로 증명되고 논문으로 발표되었을까?

답은 인산선생이 발명한 난담반캡슐에는 고도의 초정밀 과학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의학 과학기술 수준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악하고 미개하다. 현대 기계장비로는 지리산 깊은 산속 공기와 뉴욕 대도시 공기속 성분을 같다고 본다. 물론 매연같은 것은 이미 성분이 알려져 있고 기계로 검출될 정도의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말이다. 깊은 산속 샘물이나 대도시 수돗물을 같다고 본다. 대도시 땅의 성분이나 깊은 산속 성분을 같다고 본다. 한국 땅의 성분을 중국이나 미국의 땅 성분과 같다고 본다. 한국 상공의 공기와 중국, 미국 상공의 공기가 같다고 본다. 현대 과학기술 면에서는 지구 상공의 모든 공기가 같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은 같지 않다. 공기와 땅의 성분이 달라 그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과 어류와 키우는 고기의 맛이 다르다. 동일한 품종의 식물, 어류, 동물을 지구의 다른 곳에서 오래 키우면 맛이 달라진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맛이 다른 이유는 그 지역 식물이나 동물이 흡수하는 땅과 공기의 성분이 달라서이다.

장황하게 공기와 땅의 성분을 말한 이유는 약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지구에서 약성분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라 한국 상공의 공기를 흡수하고 한국 땅의 성분을 흡수하고 자란 천연동식물의 약성이 중국, 미국의 것과는 다르다. 인산선생은 한국 자연의 천연 약성분을 이용하여 난담반캡슐을 발명했다.



한반도의 모든 미네랄 약성분이 집합된 바다속 미량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서해안 천일염을 이용하고, 한반도에서 3년 이상 자란 왕대나무의 유황성분이 소금 속에 합류되도록 고열 흡인력을 이용하고, 한반도 깊은 산속 황토의 약성 및 한반도 토종 소나무의 송진 약성을 합성하고, 한반도 상공의 공기속 약성분자들까지 고열로 끌어들인다.

난담반캡슐의 성분 중 하나인 미네랄 구리(황산동)는 수천년 한국, 중국, 동양의학서에 오래 먹으면 늙지 않고 신선이 되는 약, 만가지 독을 해독하는 약, 모든 종양을 치료하는 약, 눈의 통증을 치료하고 눈을 밝아지게 하는 약, 자식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약, 치아의 병, 코의 병을 치료하는 약, 간과 담낭에 작용하여 효능을 나타내며 염증을 없애는데 최고의 신묘한 약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수천 년 동양 의학서에서 최고로 극찬한 미네랄을 달걀흰자로 법제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세계최초로 인산선생이 개발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동양의학서, 그리고 인산선생이 80 평생 온갖 종류의 환자들, 젖먹이 아기환자부터 말기 암환자까지 갖가지 질병, 소화불량, 당뇨같은 만성질환부터 현대난치병 암까지 모든 질병, 남녀노소에 썼던 처방은 바로 난담반캡슐이다.

4) 달걀 알러지가 있는 환자가 난담반캡슐을 먹어도 되나?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구리를 달걀흰자로 법제했지만 난담반캡슐에는 달걀 DNA가 없다. 난담반캡슐의 법제과정에서 이미 달걀DNA가 사라졌다. 담반이라는 구리미네랄이 달걀흰자와 결합되면서 달걀과는 완전히 다른 합성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5) 난담반 미라클캡슐 복용법

젖먹이 아기들은 많이 먹으면 안되므로 캡슐을 까서 개월수 몸무게에 따라 하루 총량 1/3내지 1/2 캡슐만 되게 하여 (5개월짜리 아기 하루 난담반죽염



총량 0.1g~0.2g) 하루종일 손가락으로 수십차례 찍어 먹여야 한다. 빈속에 먹으면 노폐물을 긁어내는 힘이 강력하여 메스껍기 때문에 밥이나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먹어야 하고 아기들도 젖을 먹어 빈속이 아닐 때 먹여야 한다.

메스꺼워 먹기 어려운 사람은 캡슐 껌질을 까버리고 한 개 또는 반 개씩 찌개나 국 또는 죽 한 숟갈에 넣어 먹어도 된다. 난담반분말은 미리 타놓으면 약효가 떨어진다.

환자들 중에는 쇠약하여 식사를 많이 못 먹는 환자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음식에 조금씩 뿌려 먹으면 먹을 수 있다. 밥이든 고기든 생선이든 캡슐껍질을 까버리고 속 가루를 뿌려 먹으면 잘 먹는 사람도 있다. 캡슐째 복용하기 어려우면 난담반캡슐 가루를 국 한숟갈에 타먹고 재빨리 국 떠먹기, 구운 북어포 먹기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난담반캡슐 가루를 국 한숟갈에 타서 복용할 때는 삼키기 직전에 코를 막고 냄새를 맡지 않으면 잘 먹을 수 있다. 빈속에 먹으면 메스꺼운 이유는 캡슐 속 죽염이 위장벽의 한 곳에서 녹으며 자극을 가하기 때문이다. 캡슐 껌질을 까버리고 분말만 먹으면 가루가 분산되어 위장벽 한 곳만 집중적으로 자극하지 않기에 먹기에 덜 부담스럽다. 죽염도 소금성분이므로 혈압이 높거나 통통 부어 (복수가 차는 환자 등) 캡슐째 못 먹는 사람은 껌질을 까버리고 고기, 밥, 국 등에 뿌려 먹는 방법을 취한다.

구리와 황산동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 구리는 단독으로 먹을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식품은 부족해도 병이고 과해도 병이다. 밥도 적당히 먹어야지 배터지게 먹으면 살 수 없다. 소금도 일일 권장량이 있고 구리도 일일 권장량이 있다. 염화나트륨 단독으로 먹으면 제한량은 낮춰야 하고 과다시 배출력은 줄어든다. 구리도 마찬가지, 황산동 단독으로 먹으면 제한량은 낮춰야 하고 과다시 배출력은 줄어든다. 그래서 전세계 식품의약부에서는



단독 섭취 일일 권장량을 제시해놓았다. 그러나 구리, 달걀흰자, 죽염복합물인 난담반캡슐은 일일 제한량과 배출력이 높아져 단독섭취보다 안전하고 과다시 체외배출이 더 잘 된다.

우리 인체는 과도히 먹으면 배출한다. 특히 이 미네랄들은 배출되면서 노폐물, 독성물질들을 함께 끌고 나가기도 한다. 단독이 아니라 합성상태에서는 배출력 조절력이 커진다. 황산동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보다 달걀흰자로 합성한 난담반 상태로 복용하는 것, 난담반 단독이 아니라 죽염과 합성해서 복용하는 것은 모두 약리작용 및 생체 내 배출조절기능을 고려한 것이다.

죽염: 난담반 배합비에서 죽염양이 많을수록 치료힘은 약해진다. 난담반 양을 증가할수록 약성도 강력해져 치료힘이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죽염양이 난담반보다 더 적어지면 오히려 치료힘이 약해진다.

6) 외용제로 난담반죽염 분말 사용할 때 주의사항

대상포진, 피부병, 암종, 자궁암, 직장암, 무좀, 피부병 등등 외용제 사용시 상처에 뿌리면 고통이 심한 경우도 있어 잘 권하지 않지만 환자들이 스스로 실행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원리는 상처로부터 노폐물, 염증, 부패물질을 뽑아내어 새 세포를 재생하는 힘을 촉진시키는 원리다.

암으로 괴사된 부위에 뿌리거나 무좀이나 당뇨로 썩어가는 상처, 대상포진 피부염에 뿌리고 바르기도 한다. 자궁암, 직장암에는 관장기로 주입하기도 한다. 인산선생은 피부암에는 온몸에 바르거나 물에 죽염을 진하게 풀어서 몸을 담그라고 했다. 구강암에는 입에도 물고 있고 잇몸에도 발라놓게 했다.

죽염과 난담반의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절한다. 중단여부도 상황 따라 판단한다. 암종으로 썩어들어갈 때는 복용시 죽염:난담반 비율을 30:1에서 20:1, 10:1로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외용제로는 주의해야 한다. 피부외피 외용제로는 죽염:난담반비율이 조금 강해도 되지만(30:1, 20:1, 10:1 등) 자궁점막, 입안, 피부가 녹아버린 속살상처에는 외용제로서 죽염:난담반비율이



강하면 안된다(100:1, 1000:1 등). 죽염비율이 높아야 한다.

죽염난담반흔합분말에 물 1방울 떨어뜨려 진흙덩이처럼 뭉쳐 상처부위에 붙여놓기도 한다. 부스러져 떨어지지 말라고 비닐로 덮어 반창고로 고정시켜놓기도 한다. 바르는 외용제는 밖에서 뽑아내는 치료고 먹는 것은 안에서 밀어내는 치료이다. 물론 먹어서 밀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외용제로 사용 시는 피부 부위나 피부 상태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농도를 선택해야 한다.

아기들이 아토피로 피부가 녹아 없어졌을 때는 난담반캡슐을 바르지 말라.
먹이기만 하라. 아기 상처에는 절대로 난담반캡슐을 바르지 말라.

단지 손가락으로 찍어 먹이기만 해야 한다. 판단컨대 아기 피부는 너무 연약하고 약해서 파괴된 피부로부터 뽑아내는 힘이 너무 강하면 고통도 극심할뿐더러 너무 자극이 강하면 오히려 새 세포재생을 방해할 거라고 추측한다. 아기에겐 외용제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 반드시 먹여라. 그러나 어른의 염증이나 암종은 전혀 다르다. 어른은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염증이나 암종이 너무 독하니 강력한 치료법이 필요하다.

핵심 치료원리는 노폐물, 부폐물, 유해물질을 배출시키고 새 세포재생을 촉진하는 것이다. 해독하여 기능을 살려주면 회복될 수 있다.

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모든 병, 치매, 파킨슨병같은 뇌질환도 결국 뇌신경세포에 노폐물질이 축적되어 신경세포를 죽여서 발생하는 병이다. 노폐물질을 배출시키면 뇌신경세포는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어 악화를 막을 수 있어 회복도 가능하다. 그러나 너무 늦으면 속수무책이다. 이미 온산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헬리콥터 물로도 끌 수 없다. 그러나 초기의 작은 산불은 적은 양의 물로도 진압이 가능하다. 초기 질병은 암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빠른 시간내에 치료 가능하고 말기는 아무리 위대한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다.



7) 국제 및 국내 과학 학술지에 게재된 난담반 연구논문

미네랄 면역보충제 인산선생 핵심 발명품 난담반 연구 성과

- 미네랄 면역보충제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구리(한의학에서는 담반으로 불림)와 난백 결합
- 죽염 발명가, 한방암의학자 인산선생은 담반과 난백 결합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죽염과 혼합하여 먹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미네랄 면역 전통한방건강법을 보급했으며 인산선생 제자이자 셋째며느리 최은아 한의학박사는 5대 한의학 가문을 잇는 한의사 아들(인산선생 손자)과 함께 일생 과학적 연구로 6편의 논문성과를 내고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14개국 세계특허등록을 이루었으며 수십년동안 인산한의원에서 핵심 면역치료에 활용해왔다.

과학적으로 기능이 증명되고 있는 미네랄 면역보충원료 난담반

- 난담반의 원리는 몸속의 노폐물(독성)을 배출시켜 근본 뿌리인 간, 신장 등 정상면역계를 활성화하여
- 염증에 빠른 효과
- 아토피, 피부알러지 면역과민을 빨리 조절 억제
- 항암, 항염, 관절염 등에 유익
- 최초로 2020년 4월 20일 미국 빨라웨어 코로나 환자가 다른 약품 없이 죽염난담반으로 완치되었으며 이후 유타주 코로나 환자 다수 및 국내 최초로 2020년 12월 11일 서울의료원 코로나 감염환자가 정상인의 46배 폐염증이 3일만에 차도를 보이며 일주일안에 가래, 미각, 후각이 회복되었으며 그 후 국내외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고열, 가래, 각종 증상으로부터 치료되었다.
- 미네랄면역보충제 난담반은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복용할수록 몸에 유익하고, 다른 나쁜 증상까지 함께 다스리며, 건강한 사람도 예방 가능, 눈병에도, 뇌신경세포 치매예방에도, 잇몸염증에도 도움된다.



국제 및 국내 과학 학술지에 게재된 난담반 연구논문

- 난담반의 인체폐암세포주 NCI-H460에 대한 세포자살유도 효능
(J pharmacopuncture 2009 12(3) 49~59)
 - NCI-H460 폐암 유발 누드마우스 모형을 이용한 난담반의 항암 효과 연구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0 24(2):272~277)
 - 난담반 단독제와 난담반과 죽염 혼합제 경구 투여의 독성 연구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6(2):189~198, 2012)
 - 난담반의 Raw 264.7 세포에 있어서의 LPS 유발염증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
(Anti-inflammatory effects of egg white combined with chalcanthite in lipopolysaccharide-stimulated BV2 microglia through the inhibition of NF- κ B, MAPK and PI3K/Akt signaling pathways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MEDICINE 2013 31: 154-162)
 - 관절염에 대한 항염증 효능
(Anti-inflammatory effect of egg white–chalcanthite and purple bamboo salts mixture on arthritis induced by monosodium iodoacetate in Sprague–Dawley rats (Lab Anim Res 2016 32(2), 91–98)
- 난담반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 보고서
- 인산죽염난담반의 코로나치료제 후보물질 평가 – (주)케이알바이오텍 질병제어연구소

8) 천연물 처방 탕제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생강, 대추, 감초, 대파,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건칠피 (만약 옷을 안 타면, 그리고 수혈받은 적 없을 때만), 백개자, 행인, 하고초 등등

혈액형이 O형이면 석고 추가

간으로 전이되었으면 간 처방 시호, 인진, 황련, 자백목 추가

임파선으로 전이되었으면 임파선 처방 추가, 산약, 산수유 등



뼈로 전이 되었으면 뼈 처방 추가, 우슬, 강활, 방풍 등

신장 전이는 신장 처방 추가, 석위초 등

붓거나 복수가 차면 석위초, 통초, 호장근, 차전자 등

인산선생 처방은 탕약이든 난담반캡슐이든 양은 본인에게 맞춘다. 소화가 된다면 탕약 하루 7봉도 가능하고 소화가 안되는데 억지로 무리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이니 한 봉지든 두 봉지든 줄여서 복용한다. 캡슐도 대여섯알부터 하루 30알(약 10g)도 가능하고 붓거나(복수) 혈압이 높으면 양을 줄여서 시작하거나 음식에 뿌려 섭취하면서 상황따라 신속히 빨리 늘린다.

소화력이 저하되어 밥도 잘 못 먹는 환자는 죽이나 식사할 때마다 캡슐 껌질을 까버리고 분말만 나누어 조금씩 음식에 뿌려 섭취한다. 음식을 잘 먹을수록 캡슐 양도 늘어나고 그만큼 치료 가능성도 높아진다. 소고기 등 육류는 암환자에게 꼭 필요하다. 부부관계, 술은 금기하고, 밀가루, 돼지고기, 닭고기는 주의를 요한다. 그 외 모든 고기, 생선은 모두 골고루 잘 먹어야 면역계도 강해지고 면역세포도 많이 생기고 암세포가 억제되고 새 세포도 빨리 생길 수 있다.

새 세포를 만드는 근본 힘은 오장의 기운, 오장이 작동시키는 생체치유력에서 나온다. 인체의 뿌리는 오장이니 뿌리가 마르면 (오장의 기운이 고갈되면) 생체치유력이 극감하여 치료는 불가능해진다. 암치료 원리인 ‘해독보원’에서 ‘보원’의 중요성이다.

자연의 법칙은 매우 단순, 간단, 명료하다. 기능을 저하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독성물질의 양 A - 천연치료물질의 양 B = 0 이하가 되면 치료된다.

막 감염된 초기 독감은 코로나든 뭐든 몸에 들어온 독성물질의 양이 적어 고열이나 가래도 하루 이틀이면 금방 치료되고 세포를 파괴하는 기간이 오래된 병증은 체내에 쌓인 독성물질의 양이 많고 강해서 내보내는데 몇 달 걸리기도 한다. 십년 이상 묵혀둔 병증을 치료하는데는 또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 특히 체내 독성 양이 적을 때, 즉 초기에 바로 해독 배출하지 않고 화학약품으로 눌러서 독성을 체내 내부로 깊숙이 밀어 넣은 경우는 해독



배출해내기가 훨씬 더 힘들고 오래 걸린다. 자연의 기본 법칙은 단순, 간단, 명료하다.

치료하기 쉬운 증상을 계속 화학약품으로 억제하다 보면 다른 큰 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합성약품은 뿌리인 오장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치료가 쉬운 표면의 병증을 해독, 배출시키지 않고 합성약품으로 억제하려다가 깊숙히 밀어넣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게 만든다.

효과는 난답반캡슐이 가장 높고 사리장, 9회 자죽염 순이다. 가벼운 증상이면 사리장이나 자죽염을 먹어도 된다. 사리장이나 자죽염으로 안될 것 같으면 난답반캡슐을 먹는다. 빈속에는 힘들고 식사 중이나 후에 먹는다. 사리장이나 자죽염은 음식에 간하면 양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어른이 과로할 때, 아이가 공부나 운동으로 피곤해할 때 저녁 식사하면서 사리장을 먹게 되면 피로회복이 원활해져서 다음 날 훨씬 더 가쁜해진다. 이때 사리장은 물에 타먹는 것보다 원액으로 먹는 것이 효과가 더 빠르고 높다. 사리장 먹은 직후 찬물, 찬 음료는 피해야 한다. 따뜻한 물, 국, 음료는 괜찮다.

9) 코로나 백신과 암환자 면역

한국인보다 서양인의 면역력은 약하다. 한국인은 지구에서 가장 약성 분자가 많이 함유된 한국의 공기를 호흡해왔고 약성분자가 가장 많이 함유된 한국땅에서 나는 동식물을 내내 먹고 살아왔으니 그만큼 면역력이 더 강하다. 서양은 공기에도 땅에도 약성물질이 한국보다는 희박하여 그만큼 면역력이 약하여 코로나처럼 새로운 바이러스나 괴질이 침입했을 때 사망률이 더 높다. 반면에 서양인은 한국산 천연치료물질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천연치료물질을 복용하게 되면 약효 반응이 빨라 치료에 유리할 수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후유증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한 경우가 많다. 관절염, 신경통, 당뇨 등 아픈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암이 아닌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악화되어 암진단을 받기도 한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비대증이던 사람들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되거나 치료되고 있던



각종 암환자들이 악화 또는 재발된 경우는 무수히 많다. 멀쩡하던 건강한 사람이 단기간에 급성 말기 암환자가 되기도 한다.

사람의 몸, 우리 면역계는 매우 취약하고 섬세하여 화학물질에 손상되기 쉬운데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튼튼한 타인들과 자신이 동일하다고 착각한다. 특히 암병력자들, 기저질환자들은 살얼음판에 선 것처럼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 백신같은 것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면역취약자, 노쇠약자, 기저질환자들이 먼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탕약과 난답반캡슐을 먹으면 다 해독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코로나 백신을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산불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물을 부으면 얼마든지 산불을 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파괴와 건설은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산불처럼. 파괴는 너무 쉽고 일순간이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복구는 너무 어렵고 더디고 힘들다. 천길 구덩이로 떨어져 내리기는 순간이지만 중력을 거슬러 천길 절벽을 다시 기어오르기는 극난하다.

고기는 안 먹고 채소와 과일만 먹으려는 환자를 많이 본다. 위험한 생각이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이다. 고기, 생선, 밥은 고에너지 식품이나 채소, 과일은 저에너지 식품이다. 농약문제도 크게 안고 있다. 골고루 많이 먹어야 한다. 영양이 풍부할수록, 기운이 높을수록 면역계가 강해지고 난답반캡슐을 많이 먹을 수 있고 회복 가능성이 높고 빠르다.

인체의 모든 기관은 오장과 연결되어 있다. 요즘 대장용종이다, 혹이다, 자궁근종이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별 생각없이 혹 제거 수술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근본인 오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인가를 심사숙고 판단해야 한다.

난소혹 제거 수술같은 경우 순식간에 주위 세포조직이 악성으로 돌변하거나 악화되어 복수가 차며 간으로 전이되어 생명이 위험해진 경우를 종종 본다. 난소와 간의 연결관계를 못보고 난소를 건드림으로써 난소와



직결된 간에 치명적 손상을 입혀 면역계와 간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자연계에서 어미가 아닌 새끼를 해친 경우와 비슷하다. 새끼를 잃은 어미는 완전히 무너지기도 한다. 어미와 새끼 사이에 연결된 줄은 사진을 찍어도 보이지 않으나 그 둘 사이는 엄청난 힘으로 연결되어 있다. 몸속 각 기관도 보이는 줄은 없으나 모두 연결되어 있다. 뇌와 신장, 난소와 간, 유방과 폐임파선 등 현대의학에서는 사진에 찍히지 않는 연결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한다.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그 결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인과관계가 명백히 나타나도 진실에 관심없다.

(여기서 복수는 인체 수작업 담당을 맡은 신장이 손상을 입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간이 큰 손상을 입으면서 그 여파가 신장까지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도 간이나 신장이 사진상으로는 멀쩡하다. 그러나 복수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신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복수는 다시 차오른다.)

환자는 종양을 수술로 제거하라고 지시받으면 수술 안 하자니 암이 커질까 두렵겠지만,

(1) 수술하면서 병행하여 간을 보호하고 간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복용하여 치료율을 올리기

(2) 수술 안 하면서 천연치료물질만으로 자신의 면역세포를 증강시켜 암세포를 사멸시켜나가기,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화학항암제도 마찬가지이다. 수술하든, 안 하든, 화학항암제를 먹든, 안 먹든 간을 보호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여주는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면 간, 오장을 도와 완치율을 올릴 수 있다.

10) 수술하면서 난담반캡슐을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병원약을 먹으며, 화학항암제, 방사선할 때 동시에 복용해도 되나요?

수술, 화학항암, 방사선 중에- 난담반캡슐이나 탕약은 간을 돋고 오장을 돋고 면역기능을 돋고 세포재생 촉진을 돋고 노폐물 배출기능을 돋고



생체내 모든 정상작동을 돋고 원기를 돋는 천연건강식이므로 병원치료를 더 잘 받기 위해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계속 병행하여 먹어주면 회복 속도를 높인다. 수술상처가 더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며 자가면역문제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며 화학독성물질에 의한 중독과 손상을 감소시켜 간을 보호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전이를 막아 병원치료의 성공률을 올려준다. 먹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치료하고 싶으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수술- 예를 들면 인체의 관이 막히거나 외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통하게 수술로 해결해줘야 한다. 수술 전후 의사가 금식시키는 그 며칠간만 탱약을 중단한다. 그러나 난답반캡슐은 인체 필수미네랄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도 메스껍지만 않다면 먹어도 된다. 다만 빈속에 메스꺼우니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기의 먹는 방법을 활용하여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먹는 방법과 음식에 넣어 먹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따라 본인이 찾아내면 된다.

간을 보호하고 면역을 정상화하며 오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수술이나 합성약품치료의 성공률을 높여준다. 난답반은 향후 모든 의사가 회복을 돋기 위해 병행 복용을 권장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생명이 위험한 응급 경우는 당연히 병원약을 써야 한다. 당뇨 수치가 극히 심하여 췌장세포가 인슐린 생산기능을 거의 못할 때는 병원약을 써야 한다. 혈액안의 당이 처리되지 못하여 피가 탁해지면 위험하니까. 그러나 경계선일 때, 생명에 지장이 없을 때는 화학약품을 쓸지 말지 잘 생각해본다. 경계 수치는 의사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 약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생체기능이 정상 작동할 때 굳이 인슐린을 투여하여 췌장의 세포가 할 일을 대신하여 기능쇠퇴를 유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 스스로 인체가 기능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과도한 약남용으로 스스로의 조절기능을 퇴화시킬 수도 있다. 합리적, 과학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11) 타목시펜, 페마라, 항호르몬제 등 화학약품을 먹어야 할까요?

수술, 화학항암제, 방사선, 항호르몬제 등 모두 의사의 말을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하시는 겁니다. 의사가 항암 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면 본인이 검토하고 정체불명 건강식품 먹지 말라면 본인이 검토하고 타목시펜 먹으라면, 페마라 먹으라면 본인이 검토하고 내 몸에 유익한지, 해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 대신 인터넷에 약의 기전과 부작용을 검색해보세요. 1억짜리 집을 사는데 귀찮다고 한번도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간의 고통과 생명은 1억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니 선택 전에 반드시 검토하고 숙고하세요.

인간은 자기 생명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큰 문제 앞에서는 사실 직시가 두려워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 타인은 신도 아니고 성현도 아니며 우리와 똑같이 이기적이고 무지하고 자기 기만에 능하고 돈이 중요하며 남의 고통이나 이익에는 아랑곳않고 무엇보다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타인은 타인일 뿐입니다. 자기 몸에게는 자기 자신이 신이며 생명이며 진실입니다. 자기 몸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가장 큰 직무유기이며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이 떠안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상품의 구입여부는 소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정부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여 강제로 약을 먹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개인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이유이지요.

코로나 백신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인간과 세상에 대해 이전과는 완전히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화이자가 100조의 돈 앞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고통과 삶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눈앞에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전문가 집단과 정부는 또 어떻게 앞잡이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지를 제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직접 생생히 겪었습니다. 먼 훗날 책에서 역사로 읽었다면 나는 인간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인식을 얻지 못했겠지요.



코로나 백신, 화학항암제, 방사선, 항호르몬제 근본 의미는 동일합니다.

타목시펜: 여성호르몬을 방해하여 정상유방세포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주장: 유방암의 뿌리는 폐에 80%, 간에 20% 근원이 있습니다. 유방에서 암을 발견했다고 유방의 성장을 억제하면 암의 전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전신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주는 일이 우리 몸에, 우리 면역계에 악영향을 미칠지 아닐지 판단하십시오.

공개된 타목시펜의 부작용 정리

부작용이란 몸이 나빠져 질환의 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타목시펜으로 발생한 질환 정리가 맞는 표현입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어떤 긍정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을 호도하지요.

타목시펜의 부작용으로 자궁암 유발, 과도한 질 분비물, 질 출혈, 월경통, 시야 변화, 발적, 통증, 열감,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을 포함한 혈전 생성, 오심, 구역감, 월경 불순, 체중 감소 등 - 한의학에서 자궁, 혈액, 안과 문제, 구역감(위장 벽을 물리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한)은 모두 간이 관련된 간 기능문제입니다. 간이 손상을 받아 기능이 쇠약해질 때 나타나는 병증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간의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기능 쇠약은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은 전신의 청혈작용을 담당하고 소화효소에도 관여하고 자궁에 깨끗한 피를 내려보내야 하는데 청혈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자궁에 턱한 피가 쌓이게 되어 갖가지 자궁, 난소 등 관련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이 병들었다' 입니다.

다리 부종, 감정 변화, 성욕 상실, 우울감 (뇌호르몬의 변화), 관절통, 관절염 등은 모두 신장이 손상을 받아 신장기능이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의학에서 뇌호르몬 생성, 조절, 생체 수분 조절, 뼈 관련 질환은 모두 신장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신장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이처럼 기능문제는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한의학에서는 증



상으로 드러나는 기능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한마디로 ‘신장이 병들었다’입니다.

새로 유방 종괴가 느껴짐, 안면 홍조, 그 외 알려진 각종 부작용 및 수많은 증상은 모두 심장, 폐, 비장 등 오장이 손상을 입어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장이 병들었다’입니다.

간을 보호하고 간에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암치료의 핵심입니다. 암환자는 처방받은 화학약품이 완치에 꼭 필요한 약인지, 아니면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약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거나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불안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치료효능은 화학약품만큼 강한 천연치료제가 있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로 간단합니다. ①천연치료제를 병원 화학약품과 같이 복용하거나 ②화학약품대신 천연치료제만 단독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합성화학약품의 독성과 부작용은 모두가 인정하는데 치료효능은 화학약품과 천연치료제 둘 중 어느 것이 더 빠르고 높은지가 관건입니다. 사람이 복용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빠른가, 어느 것이 염증 억제 효능이 더 강한가! 실험과 논문과 실제 임상에서 천연치료제는 생각 이상으로 빠르고 높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십시오.

12) 탕약과 난담반캡슐 권장 복용 기간

난담반은 동양 의서에 기록된 대로라면 “장복하면 늙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평생 먹으면 건강에 좋겠지요. 물론 임신 중 복용해도 되는지 여부는 연구경험이 없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금기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몸에 좋은 것도 태아 생장은 방해할 수 있어 복용 금하는 식품 중에 꽂게도 있습니다. 태아의 몸이 모두 형성된 임신 말기는 어떨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만 모르면 안 먹고 조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수술이나 화학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고 비교적 손상없는 상태에서 암환자가



탕약을 3개월이나 6개월 복용하고 암이 없어졌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안심해도 되니 돈이 드는 탕약은 그만 복용하더라도 난답반캡슐은 건강 관리용이나 예방으로 몇 년 계속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임신해야 할 여성이라면 임신 전후는 복용을 중단했다가 출산 후에 다시 복용하면 됩니다.

수술, 화학항암, 방사선, 항호르몬제 등으로 오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광범위한 손상을 입은 상태라면, 재발 전이 암환자라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 더 오래 더 철저히 탕약 복용, 난답반 복용으로 재발, 전이를 막아야 합니다. 문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난답반은 평생 복용해도 좋고 탕약은 돈 때문에 계속 복용하기는 힘들지만 위험한 재발 전이 암환자들은 병이 나을 때까지 몇 년간 복용하기도 합니다.

13) 암환자가 부부관계를 하거나, 술, 밀가루, 닭고기, 돼지고기, 날 생선회를 먹어도 되나요?

치료 중인 중증 암환자에게는 단 한 줌의 생명력도 아쉽습니다. 간을 살려야 하고 오장을 살려야 면역군대가 증강되어 암세포가 억제되고 사멸될 수 있습니다. 천연암치료물질인 해독보원 탕약과 난답반캡슐이 간신히 한 줌 한 줌 생명에너지를 모아 해독하고 독성물질, 노폐물을 배출하고 암세포를 억제하고 새 세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부부관계 한번에 호르몬 생성 변화, 체액, 생체온도 등등 온갖 생체물질이 변화하고 생기고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기운과 물질변화가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말기 암환자는 단 한 번에 많은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고 생체치유력 저금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대 암환자인 경우 당일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환자의 몸은 살얼음판으로 생각하고 신생아처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술은 간을 해치니, 탕약과 난답반캡슐이 간신히 회복시키고 있는 우리 간이 술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니 술은 당연히 손해입니다.

밀가루, 닭고기, 돼지고기는 건강한 일반 사람에게는 문제없는



식품이지만 소화기능이 약한 환자에게는 간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어 소화,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물질입니다. 간, 위, 비장 등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소화력이 부족하여 소화가 덜 된 잔여물이 체내에 남는다면 독성물질로 변화하여 비, 위장 세포는 중독되거나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기 이유식이나 중환자 회복식에는 밀가루, 돼지고기, 닭고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간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날 생선회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익히지 않은 날 생선회는 소화되기 쉽도록 익히는 과정을 생략하고 인체에 공급된 셈이니 간이나 비, 위장은 소화시키기 위해 그만큼 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힘이 빨려 소화되지 않은 잔여물이 남는다면 마찬가지로 독성물질로 화해 간, 비장, 위장 등을 중독시킵니다.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4) 암은 종기 이후면 어렵다.

암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수술하면 치료될 거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사)가 신처럼 암을 완치시켜줄 거라고 생각한다. 정작 의사는 재발할 걸 이미 예상하고 있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암은 쉽지 않다. 시들어가는 뿌리인 오장을 새로 생기있게 만들어야 죽지 않는다. 뿌리가 시든 채소를 누가 싱싱하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결과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시든 정도와 시든 기간을 보면서 대략 예측해볼 뿐이다.

초기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

말기면 '도저히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살아날 수 있을지도.'

그저 대충 통계적으로 상식적으로 짐작할 뿐이다.

이런 위험한 암환자가 아무 생각없이 넋놓고 손놓고 수술만 믿고 항암, 방사선만 쳐다보며 자기 면역군대를 방치하는 걸 보면 답답하다. 뿌리는 계속 시들어가는데, 오장의 힘은 계속 고갈되어가는데. 수술 전이든, 수술 후든, 수술하면서든, 항암하면서든 한시라도 빨리 죽어가는 내 면역군대를



먹여 살려 나가야 하는데. 아무 생각없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뿌리를, 생체치유력을 더욱 손상시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지시한 의사보다 환자에게 더 화가 난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다. 스스로 선택한 방법으로.

시든 뿌리는 물을 주어야 한다. 암은 생체치유력이 높아지도록 도와줘야 한다. 치료기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면역군대가 강해질수록 암세포는 억제, 사멸된다. 당연한 일인데 모르는 것 같다.

무슨 이론의 여지가 있는가. 독성물질, 노폐물이 쌓여 세포가 죽어가고 면역기능이 저하되는데 빨리 유해물질, 노폐물을 해독, 배출하고 빨리 좋은 물질을 공급하여 면역기능을 살리고 세포를 살려야 하는데

“나중에, 나중에, 항암 후에, 방사선 후에...”

하며 미룬다. 뿌리는 말라가고 노폐물은 쌓여만 가는데 “나중에, 나중에”만 되된다.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도 가능성은 희박한데, 뿌리가 더 마른 후에, 노폐물, 독성물질이 더 쌓인 후에 정상세포가 더 많이 죽은 후에 천연치료법을 쓰겠다고 한다. 너무 겁이 없고 너무 암의 위험성을 모르고 너무 진실을 외면한다.

몇십억이 면역계를 해치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서 후유증, 부작용인 질병, 암으로 고통받거나 죽어가면서 독감바이러스일뿐인 코로나에 안 걸릴거라고 착각하거나 걸려도 덜 아프다는 거짓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다. 합리적으로 명백한 거짓말을 신봉하는 이유는 대기업(화이자), 강대국, 금권에 대한 맹목적 믿음때문이다.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화이자의 앞잡이 노릇을 잘 했기 때문에 신뢰성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 백신 사태로 실체를 짐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강대국, 앞잡이들에게 내 생명을 무작정 맡길건가. 이 이기적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도 타인의 돈벌이 대상인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2 피부 아토피 가이드

습진 건선 난치피부병, 피부암, 켈로이드, 묘기증
두드러기, 여드름, 피부경화증, 알러지 가이드

각종 약 부작용으로 인한 갖가지 피부증세 천연치료제 설명서

1) 피부병의 원인과 치료원리

인산선생 피부 처방은 탕약과 난담반캡슐이다. 여기서 난담반캡슐이 더 중요하다. 피부세포의 뿌리는 폐, 간, 신장 등 오장이다. 뿌리인 오장이 중독, 고갈되면 청혈, 해독, 배출 기능이 저하되어 전신 피가 탁해지면서 독성물질에 의해 피부세포가 변성, 파괴된다.

피부병은 피부세포가 독성에 의해 손상되는 질병이다. 피부병은 뿌리인 오장이 좋아져서 독성물질을 배출시키는 기능이 올라가야 치료된다. 피부병은 합성약품을 먹어도 빨라도 잘 치료되지 않을뿐더러 혹시 당장 치료되는 것 같다가도 간의 해독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노폐물을 배출시키지 않는다면 (청혈되지 않는다면) 계속 재발한다. 또한 합성약품은 오장의 중독과 고갈을 가중시켜 다른 질병으로 발전하는 원인을 만들기도 한다.

피부약품을 오래 먹다가 녹내장이나 신장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백혈병 진단을 받는 예도 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독성물질이다. 자연 과학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불명이라고 하면 독성물질이라고 이해



하면 된다.

피부병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암이나 당뇨나 강직성척추염이나 다른 여러 난치 질병을 치료하려고 합성약품을 오래 먹다가 피부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피부병은 오장의 쇠약, 즉, 간, 비장, 위장, 폐의 기능 약화로도 발생하고 간이 화학약품에 중독되어도 피부로 나타난다.

어떤 피부병이든 발병원리, 치료원리는 같다. 피부경화증이든, 피부건조증이든, 피부습진이든, 피부염증이든, 피부진물이든, 두드러기 피부발진이든 어떤 형태의 피부변성이든 상관없이 몸속의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면역계가 정상화되면 피부는 치료된다. 독성물질이 있으면 피부는 갖가지 비정상 형태로 변성된다. 정상 피부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면 뿌리인 오장이 좋아져야 한다. 뿌리가 좋아지면, 오장이 건강해지면 독성물질, 노폐물, 유해물질 배출작용이 활발해져 피가 맑아져 피부상태가 정상화된다.

그래서 피부암이나 피부병이나 원리는 같다. 수술하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든, 스테로이드, 항생제를 쓰고 있든, 면역계가 정상작동해야 하고 간, 오장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암종을 잘라내면 해결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화학독성물질(항암제)로 암 세포를 죽이면 치료된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으로 그 부위를 태워 없애면 암이 나을 거라고 착각한다. 피부 반응을 억제하면 치료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뿌리인 간, 오장이 좋아져야 피부암이든, 피부 알러지든 치료된다.

피부병도 환자의 해독기능, 청혈기능이 떨어져 독성물질, 유해물질에 의해 세포가 손상되어 병이 발생하였기에 당연히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조심해야 한다. 피부병도 암과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성물질, 화학물질 또는 성인이라면 스트레스나 과로로 발생한 인체내 유해물질, 노폐물 등이 쌓여 오장의 기능이 중독되거나 저하되어 면역계가 약화되고 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노폐물, 유해물질을 해독 배출하고 오장에 좋



은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해주어 면역계 정상화, 생체치유력을 강화시키고 정상세포가 빨리 자라게 도와주면 치료된다. (해독보원: 노폐물 배출,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하여 생체치유력 강화)

〈피부 난치병 치료〉

독성물질의 양 A - 천연치료물질의 양 B = 0 이하가 되면 치료된다. 심한 아토피나, 난치피부병, 피부염증은 합성약품으로 제대로 치료 못하지만 대부분의 천연물질도 해결하지 못한다. 대다수 천연물질의 힘이 피부세포가 파괴되는 힘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뜻이다.

그럴 때는 난답반캡슐밖에 없다. 아기는 캡슐 껍질을 까서 손가락으로 깨알 만큼 찍어서 입안에 빌라 먹이면 살짝 찡그리는 듯 마는 듯 별 괴로움 없이 먹는다. 적은 양이니까 하루종일 빌라 먹여야 한다. 몸무게에 따라 영양상태에 따라 조절하는데 5개월짜리 아기는 하루종일 합계 0.2g 내외가 적당하다.

일례로, 교통사고로 뇌가 다쳐 단단한 머리뼈 속에서 뇌조직이 부풀어오르고 흘러나온 피나 체액에 주변 뇌신경세포가 잠겨 죽어갈 때 탕약과 난답반캡슐을 복용시켜 머리뼈 속에서 뇌부종과 염증반응을 빨리 중단시키면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위급 시 콧줄로도 공급하여 의식이 없더라도 체내에서 흡수만 되면 약효는 발휘된다. 뇌신경세포는 죽으면 살릴 수 없으니 뇌신경세포가 하나라도 죽기 전에 신속히 복용시켜야 한다.

노폐물 배출, 면역계 정상화, 생체치유력 강화 - 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인자, 유해물질을 잘 배출해내고 면역계를 정상화시켜 면역세포가 염증을 억제하고 비정상세포를 사멸시키고 건강한 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난답반캡슐 - 세포내 염증, 불순물, 노폐물을 뽑아낸다. 인산선생은 난답반캡슐이 죽염의 천배, 만배 높은 약성을 지녔다고 했다. 먹으면 위벽의 노



폐물을 뽑아내고 뇌부터 발끝까지 세포에 영향을 주어 나쁜 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기능을 한다. 해독하면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된다. 1단계 염증이 억제되면 2단계 염증이 제거되고 그 후 3단계 새 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피부 아토피 아기환자를 통해 관찰된다. 암이든 피부병이든 노폐물이 배출되고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되면 치료된다. 뱃속에서 일어나는 암이나 피부표면에서 관찰되는 피부병의 발병원리, 치료원리, 진행과정은 동일하다.

유해물질 → 중독, 기능 저하 → 세포파괴 → 천연치료물질로 해독, 노폐물 배출 → 면역계 정상화 → 중독된 오장의 기능이 원활해짐, 염증 억제, 비정상 세포 사멸 → 새 세포 재생촉진 → 죽은 상처는 딱정이로 밀려나고 새 세포가 자라나 정상 피부 회복

난답반캡슐 성분 : 소금(죽염), 달걀흰자, 황산동(인체 필수 미네랄, 전세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아기 분유에도 들어가는 성분).

달걀 알러지가 있는 환자가 난답반캡슐을 먹어도 되나?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구리를 달걀흰자로 법제했지만 난답반캡슐에는 달걀 DNA가 없다. 난답반캡슐의 법제과정에서 이미 달걀DNA가 사라졌다. 담반이라는 구리미네랄이 달걀흰자와 결합되면서 달걀과는 완전히 다른 합성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토피 난치피부병 치료에서 면역기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면역계가 취약할 때 자가면역반응으로 염증이 급격히 증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는 면역체계가 망가졌다는 뜻이다. (사이트카인 폭풍)

피부병 중에 자가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현대난치병은 자가면역반응에 의한 것이 많다.

화학약품으로 면역 과발현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화학약품은 반응을 높이거나, 반응을 억제하거나 둘 중 한 가지 기능만 하지 높은 것은 내려주고 낮



은 것은 올려주는 조절기능은 없다. 그러나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치료물질은 오장을 도와 생체 조절기능을 정상화한다. 난담반캡슐은 비정상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면역이 과발현되어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것을 조절하여 피부 자가면역질환을 다스린다.

피부가 푸석푸석 건조해지고 각질화되거나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거나 경화하는 증상도 피부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이고, 반대로 진물이 나거나 녹아 없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도 동일한 피부세포 파괴 현상이다. 정상 피부세포 재생 기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된다.

난치피부병은 세포가 계속 망가진다. 피부세포가 새로 생기면서 다시 망가진다. 망가지는 기전을 바로잡지 않으면 건강한 새 세포가 재생되지 못한다. 천연물질은 정상세포재생을 촉진한다. 생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면역작용으로 독성물질, 노폐물 배출을 원활히 하도록 돋고 재생기능을 도와주면 피부병이든 피부암이든 치료된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복잡다단한 정밀 기전 중의 하나를 화학물질로 강제로 억제하거나 인공적으로 조작하면 수많은 다른 노선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나를 고치려다 둘, 셋을 망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고혈압과 저혈압이 동일한 간의 청혈작용 문제이기 때문에 간의 청혈기능 강화를 위해 간에 좋은 동일한 간 치방을 쓴다. 피부도 마찬 가지이다. 진물이 줄줄 흐르거나 푸석푸석 말라비틀어지거나 동일한 피부회복치료방을 쓴다.

만약 아이가 알러지, 아토피나 피부병이 있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몸이 만들어질 때 이미 각종 공해독을 흡수하여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세포 손상이 일어난 것이다. 치료법은 독성을 해독 배출하고 면역계를 정상작동시키는 간을 비롯한 오장의 기능이 원활해지도록 오장에 좋은 천연물질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현대 피부질환자는 독성을 해독 배출하고 오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드는 좋은 천연물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피부염증반응을 강제로



억제하기 위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등 인공합성약품을 먹거나 빌라 오히려 독성을 체내에 더 깊숙이 침투시킨다. 그래서 환자의 몸은 더욱 독성에 중독된다. 그 중독의 결과로 면역계 이상으로 피부세포에 변형이 심하게 일어난 것이 난치피부병이다. 사람이나 세포나 독성에 중독되면 손상을 입어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새 세포가 생기지만 이 새롭게 자라나온 세포가 독성에 의해 기능 손상을 입은 세포이기 때문에 곧바로 병적세포로 변형된다. 밑에서는 다시 새 세포가 올라오지만 곧 병적세포로 변한다. 이것은 독성에 중독된 세포들이 정상적 생명활동을 영위하지 못해 몸속 세포신호전달 체계가 잘못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세포가 독에 중독되어 비정상화된 것이다. 부작용 없는 천연치료물질로 해독, 배출 기능을 높이고, 정상세포재생 촉진을 돋는 것만이 답이다.

아기들이 아토피로 피부가 녹아 없어졌을 때는 난담반캡슐을 바르지 말라. 먹이기만 하라. 아기 상처에는 절대로 난담반캡슐을 바르지 말라. 단지 손가락으로 찍어 먹이기만 해야 한다. 판단컨대 아기 피부는 너무 연약하고 약해서 파괴된 피부로부터 뽑아내는 힘이 너무 강하면 고통도 극심할뿐더러 너무 자극이 강하면 오히려 새 세포재생을 방해할 거라고 추측한다. 아기에겐 외용제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 반드시 먹여라.

그러나 어른의 염증이나 암종은 전혀 다르다. 어른은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염증이나 암종이 너무 독하니 강력한 치료법이 필요하다.

난담반캡슐은 인체 필수미네랄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도 메스껍지만 않다면 먹어도 된다. 다만 빈속에 메스꺼우니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기의 먹는 방법을 활용하여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먹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따라 본인이 해나가면 된다. 간을 보호하고 면역을 정상화하며 오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수술이나 합성약품치료의 성공률을 높여준다. 향후 난담반은 모든 의사가 회복을 돋기 위해 권장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난담반캡슐, 사리장, 9회자죽염

음식 간이 아닌 약용으로 따로 먹을 때 피부질환에는 사리장이나 자죽염대신 난담반캡슐을 쓴다. 피부를 파괴하는 병독의 힘이 너무 강해 사리장이나 자죽염으로는 역부족이다. 세포가 만들어지는 시간보다 세포가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강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세포신호전달이 가능한 미네랄인 난담반캡슐만이 가능하다. 사리장이나 자죽염은 음식에 간을 하는 용도로 쓰면 된다. (그런데 피부질환 외에는 과로할 때, 아이가 공부나 운동으로 피곤해할 때 저녁 식사하면서 사리장을 복용하게 되면 피로회복이 원활해져서 다음 날 훨씬 더 가쁜해진다. 이 때 사리장은 물에 타 먹는 것보다 원액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 빠르고 높다. 사리장 복용 직후 찬물, 찬 음료는 피해야 한다. 따뜻한 물, 국, 음료는 괜찮다.)

피부 탕제 처방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생강, 대추, 감초, 대파,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백개자, 행인, 황백 등등, 혈액형이 O형이면 석고 추가 또는 혈액형이 O형이 아니더라도 열이 차오르면 석고 추가, 부종이 있으면 석위초, 차전자 등

2) 공개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 정리

코로나 백신, 화학항암제, 합성약품의 근본 의미는 동일합니다.

스테로이드제: 항염, 진통, 면역억제를 위해 합성호르몬제를 주입하여 인위적으로 백혈구 작동방식에 영향을 미쳐 염증 유발 생체물질의 생성을 줄여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이니 우리 면역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부작용이란 몸이 나빠져 질환의 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제로 발생한 질환 정리가 맞는 표현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어떤 긍정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을 호도하지요.



1. 면역력 저하, 면역체계 활동 감소, 감염에 대한 저항이 낮아져 대상포진, 바이러스감염 위험증가, 근육 감소, 쿠싱증후군으로 피부가 얇아짐. 명이 잘 들고, 튼살, 여드름, 피부 건조, 백내장, 녹내장, 고혈압 등 – 한의학에서 면역세포, 감염, 근육, 안과 문제, 혈압 혈액 문제는 모두 간이 관련된 간 기능문제입니다. 간이 손상을 받아 기능이 쇠약해질 때 나타나는 병증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간의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기능 쇠약은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은 전신의 면역체계에 관여하고 근육을 만들며 청혈작용을 담당하고 소화효소에도 관여하고 자궁에 깨끗한 피를 내려보내야 하는데 청혈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에 영향을 미쳐 면역세포 생성 이상 및 갖가지 자궁, 난소 등 관련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이 병들었다’ 입니다.

2. 얼굴 부종, 체중 증가, 살이 찐, 부은 몸, 골다공증, 우울증, 예민, 불안, 불면(뇌호르몬의 변화), 이명 등은 모두 신장이 손상을 받아 신장기능이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의학에서 뇌호르몬 생성, 조절, 생체 수분 조절, 뼈 관련 질환은 모두 신장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신장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이처럼 기능 문제는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한의학에서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기능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한마디로 ‘신장이 병들었다’ 입니다.

3. 당뇨, 소화불량, 속쓰림은 췌장, 비장 문제, 불규칙 심장박동은 심장 문제, 그 외 알려진 각종 부작용 및 수많은 증상은 모두 심장, 폐, 비장 등 오장이 손상을 입어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장이 병들었다’ 입니다.

항히스타민제: 생체 반응을 유발하는 성분인 히스타민 작용을 강제로 억제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몸의 면역체계를 강제로 억제하는 것이므로 각종 부작용은 피할 수 없지요. 몸의 면역체계가 알레르기 항원과 접촉하면 히스타민 등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가려움증과 알레르기성 반응이 일어



나는데 이를 억누르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고 씁니다.

1. 집중력 장애(뇌호르몬의 변화), 기억력의 감퇴, 신장 기능의 저하, 졸음, 중추신경계 작용, 구강건조증 등은 모두 신장이 손상을 받아 신장기능이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의학에서 뇌호르몬 생성, 조절, 생체 수분 조절, 호르몬 생성 관련 질환은 모두 신장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신장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이처럼 기능 문제는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한의학에서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기능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한마디로 '신장이 병들었다'입니다.

2. 간 기능 저하, 피로, 메스꺼움, 구토 등은 모두 간이 관련된 간 기능문제입니다. 피로물질을 해독, 배출, 처리하는 청혈작용도 간이 하는 일이고 메스꺼움, 구토(위장 벽을 물리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한)는 간이 손상을 받아 기능이 쇠약해질 때 나타나는 병증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간의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기능 쇠약은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은 전신의 청혈작용을 담당하고 소화효소에도 관여하고 자궁에 깨끗한 피를 내려보내야 하는데 청혈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자궁에 탁한 피가 쌓이게 되어 갖가지 자궁, 난소 등 관련 질환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이 병들었다'입니다.

3. 심계항진 등 부정맥 증상은 심장이 병들었다는 의미이고 설사 변비 등 소화기계는 비장의 문제이며, 그 외 알려진 각종 부작용 및 수많은 증상은 모두 오장이 손상을 입어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장이 병들었다'입니다.

사람들이 천연치료물질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간, 신장, 심장, 비장 등 오장의 손상을 감수하며 합성약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 없는 천연치료물질이 있다면 다른 선택지가 생깁니다. 간을 보호하고 간에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난치병 치료의 핵심입니다. 환자는 처방받은 화학약품이 완치에 꼭 필요한 약인지, 아니면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약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거나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불안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치료효능은 화학약품만큼 강한 천연치료제가 있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로 간단합니다. ①천연치료제를 병원 화학약품과 같이 복용하거나 ②화학약품대신 천연치료제만 단독 복용할 수 있습니다.

3) 난치성 피부염 (20세 여) 모든 양약 치료 종단

2013년 7월 30일 내원 환자

김OO 20세 여 O형 피부병 발 종아리 허벅지까지 극심한 아토피, 피부병, 습진.

비위 약함/ 소화 되나 소식함/ 어릴 때 입안 아구창 잘 걸림. 병원 약으로도 피부증세가 너무 심해 모든 양약 끊고 인산한의원 치료만 시작함. 유황오리대보단 복용중이라 난담반캡슐1병

20130808 탕약1차 /20130903 탕약2차 난담반캡슐1병

죽염: 난담반 3:1 비율로 유근피물에 개서 바르고 있으니 진물이 나면서 상태가 호전.

20130930 다시 피부가 뿐어져 나옴

탕약3차 난담반캡슐2병

20131024 탕약4차 난담반캡슐2병 많이 호전됨. (피부 증세가 점차 수그러지기 시작하였으며 4개월만인 11월에 이르러 확연히 치료됨.) /20131111 난담반캡슐2병





20131113 탕약5차 /20131122 난담반캡슐2병 /20131128 탕약6차
/20131209난담반캡슐2병

20131217 탕약7차 /20131223 난담반캡슐2병 /20140107 난담반캡슐
2병 20140113 탕약8차

20140127 난담반캡슐2병 /20140210 탕약9차 난담반캡슐2병

4) 얼굴 좁쌀 두드러기 소양감 작열감 (약사 54세 여)

20180201 이OO AB형

피부질환, 얼굴, 몸, 코 밑 알러지, 입술선 타들어간다. 땀도 나고 딱딱하고
붓고 광파 후 더 얼굴이 새빨개졌다. 좁쌀처럼 빨개지고 딱딱(과거 프로폴리
스 먹고 얼굴, 목, 몸에 두드러기 나고 가려웠다.)

소양감, 이완 시 한기가 나가면서 안면 건조감이 심함, 좁쌀만한 종기. 얼
굴 피부가 심해서 약국에 출근도 못함. 피부 때문에 편안히 못 잡. 갱년기
전 질 소양감, 과거엔 추위를 많이 탐. 첫 아이 출산 후 산후풍 증세 있었음.
2018년 1월 입술 작열감으로 시작. 피부과 진단 포진 치료. 스테로이드, 프
로폴리스 복용 후 효과 없음. 상열감이 심함, 유황오리대보단 먹고 상태 조
금 호전, 고부백선 있었으나 이제 가라앉음. 부기 빠졌다.

난담반캡슐 1병.

20180212 난담반캡슐 2병

20180305 탕2차 난담반캡슐 2병

20180314 탕3차 난담반캡슐 5병.

얼굴 열기 거의 다 가라앉았고 목만 아직 조금 가렵다. 약 2개월만에 얼굴
피부질환이 치료되어 약국에 출근할 수 있게 됨.

5) 피부질환, 강직성척추염 (21세 미국 남자 대학생)

20100920 OOO 미국환자 남 21세 AB형 대학 3학년에 재학중



강직성척추염 (2010년 7월 11일 진단 후 양약 복용 중), 통증 있음, 양약 부작용으로 피부질환.

존스홉킨스병원 / 탕약1차 캡슐 5병 사리장 6병 미국으로 발송. 모든 양약을 끊음.

20101021 탕약2차 /20101123 탕약3차, 난담반캡슐2개. 20101213 통증 레벨 7

20101220 머리카락 많이 빠진다. 살 빠진다. 허리 제끼면 아프다. 통증 레벨 지난번 7이었다가 현재 1 내지 3

20110106 탕약4차 /20110207 탕약5차 난담반캡슐2병 자죽염2kg 사리장1병

20110310 탕약6차 난담반캡슐2병, 사리장2병 /20110404 탕약7차

20110506 탕약8차 난담반캡슐2병 사리장2병 /20110613 탕약9차 난담반캡슐2병 자죽염1킬로

20110711 탕약10차 난담반캡슐2병 사리장2병 /20110810 탕약11차

20110914 탕약12차 자죽염1킬로 /20111117 탕약13차 난담반캡슐1병 사리장2병

강직성척추염은 병원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염증이 높아져 매우 위험한 난치병인데 이 환자는 미국에서 유황오리탕약 복용 즉시 모든 양약 끊고 강직성척추염과 함께 피부질환도 치료함. 현대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실제로 이렇게 한국천연물질로 치료 가능함. 염증을 억제하고 건강한 피부 재생 촉진. 미국도 어떤 현대의학도 완치하지 못하는 현대난치병이라도 너무 늦은 상태가 아니라면 천연물질로 치료가 가능.

6) 피부암 87세 여

20191007 정OO 87세 여 O형

왼쪽 볼에 피부암(까만 점이 있고 간지럽고 누르면 붉은 물이 나온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대상포진도 있고, 오른쪽 눈에 눈물이 차서 잘 안보인다. 오른쪽 얼굴이 간질간질하고 딱정이가 앓았다. 그러다가 큰 피부



암이 생김. 2019.8 진단 남원 피부과. 신경통약, 요실금약 복용 중(심함). 치질 수술. 자궁 수술, 지방종 시술 했음. 큰 트름이 올라온다. 신물도 올라온다. 옛날에는 안 내려가기도 했었음. 요실금이 심하다. 개운하지 않음. 셀 수도 없이 소변본다. 땀이 많이 난다. 얼굴 위쪽으로 많이 난다. 입이 말라서 혀가 갈라지려고 한다.

입이 쓰고 뛰다. 난담반캡슐 한끼니에 3알씩 하루 9알 복용

20191022 난담반캡슐 2병 20191023 난담반캡슐 1병 20191127 난담반캡슐 4병

20200302 난담반캡슐 10병 20200528 난담반캡슐 5병 20200629 난담반캡슐 5병

7) 아토피 5개월짜리 갓난아기

25일간의 치료과정 기록 (약품, 스테로이드 없이)

2021년 2월 18일 밤 11시 32분

“아토피가 가장 심했을 때에요. 피부 껍질이 사라지며 드러난 속살에 진물이 계속 흐르고, 염증이 여기저기 생기며 살을 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너무 가려워하고, 못 긁게 하면 괴로워했어요. 그런 아기를 바라보는 저는 너무 절망적이었고, 지옥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때부터 미라클캡슐을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먹이기 시작했어요.”





2021년 2월 19일 아침 8시 11분

미라클캡슐 복용 9시간째,

천연물질만으로 9시간만에 염증 반응 중단!



2월 19일 / 미라클캡슐 복용 9시간째

“미라클캡슐을 먹인지 9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진물이 덜 나오고 염증화가 중단되는 게 보였어요. 계속 먹여보자는 확신이 생겼고 절망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미라클캡슐의 항염증 면역기능은 최고라는 얘길 들었는데 그 효과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설명: 긴가민가 반신반의 피부가 녹아버린 아기 속살에 계속 염증이 진행되어 위험해지거나 또는 살이 패여서 큰 흉터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과 공포에 가슴 졸이던 아기엄마는 밤 11시부터 아침까지 9시간동안 난답반캡슐을 손가락으로 찍어먹이며 수시로 확인하다가 마침내 9시간만에 확실하게 염증반응이 중지되는 것을 확인하자 그제서야 치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고통, 절망,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손가락에 깨알만큼 찍어서 입안에 쏙 발라줍니다. 5개월짜리 아기에게 하루에 0.2g 정도를 먹였어요. 캡슐껍질을 까서 그릇에 내용물을 부어놓고 하루에 수십 번 정도 제 손가락에 콕 찍어 아기 입안에 발라 먹였어요. 혀에 닿으면 맛이 없어 아기가 찡그리므로, 맛을 잘 못 느끼도록 입 안쪽에 발라 주었더니 잘 먹었어요.”

캡슐을 먹이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젯밤까지만 해도 간지러워서 긁고 싶어 난리 치던 아기가 더 이상 전혀 가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가 언제 가려워했냐는 듯 방긋방긋 웃으며 놀았죠.”



2021년 2월 21일 아침 9시 7분

미라클캡슐 복용 48시간째

천연물질만으로 48시간만에! 넓은 피부 상처 모두 덮임. “아토피 피부가 줄었고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만 48시간 즉, 이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치료되고 있다니 놀라웠답니다.”

속살 상처가 딱정이로 모두 덮여 보호되고 있다. 딱정이 밑에서 세포가 만들어지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2월 21일 / 미라클캡슐 복용 48시간째

2021년 2월 23일 아침 8시 36분

미라클캡슐 복용 5일째

딱정이 밑에서 불완전한 피부세포가 만들어져 딱정이가 떨어지면서 살이 드러나는데 아직 완전한 정상 피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2월 23일 / 미라클캡슐 복용 5일째

2021년 2월 27일 오후 12시 25분

미라클캡슐 복용 9일째

가장자리부터 점점 군데 군데 하얀 정상피부가 만들어지면서 불완전한 붉은 피부 범위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



2월 27일 / 미라클캡슐 복용 9일째

2021년 2월 28일 아침 8시 29분

미라클캡슐 복용 10일째

불완전한 붉은 피부가 가장자리부터 여기 저기 서서히 하얀 정상피부로 바뀌고 있다.



2월 28일 / 미라클캡슐 복용 10일째



2021년 3월 1일 아침 10시 6분

미라클캡슐 복용 11일째

불완전한 붉은 피부는 진물이 나기도 하고 딱정이가 생기기도 하며 점점 정상피부로 바뀌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비정상피부의 범위가 점점 좁혀졌다.



3월 1일 / 미라클캡슐 복용 11일째

2021년 3월 2일 오전 11시 49분

미라클캡슐 복용 12일째

“미라클캡슐 복용 12일째에요. 부위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딱지 밑으로 희고 단단한 정상 피부가 생겨 있고, 진물이 나는 부위가 많이 줄어들어 귀 앞부분에만 남아 있어요.”



3월 2일 / 미라클캡슐 복용 12일째

2021년 3월 3일 오전 10시 14분

미라클캡슐 복용 13일째

이제 하얀 정상피부가 거의 다 만들어져 귀 앞 일부만 남아있다.



3월 3일 / 미라클캡슐 복용 13일째

2021년 3월 4일 아침 7시 23분

미라클캡슐 복용 14일째

남아있는 귀 앞 부분에서 정상피부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 아기의 오장(간 등)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3월 4일 / 미라클캡슐 복용 14일째



2021년 3월 5일 오전 12시 25분

미라클캡슐 복용 15일째

이제 하얀 정상피부가 거의 대부분 만들어 졌고 마지막 귀 앞 작은 부분만 아직 붉다. 아기의 작은 체내에서 열심히 피부회복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3월 5일 / 미라클캡슐 복용 15일째

2021년 3월 6일 아침 8시 21분

미라클캡슐 복용 16일째

남아 있는 귀 앞 작은 부분은 아직도 피부가 불완전하다.



3월 6일 / 미라클캡슐 복용 16일째

2021년 3월 7일 오전 10시 36분

미라클캡슐 복용 17일째

“상처를 자세히 보면 가장자리부터 진노랑 색으로 딱지가 형성되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딱지가 만들어지고 딱딱해지면 그 아래에서 정상피부가 만들어지고, 정상피부가 다 만들어지면 딱지가 떨어져 나간답니다.”



3월 7일 / 미라클캡슐 복용 17일째

2021년 3월 8일 아침 8시 49분

미라클캡슐 복용 18일째

마지막 남아있는 왼쪽 귀 앞 부위가 노란 딱정이로 모두 덮였다.



3월 8일 / 미라클캡슐 복용 18일째



2021년 3월 9일 오후 2시 16분

미라클캡슐 복용 19일째

마지막 남아있는 왼쪽 귀 앞 부위 딱정이가
단단해졌다. 딱정이 아래에서는 마지막 하
얀 정상 피부가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다.
아기의 오장 재생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되
고 있을 것이다.



3월 9일 / 미라클캡슐 복용 19일째

2021년 3월 10일 아침 9시 5분

미라클캡슐 복용 20일째

마지막 남아있는 왼쪽 귀 앞 부위 딱정이가
조금 떨어져 나갔다.



3월 10일 / 미라클캡슐 복용 20일째

2021년 3월 12일 오후 2시 25분

미라클캡슐 복용 22일째

아직 왼쪽 귀앞 부위 딱정이가 남아있다.
마치 딱정이 아래에서 무슨 비밀스러운 작
업 (피부재생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는 듯
하다.



3월 12일 / 미라클캡슐 복용 22일째

2021년 3월 13일 오후 3시 20분

미라클캡슐 복용 23일째

여전히 딱정이 아래에서 비밀스러운 작업
(피부재생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3월 13일 / 미라클캡슐 복용 23일째



2021년 3월 14일 오전 11시 4분

미라클캡슐 복용 24일째

“딱지가 다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 생긴 피부가 드러나고, 귀 앞에만 상처가 조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딱정이가 떨어져 나갔다. 딱정이 아래 피부는 아직 불완전하여 붉다.



3월 14일 / 미라클캡슐 복용 24일째



6월 15일 / 3개월 후

3개월 후

2021년 6월 15일 오후 7시 2분

행복한 아토아기 근황

유튜브 “행복한 아토아기”

유튜브 “미라클캡슐”

“이웃집 아토피 아기를 보신 분은 모두 이 기록을 전달해주세요.”

“전세계 아토피로 고통받는 아기들이 난담반캡슐을 알게 되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25일만에 정상피부가 다 만들어져 피부를 완전히 보호하게 되었지만 이후 3월 하반기와 4월은 아직 피부 아래 전신 혈액 속의 독성물질이 완전히 해독, 배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정상피부 위로 한두 달 동안은 시시때때로 진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부위 피부가 별겋게 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천연항균물질이 나오는 정상 피부세포가 한 달 안에 모두 만들어진 것은 기적이다. 그것도 가려움이나 고통없이!

합성약품독으로 세포가 오염되지 않은 5개월짜리 아기였기 때문에 이토록 빨리 정상피부로 회복할 수 있었다. 만약 합성약품을 오래 바르고 복용한 아이라면 오장의 천연시스템을 정상 회복시키는데 시일이 더 걸렸을 것이다.



모든 독성물질, 노폐물이 해독 배출되어 인체 면역시스템과 세포재생시스템이 정상화되어야만 완치되기 때문에 체내에 쌓인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이 적을수록, 인공합성약품에 노출된 기간이 짧을수록 치료는 그만큼 빨라진다.

아토피 5개월짜리 갓난아기 약품이나 스테로이드제, 연고 일체 사용 안함 (요약)

아기엄마는 난답반캡슐의 성분이 죽염(천일염100%), 달걀흰자(이미 구리와 결합되어 달걀과는 다른 복합물질로 바뀐 것이며 달걀 알러지가 있는 아기가 먹어도 되는 극소량), 황산동 세 가지뿐이며 아기분유에 황산동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분에 대해 안심하게 되자 2021년 2월 18일 밤 11시부터 난답반캡슐을 찍어먹이기 시작함. (병원 연고를 처방받아 한번 바르자 아기가 가려움으로 더 고통스러워하여 2월 15일경 병원연고를 벼렸었고 깊은 고민 속에 천연물질로 치료하기로 결심.)

피부에는 천연항균물질이 있어 염증을 막아주나 아토피로 피부가 녹아 없어지면 드러난 속살 상처에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난답반캡슐을 먹이면 염증이 억제되고 피부가 사라진 속살 상처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점점 딱정이가 생기며 속살 상처가 덮이기 시작한다. 마치 호수에 얼음이 얇은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이 끼는 현상과 같다. 딱정이가 피부대신 속살 상처를 모두 덮어 보호한다. 딱정이가 모든 속살 상처를 피부껍질처럼 덮어주게 되나 딱정이 밑에는 아직 정상 피부세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점차 딱정이 아래에서 역시 가장자리부터 정상 피부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정상 피부가 만들어지면 딱정이는 그만큼 떨어져 나간다. 조금씩 조금씩 속살 상처 부위가 좁혀지고 정상 피부세포가 점점 더 만들어진다. 정상 피부가 만들어지면서 딱정이는 계속 떨어져 나간다. 25일만에 속살 상처 위로 정상 피부가 모두 만들어져 덮였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기가 전혀 가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연물질 치료의 장점은 면역계와 피부재생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므로 합성약품이 강제 반응 억제하는 것과 달리 강제로 인체시스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가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없을뿐더러 재발 염려도 없고 가려워하



지 않아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아기 엄마 글 :

“미라클캡슐을 저희 아기에게 적용한 결과, 가려움증을 없애주었고, 염증을 억제했으며, 정상피부 재생을 촉진하였어요. 5개월 째리 아기에게 하루에 1/3~1/4 캡슐 정도를 먹였어요. 즉 하루 0.15~0.2g 정도를 먹인 셈이에요. 제 손가락으로 콕콕 찍어서 하루 15번~20번 정도 주었어요. 미라클캡슐의 성분은 황산동(난답반)으로, 황산동은 분유의 성분이기도 하답니다. 손가락에 조금 찍어 입안 뺨의 안쪽에 쓱 발라주면 아기가 싫어하지 않았어요. 혀에 닿게 되면 맛이 없어 좀 찡그려요. 귀찮다고 한번에 많이 먹이면 안되고, 손가락으로 콕콕 찍어 조금씩 혀바닥을 피해 입안쪽에 발라주었어요.

모유를 먹는 아기라면 엄마가 술을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한모금의 술도 아기 아토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인스턴트 음식이나 화학조미료가 많이 든 음식 등도 피해주세요.

아기가 아토피가 심했을 때 아토피로 괴로워하는 아기를 보면 저는 정말 지옥 속에 있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미라클캡슐을 먹인 후 마치 기적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9시간도 안되어 염증 진행이 정지, 이틀만에 확연히 피부가 정상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효과가 너무 빨라서 놀랐습니다. 또한 그토록 가려워하고 괴로워하던 아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가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방긋방긋 웃으며 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물질에 감동했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면서 제 마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 같았답니다.

아기가 아토피에 걸렸어도 부모, 아기 모두 행복하게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미라클캡슐’ 유튜브 ‘행복한 아토아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토피 아기를 둔 부모님들은 제 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토피 아기들이 행복하게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 31세 남 왼쪽 엄지발가락 괴질

2021년 4월 23일 미라클캡슐 복용 시작

아무런 외상 없이 세포가 파괴되는 이유는 체내에 노폐물, 유해물질이 쌓여 발생한다. 한의학에서 발은 오장 중에서 신장에 배속되기 때문에 신장의 힘이 보다 약해진 것이다. 천연치료물질로 해독 배출, 면역계 정상화, 생체 치유력 강화, 정상세포 재생을 촉진하면 항생제 없이 치료 가능하다. 그러나 천연치료물질을 병독보다 적게 복용하면 어렵다. 모든 전쟁은 적군의 힘보다 아군의 힘이 클 때만 이긴다. 독성물질의 양 A - 천연치료물질의 양 B = 0 이하가 되면 치료된다. 이 환자는 하루에 난답반캡슐 9개씩 복용했다.



4월 23일 / 미라클캡슐 복용시작

2021년 4월 23일

왼쪽 엄지 발가락의 발톱뿌리가 상하기 시작 /미라클캡슐 복용시작

2021년 4월 30일

왼쪽엄지발가락 출혈, 염증. 오른쪽 엄지발가락 팬찮음.

발톱뿌리가 다친 적도 없는데 무단히 붓고 피 난다 .4월 30일 사진을 보고 정말 병원에 보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발가락으로 솟구쳐나오는 독을, 발가락 세포를 망가뜨리는 저 강력한 독을 화학약품으로 눌러버린다면, 저 강렬한 독을 몸 속으로 밀어넣어버린다면, 그런 생각을 하니 몸 속 내부로 쫓겨들어갈 거대한 독이 무서워서 병원치료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독은 몸 안으로 밀어넣으면 안되고 반드시 밖으로 배



4월 30일 -1



4월 30일-2



5월 3일 / 미라클캡슐 복용 10일째

출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천연치료물질 난
담반캡슐로 치료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계속 부어오른다.

미라클캡슐 복용 10일째



5월 4일 / 미라클캡슐 복용 10일째

2021년 5월 4일

드디어 봇기가 조금 빠지기 시작

미라클캡슐 복용 10일째



5월 8일 / 미라클캡슐 복용 14일째

2021년 5월 8일-1

부종 감소.

미라클캡슐 복용 14일째



5월 8일 / 미라클캡슐 복용 14일째

2021년 5월 8일-2

확실히 부기는 빠지고 수그러드는 느낌



5월 8일 / 미라클캡슐 복용 14일째

2021년 5월 8일-3

부종은 수그러들지만 검은 핏자국이
여전히 불안함

2021년 5월 12일

부기는 빠지고 계속 병증이 수그러드는 모
습이지만 - 희망이 보이지만 - 그래도 혹시
나 발가락이 염증반응 없이 썩어들어가는
괴질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이상한 병세를
못 막는 건 아닐까 여전히 불안.

미라클캡슐 복용 18일째



5월 12일 / 미라클캡슐 복용 18일째

2021년 5월 18일

치료에 대한 불안이 모두에게 있다. 모두
들 병원에 가라고 했다. 모두들 암같은 것
이 아닐까 두려워했다. 인산한의원이 이
렇게 외과적으로 상해들어가는 병을 치료
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난답반캡슐의 힘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
다. 미라클캡슐 복용 24일째



5월 18일 / 미라클캡슐 복용 24일째

2021년 5월 23일

나 : “아직 새 발톱 안 나지요?”

환자 :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세포를 썩어들어가게 하는 무서운
독, 암독이든 어떤 병독이든, 독이 지독할
수록 몸밖으로 배출시켜야지 화학약품으



5월 23일



로 억제하여 몸속 깊이 밀어 넣으면 오히려 장부가 위험해진다는 이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위험해서 더더욱 병원에 보낼 수 없었다.



5월 24일 / 미리클캡슐 복용 30일째

2021년 5월 24일

환자 : “새 발톱이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찍은 사진이 새 발톱 위에 피가 있으니 잘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캡슐 9개 먹었어요.”

나 :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순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어제까지 조마조마했었다. 봇지 않고 염증반응 없이 썩어들어가는 괴질도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을 뒤덮고 있던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다. 결국 낫는구나!

“저 역시 많이 갈등했습니다. 다들 위험하니 병원 가서 검사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피딱지를 씻어내니 건강한 새 발톱이 아주 잘 보인다.

며칠 전부터 피딱지 밑에서 이미 새 발톱이 건강히 자라고 있었는데 피딱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기에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계속 불안해했던 것이다!



3 임신 출산 육아 가이드

1)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떤 화학약품도 먹지 마라.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자식들을 시골에서 한의대, 민사고,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교, 서울대 법대 등에 보냈다. 그러나 늘 가슴 한켠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스며있다. 착한 아기들이 내게 왔는데 나는 너무 무지했고 돈 벌어먹여 살리는 데만 온통 신경 쓰느라 부모 노릇 잘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항상 마음이 아프다.

예전의 나는 너무 무지해서 아이들은 밥만 먹이면 저절로 크는 줄 알고 아동교육이나 인간심리에 관한 책을 단 한 권도 읽은 적이 없다. 지금은 너무 후회한다. 아기엄마라면 누구나 유아교육, 아동교육, 아동심리책을 최소 1권은 꼭 읽어야 한다. 그래야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훗날 후회가 적다.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떤 화학약품도 먹지 마라.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가 괜찮다고 해도 먹지 마라. 백신도 마찬가지. 인공합성물질은 내 면역계를 손상시킬 뿐더러 목숨보다 소중한 내 태아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 한 인간의 80년, 3만 일, 7십만 시간의 긴 평생 고통도 타인에겐 무관심이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인간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진실을 인정해야 한



다. 부인한다고 있는 진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돈이 제일이다. 타인에게 나는 돈벌이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봤고 직접 겪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었다. TV에도 방송된 적 있다. 많은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 출산을 강권했다.

2) 제왕절개 초음파 과연 괜찮을까?

나는 셋째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갔다. 의사가 3명인 약간 큰 출산전문병원이라 인근 시골에서도 많이 온다. 시장통처럼 북적대는 대기실에서, 검사실에서 앞 사람, 뒤 사람 온갖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왔다.

첫 번째: 가난한 시골사람으로 보이는 A임신부에게 의사가 말했다. 나는 아직도 그 의사 이름을 기억한다. 무시무시했다. “태아가 너무 작네요. 예정일이 00일인데 너무 작아 인큐베이터에 넣어야겠습니다. 00일에 수술하려 오세요.” 그 때 30세였던 나는 옆에서 화들짝 놀랐다. A임신부를 따라 나가서 ‘저 의사 말 듣지 마세요. 마지막 생리일이나 예정일은 얼마든지 잘못 계산할 수도 있고요. 만에 하나 맞게 계산했다 하더라도 출산예정일보다 한두 달 늦는 경우도 많아요. 태아가 다 성숙해서 나와야 해요. 덜 자란 미숙아를 진통도 없는데 오류일지 모르는 예정일에 맞춰 배속에서 끄집어내 인큐베이터에서 키운다는 건 말이 안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기의 일생이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몸도 뇌도 지능도 완전해진 다음에 나와야 해요. 저 의사 는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나는 미성숙한 상태로 끄집어내어질 아기의 일생 건강이 너무 걱정이 되어 심장이 두근거렸다. 시골아기의 앞으로의 일생이 가슴 아팠다. 그러나 나는 그때 너무 나약했고 너무 못난 인간이었다. 입도 뻥긋 못했다. 지금도 여전 하지만. 나는 지금도 수많은 악 앞에서 입을 다물 때가 많다. 그리고 나는 대중의 공격이 늘 무섭다.



두 번째: 여기 저기서 전화 거는 사람들의 통화 소리-

“산모뼈가 통뼈라서 의사가 수술해야 한대요.”

“애가 너무 커서 의사가 수술해야 한대요.”

어쩌고 저쩌고. 병원은 임신부 모두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키려고 환장한 것 같았다.

세 번째: 내가 직접 당한 일이다. 한창 출산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청진기를 대보더니 “애 목에 텃줄이 감겨 위험해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이 무슨 개풀 뜯는 소린가 멍하니 의사를 올려다 보았다. 의사의 이마 한가운데 선명히 “거짓말”이라는 세 글자가 평소에는 둔한 내 눈에 이상하게도 또렷이 보였다.

“아뇨. 수술 안 할 겁니다.”

의사가 신경질을 내더니 간호사에게 네모난 못생긴 벽돌같은 기계를 갖고 오게 해서 좁아터진 침대 모서리에 올려놓고 아기 태아 심박동을 듣는 척했다. 그리고 차트에 몇 줄 휘갈겨 쓰더니 나에게 내밀며 ‘아기가 위험한 데 산모가 수술을 거부했으니 문제가 생겨도 의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에 싸인을 하라고 했다. 진통으로 아픈 와중에 뭐라고 썼나 확인차 들여다보니 개떡같이 영어로 갈겨놓았는데 정말로 ‘탯줄이 아기 목에 감겨 수술하라고 권했는데 산모가 거부했다’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협박용이다. 아래도 수술 안 할래!

산모는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의사는 돈 몇 푼 벌자고 아기 목숨으로 제왕절개를 협박하는 이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수술 거부서에 싸인하자 빨리 보호자 찾아라 어쩌라 화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스피커가 내 이름, 남편 이름을 방송으로 불러재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마침 남편은 출산을 기다리느라 심심해서 대학도서관으로 책 읽으러 가고 없었던단다.



수술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거짓말하는 의사가 기가 막히고 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30세의 나는 어리석은 면이 있어서 병원을 박차고 나가지 못했다. 그때 내가 좀 더 강하고 좀 더 현명해서 바로 걸어 나와 다른 병원에 입원했어야 했다. 즉각 그 병원을 나오지 않은 것을 늘 후회한다. 착한사람증후군(나는 못난이증후군이라고 부른다)이 있어 입원 중에 박차고 나오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

보통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는 마음이 나약해서 장사꾼이 옷을 마구 권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사던 아이였고 대학 교정에서 외판원이 불어 테이프 한 셋트를 권해도 친구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혼자 남아서 거절 못하고 그냥 삼던 사람이었다. 불문과도 아니면서.

지금은? 지금은 그 정도 바보는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악과 싸우지 못한다. 의사가 수술 거부 싸인을 받고 화내며 나간 후에 정신 없이 복작거리는 병동에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좀 직급이 높아 보이는 수간호사 한 명이 침대 모서리에 기우뚱 올려진 못생긴 태아심박측정기를 보더니 눈에 거슬린 듯 지나가는 다른 간호사에게 ‘이게 왜 여기 있나’고 물었다. ‘태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찌고 하니 수간호사가 귀에 대고 들어보더니 “아니, 아무 이상 없는데? 정상인데? 이거 얼른 치워요.” 그러구서 치워졌다.

남편은 나중에 도서관에서 돌아와서는 자기가 있었다면 무서워서 분명 수술동의서에 싸인했을텐데 한다. 뭐야, 설마 산모인 날 제끼고 마취주사 놓고 수술했으려나? 거기까진 절차를 모르겠다. 지금 생각하니 좀 오싹하다.

나중에 몇십년 후에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왈, 본인도 예전에 어느 병원에서 막 진통하면서 출산 기다리느라 입원해있는데 수술하라고 해서 즉각 퇴원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자연분만했다고 했다. 그 여성이 너무 대단해 보였다. 저 사람들은 어찌 나보다 더 현명할까!

나는 자식한테 너무 못난 짓을 많이 했다. 출산 때 거짓말로 협박하는 의사



앞에서 병원을 박차고 나가지 못했고,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가 잘못했을 때 박차고 나가 전학시키는 용기가 없었다. 늘 나는 소중한 내 자식을 악에 방치하고 미친 세상에 순응하려고만 했다.

이 세상에서 양떼는 얌전히 죽임을 당한다. 양떼가 되면 안된다. 양떼는 얌전히 잡아먹힌다. 우리는 타인에겐 크고 작은 돈뭉치일 뿐이다. 양 한 마리에 불과하다. 날로 먹을 수 있는 통통한 살찐 한 마리의 양이다.

이후 넷째부터는 병원이 무서워서 집에서 출산했다. 사람들은 출산문제에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가 의아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생동안의 지능과 건강이 출산 시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평생 건강 고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섭지 않은가.

인산선생은 ‘뇌는, 아기 지능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감소된다’고 했다. 혹시 거꾸로가 아니었던가. 태어날 때는 무에서 점차 머리가 빨달하는 것 아닌가. 물론 이 말도 어떤 측면에서는 맞다. 태어나서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아무 와의 접촉도 없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머리는 당연히 퇴화한다. 1,000의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도 발달시키지 않으면 점점 감소한다. 결국 같은 말이다. 태어날 때 갖고 온 잠재력은 컸었는데 자라면서 감소하는 것이다.

인산선생은 ‘아기의 뇌는, 지능은 어른에 의해 감소된다’고 했다.

3) 숨구멍이 늦게 닫힐수록 아기의 뇌와 지능이 그만큼 더 발달한다.

1. 신생아의 연한 숨구멍이 점차 닫히고 단단해지는데 접촉할수록, 자극 할수록, 건드릴수록 빨리 아물어 붙는다고 했다. 숨구멍이 열려있어야 뇌가 더 넓게 확보된 공간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다. 목욕시키느라, 머리를 씻기느라 건드릴수록 숨구멍은 좀 더 빨리 아물고 좀 더 일찍 닫히고 단단해진다. 숨구멍이 늦게 닫힐수록 아기의 뇌와 지능이 그만큼 더 발달한다. 그만큼 확보된 공간에서 타고난 뇌 잠재력만큼 맘껏 자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아기 머리 씻길 때 숨구멍을 안 건드리려고 무척 조심했다. 1,000중의 0.0001도



내 손으로 감소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평소에도 아기 머리는 절대로 안 만졌다. 비누도 거의 잘 안 썼다. 아기 로션은 단 한 번도 발라준 적이 없다. 로션 바르면 비누로 씻겨야 하고 그러면 행구느라 더 오래 더 많이 씻겨야 하니까 그만큼 더 아기에게 자극을 줄까봐.

2. 아기는 놀라는 만큼 뇌가 자극을 받아 지능이든 무엇이든 감소된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최대한 오래 있어야 한다. 엄마 뱃속은 가장 자극이 적은 곳이니까 아무런 방해 받지 않고 뇌든 뭐든 맘대로 자랄 수 있으니까. 물론 태고난 아이큐가 감소되어 봤자 얼만큼 감소될까마는 표도 안 나는 미미한 수치이겠지마는.

아기는 목욕시킬 때 제일 자극이 심하고 제일 많이 놀라는 시간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안고 아주 조심스럽게 최대한 덜 놀래키도록 주의했다. 아기가 놀랄 때 뇌가 자극을 받아 그만큼 고요히 성장할 기회를 뺏긴다.

그래서 까꿍놀이, 손바닥으로 얼굴 감추기 놀이, 물건을 등 뒤로 감추기 놀이는 일체 안 했다. 아기가 두 눈을 동그라니 뜨고 놀랄 일은 가급적 안 하도록 노력했다.

당연히 아기일 때는 놀이동산 같은 곳에서 마구 획획 움직이는 놀이기구에 아기와 함께 타지 않았다. 아기가 깜짝 놀랄 일은 해서는 안되니까. 아기 스스로 좋아서 까르르 놀이를 선택할 때는 괜찮지만 어른이 재밌다고 아기를 놀래키거나 공포로 얼어붙게 해서는 안된다. 뇌발달에 해롭다. 뇌는 나쁜 자극을 받으면 그만큼 안 좋다.

놀이동산에서 어린 아기를 안고 놀이기구를 타는 부모를 보면 말해주고 싶다. 아기 얼굴에서 웃음대신 불안, 놀람, 공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3. 드디어 임신 중 초음파검사에 대해 입을 열어야겠다. 아기 뇌는 조용히 성장하고 있다. 지능이 뇌따라 조용히 성장하고 있다.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초음파기계의 음파는 누가 뭐래도 에너지고 열이고



움직이는 파동이다. 아무리 미미하다 해도 아기 몸뿐만 아니라 뇌에 열자극이 가해지고 충격파가 가해진다. 태어난 아기 뇌도 최대한 자극없이 최대한 고요히 가만히 놔두어야 태어난 잠재력이 최대한 잘 발달하는데 하물며 뱃속의 태아 뇌는 더더군다나 건드리면 안된다.

ADHD, 자폐, 뇌전증, 각종 행동발달장애증후군 등등등. 안타깝지만 99% 어른의 잘못이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아기를 가만히 내버려 둬라. 태어난 후의 각종 예방주사도 엄청난 자극인데... 할 말은 많아도 다 말할 수 없다. 유구무언이다. 소아암, 난치병, 희귀병, 신증후군 어찌고 아토피... 모두 아기에게 유해물질, 화학물질이 주입되어 더 촉발되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것이 아기 뇌에, 아기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4) 초음파와 아기 뇌

협박과 공포는 사람의 판단력을 방해하고 마비시킨다.

혹시 모를 만에 하나를 위해 임신 기간 여러 번 초음파를 하라고 한다. 무엇을 위하여? 인간은 항상 득과 실을 계산해서 가장 유익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왜 0.0000001 확률로 있을지 없을지 모를 무엇을 알고자 100% 영향을 미칠 초음파를 그렇게 여러 번 하도록 종용할까? 돈 때문에.

태어나서는 또 왜 그리 갓난아기를 화학으로 괴롭힐까. 돈 때문에.

아기가 만들어져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10개월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중요하고 태어난 후 1년이 그다음으로 중요하고 취약하다. 또 그다음 1년이 그다음으로 중요하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신장, 간, 심장, 비장, 폐가 만들어질 때 유해물질, 불순물이 흡수되어 문제가 생기면 취약하게 태어난다. 아기가 임신부 핏속의 영양물을 긁어모아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임신부는 아기 오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먹어서도 호흡해서도 안된다.

호흡으로 들어오는 화학물질의 폐해가 입으로 들어오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손상이 크다. 코로나가 무섭다고 어린아이 옆에서 소독제를 마구 분무하는 짧은 부모를 보면 답답하다. 자기 아이에게 해로운 짓을 하는데 말릴 수가 없다.

5) 각종 증상별 아기 오장의 관계

뇌, 귀, 신경, 뼈, 모든 호르몬샘, 정소, 방광 문제는 신장의 기운이 부족하면 생기고, 혈액, 적혈구, 백혈구, 담낭 이상은 간의 기운이 부족하면 생기고, 소화기계, 위장 장애는 비장 기운이 부족하면, 심장 이상은 심장의 기운이 부족하면, 폐, 기관지 증상은 폐의 기운이 부족하면 생긴다.

엄마 뱃속 10개월 동안 아기의 오장이 만들어질 때 온갖 오장의 부족처가 생길 수 있다.

10세 이전의 난치병, 소아암은 태아기와 신생아기에 그 유래가 시작된다 고 할 수 있다. ADHD, 자폐, 뇌전증, 각종 행동발달장애증후군 뿐만 아니라 백혈병, 소아암, 신증후군, 아토피, 알러지 천식 등등은 모두 엄마 뱃속 1년 그리고 그다음 몇 년에 원인이 있다.

유전병이라는 파킨슨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관리되고 태어나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20세에 발병하기도 하고 늦춰지고 늦춰져 70 세 되어서야 겨우 나타나기도 한다. 유전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의해 발현이 늦춰지거나 억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임신부와 신생아는 약품은 말할 것도 없고 새 집, 새 리모델링, 새 가구, 새 옷, 새 이불, 소독제, 가스 등등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피해야 한다. 아기 로션, 물티슈, 모든 화학물질을 피해야 한다. 존재할지 말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유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명백히 확실한 위해 요소에 소중한 아기를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아기는 엄마뱃속에서 신장, 간, 심장, 비장, 폐의 순서로 기운이 모여 이루어진다. (수 → 목 → 화 → 토 → 금)

신장은 뇌, 귀(청력), 신경, 뼈, 모든 호르몬샘, 정소, 방광을 관장한다. 신



장, 뇌(지능, 성격), 귀, 신경, 뼈, 모든 호르몬샘, 정소, 방광의 능력이 임신 중에 신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좌우된다.

지능, 성격은 뇌에서 이루어지니 임신부는 아기의 일생 건강, 특히 내 아기의 지능 손실, 성격 이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신 중에 아기 신장이 만들어지는 동안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혈액, 눈(시력), 근육 등은 간에 폐여있고, 튼튼한 심장, 약한 심장은 태중에 심장이 어떤 환경 하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달려있고, 위장, 췌장, 대장, 소장 등 모든 소화기계는 비장에 폐여있고 태어난 아기가 기관지나 폐가 약한가 아닌가는 태중 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좌우된다. 물론 부모의 유전적 요인도 있으나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할 의미가 없다.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모든 아기는 잉태되는 순간 자기의 전 재산을 지니고 온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아기가 1,000의 능력을 지녔든 10,000의 능력을 지녔든 최대한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고난 잠재력의 훼손, 손상, 감소를 막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인류의 무지와 이기심에 의해 아기의 오장이 조금이라도 덜 손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한다.

6) 탯줄은 조금이나마 길게 자르는 것이 아기에게 유리하다.

탯줄 속의 영양분을 텔끝만큼이라도 더 흡수하게 되니까. 아기의 신방광 정력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더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다. 신방광 정력이 원래 1,000인데 탯줄을 짧게 자르면 탯줄 속의 영양분을 덜 흡수하게 되니 1,000의 능력에서 0.1이나 0.01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탯줄이 길면 잃는 정력이 줄어들어 방광의 힘이 강하여 소변을 자주 안 봐도 된다. 나이 들어 방광의 힘이 약해지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소변 횟수로 방광의 힘을 가늠할 수 있다.

아기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일은 아기를 해치는 어리석은 짓이다. 정상 공기



는, 산소는 아기 뇌발달에 큰 역할을 한다. 간단한 사고실험이 있다. 24시간 365일 마스크를 쓰고 자란 마스크 아기와 아닌 일반 아기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아기의 뇌, 지능, 신체 건강 모든 면에서 마스크 아기는 일반 아기보다 불리하다. 그렇다면 하루 5시간이라도 아니 단 10분이라도 마스크 아기로 키워서는 안된다. 아기가 아닌 어린이라도 마찬가지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공기속에는 산소가 있다. 인간은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독성물질)를 배출한다. 마스크 내부에서는 산소-이산화탄소 교환이 덜 원활히 이루어진다. 인체 배기가스가 완전히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뜻. 뇌는 공기(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

7) 소금과 아기 신장

인간의 무지에 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 많다. 한때 소금 증오가 극성할 때는 코로나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을 권하듯 정부 주도로 고속도로 휴게실마다 소금을 먹지 말라는 포스트가 붙어 있었고 어느 여성 잡지에서는 ‘아이 엄마는 아예 주방에서 소금을 치워라’는 극단적인 지시까지 있었다. 나중에는 이 소금혐오 광기가 귀신같이 사라졌지만.

얼마전 신증후군 아이를 본 적 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없어 정상생활을 못하는 8세 여아였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태어난 후 유아식을 하면서 아이 음식에 소금을 넣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인간이 이렇게 극단적일 수 있을까... 필수 영양소인 소금을, 더구나 노폐물 배출에 필수 미네랄인데.

간의 핵심기능이 해독이라면 신장의 핵심기능은 노폐물 배출이다. 이 배출 작용의 필수물질은 소금이다. 한의학에서 소금은 신장과 가장 밀접하다. 소금이 과다하면 가장 먼저 신장이 반응하여 몸이 뜯는다. 몸이 부으면 소금을 줄이면 된다. 반면에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이 가장 큰 손상을 입는다. 무지로 인해 소금을 먹이지 않아 신장 손상이 온 극단적 사례다.



의사가 괜찮다는 약물을 임신부가 복용하고 태어난 희귀난치병 아기부터, 잘못 계산된 예정일에 맞춰 미숙아로 끄집어 내어져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기, 새 집에서 유해물질을 임신부가 흡수하고 태어난 아기, 10개월 이상 조금 더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뇌를 발달시키고 싶었으나 때가 되었다고 분만촉진제로 9개월만에 끌려 나온 아기까지... 모두 어른의 손에 운명이 달려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온갖 희귀한 난치병에 관한 기사, 수억짜리 치료제 개발이니 훌륭한 의사의 수술 성공에 관한 글을 볼 때마다 현대 의과학의 기술에 감탄하면서도 그 환자의 태아 시기와 유아 시기를 떠올린다. 어쩌면 애초에 90%는 간단히 발병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8) ADHD, 자폐, 뇌전증, 각종 행동발달장애증후군, 백혈병, 소아암, 신증후군, 아토피, 알러지 천식 등 모든 아기 질병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들 임신 중에 초음파를 한 번도 안 한다면, 모든 약품을 멀리하고, 모든 아기 백신을 주의하고, 아기들이 아플 때마다 화학약품이 아니라 확실한 천연치료물질로 치료한다면 ADHD, 자폐, 뇌전증, 각종 행동발달장애증후군, 백혈병, 소아암, 신증후군, 아토피, 알러지 천식 등 모든 아기 질병이 90% 이상 감소할지 모른다. 아기 환자 만명 중 9천명 이상이 고통을 안 겪어도 된다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뜻이다. 모든 아기들을 엄마 뱃속에 처음 생길 때 그대로 온전히 태어나 온전히 자라고 온전히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아이들이 신종플루백신을 맞았다.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맞췄다. 그때 내가 한의원에서 받은 전화만도 신종플루백신 맞고 아이가 의식불명, 사망, 백혈병, 기면증이다 등등 많았다. 그 외 내가 모르는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가 있



을 거라고 짐작한다.

이름 모를 온갖 소아 난치병은 아기의 신장이, 간이, 폐가, 심장이, 위장이 손상을 입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유해물질, 화학물질에 의해 면역계가 손상을 입거나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신증후군이 생긴다. 지능, 뇌, 성격장애, 신경장애도 마찬가지다. 온전하게 엄마 뱃속에 온 아기들이 어른에 의해 조금씩 손상을 입고 일생을 고통받는다.

엄마들이 내 아기와 다른 사람의 아기들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을 바꿔나가면 좋겠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기를 위해서. 훗날 내 아기의 아기를 위해서.

독감에 걸리면 천연치료물질로 해결해주면 간단하다. 열이 나면 난답반캡슐가루를 찍어 먹이면 면역계가 정상화되어 바로 열이 내려가고 가래, 염증이나 아토피에도 찍어 먹이면 화학약품의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 없이 해결된다.

아토피도 면역반응의 일종처럼 계속 염증이 생기고 피부세포가 파괴되기도 한다. 피부세포가 올라오면서 다시 파괴된다. 그러나 면역계가 정상화되면 피부 염증이 없어지고 건강한 새 피부세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 일반 증상 일 때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면, 또는 면역계에 이상이 있는 아기가 아니라면) 젖먹이 아기는 약이 거의 필요 없다. 감기, 독감, 코로나, 고열, 가래, 기침, 염증 등은 난답반캡슐 한 두알이면 다스릴 수 있다. 하루 이틀만에. 5개월짜리 아기는 캡슐 하루 1/3알 (0.2g 내외) 분말을 수십 회 나누어 찍어 먹인다.

물론 아토피 피부병은 몇 달 걸리기도 한다. 자연의 법칙은 매우 단순, 간단, 명료하다. 기능을 저하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독성물질의 양 A - 천연치료물질의 양 B = 0 이하가 되면 치료된다.

막 감염된 당일 독감은 아기 몸에 들어온 독성물질의 양이 적어 고열이나 가래도 하루 이틀이면 금방 치료되고 피부를 파괴하는 오래된 아토피 같은 것은 아기 체내에 쌓인 독성물질의 양이 많고 강해서 내보내는데 몇 달 걸리기도 한다. 십년 이상된 병증을 내보내는데는 또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걸



리는 게 당연하다. 특히 체내 독성 양이 적을 때, 즉 초기에 바로 해독 배출하지 않고 화학약품으로 눌러서 체내 내부로 밀어 넣은 경우는 해독 배출해내기가 훨씬 더 힘들고 오래 걸린다. 자연의 기본 법칙은 단순, 간단, 명료하다.

효과는 난답반캡슐이 가장 높고 사리장, 9회 자죽염 순이다. 가벼운 증상이면 사리장이나 자죽염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여도 된다. 사리장이나 자죽염으로 안될 것 같으면 난답반캡슐분말을 찍어 먹인다. 빈속보다 식사 중이나 후에 먹인다. 약효가 강할수록 빈속에는 먹기 힘들다.

사리장이나 자죽염은 음식에 간하기 좋다. 어른이 과로할 때, 아이가 공부나 운동으로 피곤해할 때 저녁 식사하면서 사리장을 먹게 되면 피로회복이 원활해져서 다음 날 훨씬 더 가쁜해진다. 피로가 빨리 풀려 학생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다. (사리장 먹은 직후 찬물, 찬 음료는 피해야 한다. 따뜻한 물, 국, 음료는 괜찮다.)

만약 암같은 심각한 병일 경우는 난답반캡슐을 찍어 먹이면서 병원 검사를 진행한다. 백혈병 진단받은 젖먹이 아기 부모가 인산선생을 찾아왔을 때 너무 어려 탕약을 못 먹으니 캡슐만이라도 계속 찍어 먹이라고 했던 적이 있다.

부모는 무지해서는 안된다. 매사 합리적,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약한 아기를 무지막지하게 어른처럼 다루면 안된다. 하루 0.2g 내외면 0.6g짜리 큰 캡슐은 1/3알이고 0.35g짜리 작은 캡슐은 1/2알 정도이다. 월령에 따라, 몸 무게에 따라 상황을 봄에서 1/3알 또는 1/2알 캡슐을 까서 가루를 작은 그릇에 담아 놓고 아주 작은 양을 깨알만큼 손가락에 찍어 하루종일 수십 회 아기 입 안에 쏙 넣어 준다.

아기들이 아토피로 피부가 농아 없어졌을 때는 난답반캡슐을 바르지 말라. 먹이기만 하라. 아기 상처에는 절대로 난답반캡슐을 바르지 말라. 단지 손가락으로 찍어 먹이기만 해야 한다. 판단컨대 아기 피부는 너무 연약하고 약해서 파괴된 피부로부터 뽑아내는 힘이 너무 강하면 고통도 극심할뿐더러 너무



자극이 강하면 오히려 새 세포재생을 방해할 거라고 추측한다. 아기에게 외용제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 반드시 먹여라.

핵심 치료원리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면역계를 정상화시켜 건강한 새 세포가 빨리 만들어지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아기의 면역계가 정상작동하면 오장이 좋아진다. 오장이 좋아지면 면역계가 정상작동된다. 양방향 선순환이다.

아기가 심각한 병으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간에 수술하든, 약물치료를 하든 면역계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오장이 튼튼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인공합성약품은 면역계 정상화, 오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은 못 한다. 이것은 오직 천연영양물질만 할 수 있다.

아기는 원래 면역력, 생명력이 어른보다 왕성해야 정상인데 소아암이나 난치병이 발병한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 유해물질에 의해 이미 오장의 기능이 부족하게 만들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백혈병, 혈액문제는 간의 기능 부족 때문에 발병하고, 뇌, 귀, 뼈, 신경, 호르몬, 힘줄 문제는 신장의 기능 부족, 소화기계는 비장의 기능 부족, 호흡기 계통은 폐의 기능 부족, 심장병은 심장의 기능 부족 때문이다.

9) 아기 심장병 치료법

심장병은 탕약 대신 전중혈(젖꼭지 사이 정중앙)에 실오라기처럼 가는 애엽뜸을 떠주면 (먹는 떡죽은 절대로 안되고 중국산 애엽도 안된다. 반드시 한국 강화애엽을 분말하고 체에 쳐서 가루는 버리고 고운 섬유질을 실처럼 가늘게 만들어 쓴다) 심장혈에 피가 빨리 공급되어 심장 세포 재생을 촉진하니 어린이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다. 돈도 안 드는 이 치료방법을 백년 전에 인산선생이 가르쳤으나 아무도 실행하지 않는다. 강화 애엽뜸이 워낙 가늘어서 아기는 따끔 따끔할 뿐이라 해가 전혀 없다. 만에 하나 심장병이 완치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니 그야말로 밀쳐야 본전인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

아기 환자는 오장의 기운이 부족하게 태어나서 발병하였으니 간이 취약하



니 당연히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아기 환자도 성인 환자와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을 해독 배출하고 오장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해주어 면역계 정상화, 생체치유력을 강화시키고 정상세포가 빨리 자라게 도와주면 치료된다. (해독보원: 노폐물 배출,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하여 생체치유력 강화)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내 아기의 면역계가 다른 튼튼한 아기의 면역계와 동일하다고 착각하여 태어날 때 조금 더 취약한 내 아기에게 무심코 각종 백신을 맞히면 면역계에 악영향을 미쳐 소아암이나 난치병이 촉발될 가능성 있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어른의 무지로 아기의 간, 오장, 면역계가 손상을 입어 난치병이 촉발되고 일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생명까지 위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ADHD, 뇌전증, 행동발달장애증후군, 자폐 등등 온갖 고통스러운 질병을 어른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가. 돈 때문에.

10) 아기 난치병 치방

4세 이상은 탕약을 먹을 수 있다.

소아 백혈병 탕제: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생강, 대추, 감초, 대파,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백개자, 행인, 하고초, 별갑, 천궁, 당귀, 자백목 등

혈액형이 O형이면 석고 추가

소아 뇌종양 탕제: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생강, 대추, 감초, 대파,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백개자, 행인, 하고초, 백강잠, 산약,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등

소아 신증후군: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생강, 대추, 감초, 대파,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백개자, 행인, 하고초, 백강잠, 산약, 석위초 등.

새 세포를 만드는 근본 힘은 간, 오장의 기능, 생체치유력에서 나온다. 인체의 뿌리는 오장이니 뿌리가 마르면 (오장의 기운이 고갈되면) 치료는 불가



능해진다. 난치병 치료 원리인 “해독보원”에서 “보원”的 중요성이다.

질문 : 다른 병원약과의 병행 여부, 수술, 화학항암제, 방사선 병행 여부
생명이 위험한 응급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수술과 합성약품을 써야 한다.
탕약도 음식과 같아 수술 전후 의사가 금식시키는 그 며칠간만 중단한다. 그
러나 난담반캡슐은 인체 필수미네랄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도 멘스껍지만
않다면 먹어도 된다. 다만 빈속에 멘스꺼우니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
론 아기의 먹는 방법을 활용하여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먹는 방법도 있으
니 상황따라 본인이 해나가면 된다. 간을 보호하고 면역을 정상화하는 필요
물질을 공급하는 것은 수술이나 합성약품치료의 성공률을 높여준다.

난담반은 향후 전 세계 모든 의사가 빠른 회복을 돋기 위해 권장하는 식품
이 될 것이다.

사고로 뇌가 다쳐 단단한 머리뼈 속에서 뇌조직이 부풀어오르고 흘러나
온 피나 체액에 주변 뇌신경세포가 잠겨 죽어갈 때 탕약과 난담반캡슐을 먹
여서 머리뼈 속에서 뇌부종과 염증반응을 빨리 중단시키면 뇌신경세포의 손
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위급시 콧줄로도 공급하여 체내에서 흡수만 되면
약효는 발휘된다. 뇌신경세포는 죽으면 살릴 수 없으니 뇌신경세포가 하나
라도 죽기 전에 신속히 복용시켜야 한다.

고열로 뇌세포가 손상될 때도 마찬가지 신속하게 뇌세포의 파괴를 막아야
한다. 아기 뇌는 고열에 매우 위험하다. 뇌세포는 신속이 핵심이다.

질문: 항암 중에 먹어도 되나요? 수술, 방사선 병행 여부? 의사선생님이 아
무 것도 못 먹게 해요.

수술, 화학항암, 방사선 중에- 난담반캡슐이나 탕약은 간을 돋고 오장을 돋
고 면역기능을 돋고 세포재생 촉진을 돋고 노폐물 배출기능을 돋고 생체내 모
든 정상작동을 돋고 원기를 돋는 천연건강식이므로 병원치료를 더 잘 받기 위
해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계속 병행하여 먹어주면 회복 촉진을 돋습니다. 수



술상처가 더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며 자가면역문제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며 화학독성물질에 의한 중독과 손상을 감소시켜 간을 보호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전이를 막아 병원치료의 성공률을 올려줍니다. 먹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11) 악성뇌종양 5세

20120105 백OO 5세 O형 여자 악성뇌종양(상의세포종) 5cm 2011년 3월 진단 수술 항암 5회. 뇌신경때문에 종양을 다 제거하지 못해 의사가 99% 재발한다고 말함. 식사 소량. 탕1차 사리장1 자죽염1 캡슐1

20120220 탕2차 /20120315 탕3차 사리장1 /20120406 탕4차 캡슐1 /20120430 탕5차 사리장1/ 20120522 탕6차 /20120523 캡슐1 /20120615 탕7차 /20120621 자죽염1

20120706 탕8차 캡슐1 /20120801 탕9차 캡슐1 /20120823 탕10차 /20120917 탕11차, 캡슐1 /20121012 탕12차 사리장1 자죽염1 캡슐1 /20121112 탕13차 /20121203 캡슐1

20121226 감기 열, 감기탕 10봉지 자죽염1, 28일 세브란스 병원 검사 예정 20121231 탕약14차 몸이 통통해지고 성격 부드러워짐. 서울성모병원 -> 신촌세브란스 28일 검사결과 종양 줄어들고 흐려지고 쭈글쭈글해짐. 마취하고 검사한 후에 부작용으로 열이 나고 좀 안 좋은 것 같다.

20130118 사리장1 /20130125 호두기름1 무엿1 /20130218 탕약15차 자죽염1 캡슐1 20130627 사리장1 /20130819 자죽염1 /20131008 탕약 16차 (병원검사하느라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해독을 위해 한번 더 복용) /20140617 사리장1

12) 중이염 3세 남아

20110107 최OO 2008년생 3세 남아 A형 감기로 열이 난다. 빈혈로 빈혈약 복용. 아토피 다리에 심하다. 감기탕 2봉지 호두기름 1병 신청



20120511 감기탕 3봉지 / 20121016 감기탕 6봉지 / 20130318 감기탕 5봉지

20130329 기침 / 물변 장염 / 가래에 약간의 피 / 열 있다가 말다가/ 목 아프다고 함. 인후염/ 과거 어릴 때 폐렴치료, 빈혈치료.

20130417 고열 중이염 고막 부었다. 12일 금요일부터 시작/ 해열제 복용

20130419 중이염 심해지고 귀에 물이 차고 고름 있어 잘 안 들린다. 이 비인후과 첫 진료 (소리를 잘 못 들어서 진료받음) 고름과 물이 꽉 차 있다고 함. 의사는 2~3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면서 치료기간 3~4개월 정도 같 수도 있다고 함. 항생제, 콧물약, 기관지, 해열제 처방받음. 캡슐 권하니 1병 주문했다가 곧바로 취소했다가 도저히 안되어 20130420 하루라도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야 된다고 20일 토요일 합천에서 함양까지 캡슐사러 옴. 캡슐 하루 1개에서 2개씩 복용. 처방받은 병원약은 안 먹임.

4월 20일: 저녁부터 캡슐 복용 시작. 반 알씩 하루 2회 합 1알. 다음날 반 알씩 3회 합 1알 반. 다음날 반 알씩 4회 합 2알

4월 22일: 이비인후과 2번째 진료. 의사가 아주 빨리 좋아지고 있다고 함. 3일 후에 한번만 더 보자고 함. 약은 처방받았으나 복용하지 않음.

4월 26일: 이비인후과 3번째 진료. 염증 거의 없고 물도 거의 흡수된 상태라고 함. 특별한 증상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와도 되겠다고 함. 의사는 병원약을 복용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를 위해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복용 안 했음.

난답반캡슐 먹은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귀에 꽉 찬 염증이 없어진 것 보고 병원약보다 오히려 난답반캡슐 처방이 훨씬 빠르다고 놀람.

13) 5개월짜리 아기 아토피 요약 기록

약품이나 스테로이드제, 연고 일체 사용 안함.

20210218 아토피로 진물이 나며 왼쪽 얼굴 피부 껍질이 사라지며 속살에 진물이 계속 흐르고 염증이 여기저기 생기며 살을 파들어가기 시작. 아기가 너무 가려워하고 못 긁게 하면 괴로워함. 아기 엄마는 절망감에 지옥에 있는 느낌. 이 때부터 (밤 11시) 난답반캡슐 손가락으로 찍어 먹이기 시작. 하루



0.15g~0.2g .

20210219 아침 8시 관찰. 9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진물이 덜 나오고 염증화 중단. 염증이 정지.

20210221 아침 9시 이틀만에 염증이 완전히 없어짐. 딱쟁이같은 것이 상처의 가장자리부터 얼굴 피부를 덮기 시작.

20210228 딱쟁이 밑으로 정상 얼굴 피부가 만들어지면서 상처가 점점 작아짐.

20220302 상처는 계속 작아지고 희고 단단한 얼굴 피부가 계속 만들어짐.

20220314 25일만에 녹아 없어진 얼굴 피부가 모두 만들어짐

피부에는 항균물질이 있어 염증을 막아주나 아토피로 피부가 녹아 없어지면 드러난 속살 상처에 여기 저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난답반캡슐을 먹이면 염증이 억제되고 피부가 없는 속살 상처에 가장자리에서부터 점점 딱쟁이가 생기며 속살 상처가 덮이기 시작한다. 한편 딱쟁이 아래에서 가장자리부터 정상 피부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조금씩 조금씩 속살이 좁혀지고 정상피부가 점점 더 만들어짐.

25일만에 모든 속살은 정상 피부로 덮임. 정상 피부가 만들어지면서 딱쟁이는 계속 떨어져 나간다. 25일만에 정상피부가 다 만들어져 피부의 항균물질로 더 이상 염증은 생기지 않음. 그러나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라서 한두 달 동안 피부 위로 진물이 나올 때도 있고 피부가 벌겋게 될 때도 있었다. 더 이상 진물도 나지 않고 피부가 붉어지지도 않고 완전히 백옥처럼 뽀얀 피부가 되기까지는 대략 3개월이 걸렸음.

14) 7개월짜리 아기 중이염 : 병원 항생제 없이 3일만에 좋아짐.

- 20220106 코로나 2021년생 15개월짜리 남아 코로나로 39도 고열. 난답반캡슐 손가락으로 찍어 먹이고 다음 날 1월 7일 바로 열이 정상.
- 2021년 출산 후 5개월짜리 엄마의 젖몸살 병원 약품 없이 5시간만에 좋아짐



4

뼈 척추 관절 가이드

디스크 뼈암 근골격계, 산후풍, 요통, 교통사고 골절
신경통 류마티스, 강직성척추염, 골수염, 골다공증

뼈로 전이된 암, 골수암, 척추, 관절염, 천연치료제 설명서

1) 뼈근골격계 처방, 요통, 협착, 교통사고 치료원리

인산선생 뼈 쳐방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탕약과 난담반캡슐이다. 여기서 난담반캡슐이 더 중요하다. 뼈, 척추, 관절, 신경, 힘줄의 뿌리는 신장이다. 골수에는 혈액이 들어있다. 혈액의 뿌리는 간이다. 그래서 뼈 쳐방에는 보혈제인 천궁, 당귀도 들어간다. 인체의 뿌리인 간, 신장, 오장이 좋아져야 뼈가 좋아진다. 뼈 자체가 좋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암 부위를 잘라내도, 화학항암제를 투여해도, 방사선으로 태워죽여도 재발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된다.

뼈가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암덩이가 자라는 것을 막으려면 뼈 자체가 좋아져야 한다. 뼈가 튼튼하려면 뼈의 뿌리인 신장, 간, 오장이 튼튼해져야 하고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염증이나 암세포를 억제, 사멸시킬 수 있어야 한다.

뼈의 성분이 칼슘이라고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질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 칼슘이 모자라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신장의 힘이 쇠약해 뼈 만드는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있어도 소용없다. 아무리 원료인 밀가루가 수북이 있어도 라면 만드는 기계 자체가 낡고 고장이 나있으면 라면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칼슘부족으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뼈 만드는 공장인 신장과 간의 뼈생산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칼슘 복용보다 뼈 만드는 생체 시스템을 회복시켜야 한다.

오장이 뼈 생산에 관여하지만 오장 중에서 특히 신장이 뼈의 핵심 뿌리다. 한의학에서 뼈, 관절염, 디스크, 신경통, 골수염 등에는 모두 노폐물, 유해물질을 해독, 배출하는 천연물질, 오장을 강화하는 천연물질,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천연물질, 뼈에 좋은 천연영양물질을 쓴다.

뼈의 뿌리는 신장인데 신장 관련 질병은 (1) 뼈 질환 (2) 뇌, 호르몬 관련 질병 (3) 이수도 기능으로(소변문제) 대략 분류할 수 있다.

(1) 뼈에는 우슬, 강활, 방풍 (2) 호르몬에는 백강잠, (3) 이수도 기능에는 석위초가 주재료이다. 이들 주 천연치료물질은 식품법에 의하면 한의약품이 아니라 모두 천연식품이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며 건강한 사람이 먹어도 뼈건강에 좋고 아기 뼈 증상에도 쓴다.

(1) 뼈에 좋은 천연물질인 동송근, 우슬, 강활, 방풍은 뼈치료의 주성분이다. 뼈, 척추, 관절염, 디스크, 뼈암, 산후풍, 신경통, 류마티스, 강직성척추염, 골수염, 골수암, 골다공증 등에 필수.

(2) 호르몬의 뿌리도 신장이다. 호르몬 관련질환 치료에는 백강잠, 산약,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등을 쓴다. 악성뇌종양, 임파선염, 임파선암, 방광염, 방광암, 전립선비대, 전립선염, 갑상선염, 갑상선기능저하, 갑상선기능亢진, 갑상선결절, 갑상선암, 임파선염, 임파선암, 신장염, 신증후군, 신우신염, 신부전, 요도암, 바르톨린선낭종, 바르톨린선암 등이 신장과 호르몬 관련 질환이다. 모두 신장 강화 처방을 쓴다.

(3) 신장의 이수도 기능 질환에는 석위초가 주 치료제이다.



아무리 좋은 천연물질이라도 이들만으로는 병증이 심할 때는 역부족이다. 오장의 면역계를 정상화하여 해독 배출 기능을 올려주고 항염, 항암기능이 높은 천연치료제 난답반캡슐이 필수적이다.

뼈 영양물질 우슬, 강활, 방풍에는 독이 없다. 항염증물질인 유근피에도 독이 없어 임신부가 먹어도 된다. 난답반은 아기 분유에도 들어가는 필수 구리 미네랄이다.

인산선생의 뼈천연치료제는 이처럼 누구에게나 안전한 천연영양물질이다. 척추염, 관절염, 관절이 둘러 없어진 증상, 디스크가 영양부족으로 진기가 빠져 푸석해져 무게에 눌려 찌그러져 주변 신경을 건드려 아픈 증상, 갖가지 염증, 진액 고갈증에는 부족한 뼈, 관절 영양물질을 공급해줘야 한다.

요통은 ①디스크가 약해져(신장이 고갈되어 디스크 필요영양물질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해 진기가 빠져) 뼈져나와 신경을 눌러 아픈 허리디스크나 ②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뼈가 자라서(신장이 고갈되어 뼈, 인대물질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해 진기가 빠져 염증이 발생하거나 변질되어)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눌러 아픈 척추관협착증이나 모두 뼈, 관절, 디스크, 인대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천연물질로 개선될 수 있다.

환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현상인, 면역이 약해진 세포에 염증이 생겨 서로 들러붙는 유착이나 좁아지는 협착이나 근본은 오장의 고갈이다. 오장의 힘이 강하면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서로 들러붙지 않는다. 오장의 기운이 강하면 디스크가 눌리거나 터지거나 새어나오지 않고 척추관도 두꺼워지거나 노폐물이 쌓이거나 자라지 않는다. 신경을 건드리거나 누르지 않는다.

자연에는 뼈 천연치료물질이 있다. 자연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천연치료물질이 있다. 우슬, 강활, 방풍, 금은화, 포공영 등.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이들 안전한 천연치료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로 부러졌을 때는 신속히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때도 천연



항염물질을 같이 쓰면 상처가 빨리 아물고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 후유증이 없다. 자가면역질환, 만성퇴행성질환(원인은 노폐물, 독성물질 축적, 오장의 쇠약), 염증이나 통증도 천연치료물질로 해결 가능할뿐더러 빠르다. 뼈암도 마찬가지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라 몸속 유익균까지 죽이고 소염제는 염증부 산물질을 억제하고, 스테로이드제는 면역계를 억제하여 염증을 막는데, 모두 뼈 자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장에 좋은 것도 아니다. 스스로 염증을 억제하는 면역세포를 강화시키지도 않는다. 뼈나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뼈암이나 뼈로 전이된 환자에게 뼈 천연영양물질을 알려주면 많이들 주저하며 “의사가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한다. 마치 영양실조로 면역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어 부스럼이 난 아프리카 아이가 “밥은 먹으면 안되고 부스럼약품만 먹어야 해요.”하는 말과 똑같다.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다. 뼈가 상하면 뼈에 좋은 것을 먹어야 뼈가 회복된다. 뼈 질환은 단 한마디로 뼈 영양실조다.

관절이 뒷고 낚는 것은 관절이 진기가 빠져 푸석해져서이다. 관절 영양실조이다. 뇌종양, 갑상선, 임파선 관련 환자는 호르몬을 만드는 신장 영양실조이고 위암은 위장, 비장 영양실조이고 폐암은 폐 영양실조이고 간암은 간 영양실조이다.

곁으로 건장한 사람이라도 간, 신장, 비장, 폐, 심장의 힘이 고갈되면 관련 부위에 문제가 나타난다. 간의 기운이 고갈되면 간이나 혈액에 질병이 생긴다. 백혈병, 자궁, 난소, 안과 질환이 모두 간의 기운 고갈로 발생한다.

기운 실조란 신장, 위장, 폐, 간의 힘의 부족, 면역 부족, 생체치유력 부족이란 의미다. 오장육부의 기능영양실조는 오장육부의 바탕이 되는 영양물질, 필요물질을 보충해주어야 한다. 천연영양물질, 생체치유력을 충전해주지 않고 화학약품만 주입하면 치료는 어렵다.



강직성척추염이나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이다. 자기 면역계가 계속 자기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이 생긴다. 뼈나 신장이 강건해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이들 비정상 면역반응이 조절되어야 한다. 천연물질은 면역조절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수술하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든 면역계가 강해져야 하고 신장, 오장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많은 뼈, 척추, 근골계 환자들이 자신이 뼈 영양실조, 신장 영양실조라는 사실을 모른다. 많이 먹고 살만 찌면 영양 충족이라고 생각한다. 고도비만은 신장의 기운이 쇠약해져 (신장 기능을 이루는 신장 기운 고갈) 영양물이 뼈로 가지 않고 살로 가는 증상이다. 신장 기운이 약하면, 즉 뼈의 힘이 쇠약하면 영양물을 뼈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살로 다 간다. 먹으면 전부 살로 가니 그래서 비만 환자는 신장을 강화시키는 처방, 신장 기운을 돋는 처방을 한다. 신장 기능이 쇠약하면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래서 인산선생의 고도비만 처방은 신장 강화 처방이다.

물론 식사의 과잉섭취도 문제이니 당연히 과식은 피해야 한다. 신장 기능을 이루는 신장의 힘을 보충해주는 물질은 신장에 유익한 천연물질이다.

뼈에 암이 생기면 암종을 잘라내면 해결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화학독성물질(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면 치료된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으로 그 부위를 태워 없애면 암이 나을 거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뿌리인 신장, 오장이 좋아져야 암이 완치된다. 뼈의 뿌리가 신장이고 오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가지에 불과한 뼈의 종양만 잘라내려 하니 재발할 수밖에 없다. 뼈, 관절에 생긴 염증부산물만 억제하려고 한다.

치매, 파킨슨병같은 뇌질환도 뿌리인 신장 약화로 뇌신경세포에 노폐물질이 축적되어 신경세포를 죽여서 발생하는 병이다. 뿌리인 신장의 힘이 강해져 가지인 뇌에 필요한 물질이 원활히 공급되고, 필요물질 생성, 뇌로부터 노폐물질이 원활히 배출되면 뇌신경세포는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어 악화를



막을 수 있어 회복이 가능하다. 물론 너무 늦으면 안된다. 죽어가고 있는 뇌 신경세포는 치료할 수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뇌신경세포를 살려낼 수는 없다. 뼈도 마찬가지다.

중이염도 항생제만으로는 재발하고 계속 화학약품으로 억제하다 보면 다른 큰 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합성약품은 중이염의 뿌리인 신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간, 폐 등 오장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치료가 쉬운 표면의 병증을 해독, 배출시키지 않고 합성약품으로 억제하려다가 깊숙이 밀어 넣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게 만든다. 갑상선결절이나 갑상선염 일 때 합성약품으로 계속 신장에 무리를 가하면 갑상선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임파선암도 신장에 좋은 천연물질을 복용하여 신장의 기능이 증강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사멸시켜 치료되고 재발하지 않는다. 바톨린선낭종이나 바르톨린선암도 마찬가지로 신장이 좋아지면 면역계가 활발해져 치료된다.

뼈의 뿌리가 신장, 오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소염제, 항생제, 수술이나 화학항암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재발, 전이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 무릎에 염증이나 물이 차오르면 빨리 뼈와 신장을 좋게 해서 염증과 물을 말라붙게 해야 한다. 뼈와 신장이 천연치료물질로 좋아지면 강제로 뽑아낼 필요없이 생체치유력이 높아져 염증도 억제되고 물도 마른다.

뼈마디가 쑤시는 산후풍, 신경통에는 뼈 영양물질을 복용하면 좋아진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액속, 세포속 노폐물질을 그 만큼 빨리 이동시켜 배출할 수 있다. 척추, 관절, 근골격계 환자는 먹는 치료제만큼 온열이 되는 따뜻한 침대나 방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 염증이 억제되고 통증도 줄어든다. 마비가 빨리 풀리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진다.

뼈, 관절 환자도 다른 모든 병의 발병원리, 치료원리와 동일하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성물질, 화학물질과 스트레스나 과로로 발생한 인체내 유해물



질, 노폐물 등이 쌓여 신장의 기운이 약화되고 그만큼 배출능력이 저하되어 그만큼 더 노폐물, 불순물이 쌓여 관절이나 관련 세포가 파괴된다.

노폐물, 유해물질을 해독 배출하고 뼈와 신장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해주어 면역계 정상화, 생체치유력을 강화시키고 정상세포가 빨리 자라게 도와주면 치료된다. (해독보원: 노폐물 배출,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하여 생체 치유력 강화)

노폐물 배출, 면역강화 - 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인자, 유해물질을 잘 배출해내고 면역계를 정상화시켜 면역세포가 염증을 억제하고 비정상세포를 사멸시키고 건강한 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난답반캡슐 - 세포내 염증, 불순물, 노폐물을 뽑아낸다. 인산선생은 난답반캡슐이 죽염의 천배, 만배 높은 약성을 지녔다고 했다. 먹으면 위벽의 노폐물을 뽑아내고 뇌부터 발끝까지 세포에 영향을 주어 나쁜 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기능을 한다. 해독하면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된다. 1단계 염증이 억제되면 2단계 염증이 제거되고 그 후 3단계 새 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피부 아토피 아기환자를 통해 관찰된다. 암이든 피부병이든 뼈, 관절, 디스크든 노폐물이 배출되고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되면 치료된다. 뱃속에서 일어나는 암이나 피부표면에서 관찰되는 피부병의 발병원리, 치료원리, 진행과정은 동일하다.

유해물질 → 중독, 기능 저하 → 세포파괴 → 천연치료물질로 해독, 노폐물 배출 → 면역기능 정상화 → 중독된 오장의 기능이 원활해짐, 염증 억제, 비정상세포 사멸 → 새 세포 재생촉진 → 죽은 상처는 딱정이로 밀려나고 새 세포가 자라나 회복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서 면역기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면역계가 취약할 때 자가면역반응으로 폐염증이 급격히 증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는 면역체계가 망가졌다는 뜻이다.(사이토카인 폭풍) 현대난치병은 자가면역반응이 일



어나는 경우가 많다.

화학약품으로 면역 과발현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화학약품은 반응을 높이거나, 반응을 억제하거나 둘 중 한가지 기능만 하지 높은 것은 내려주고 낮은 것은 올려주는 조절기능은 없다. 그러나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치료물질은 오장을 도와 생체 조절기능을 정상화한다. 난답반은 비정상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면역이 과발현되어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것을 조절하여 난치 자가면역질환을 다스린다.

〈뼈, 근골격계 처방 탕제 및 신장 관련 처방〉

(1) 뼈, 척추, 관절염, 디스크, 뼈암, 산후풍, 신경통, 류마티스, 강직성척추염, 골수염, 골수암, 골다공증 등은 뼈에 좋은 천연물질인 동송근, 우슬, 강활, 방풍,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생강, 대추, 감초, 대파,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건칠피(만약 옷을 안 타면, 그리고 수혈받은 적 없을 때만)

(2) 악성뇌종양, 임파선염, 임파선암, 방광염, 방광암, 전립선비대, 전립선염, 전립선암, 갑상선염, 갑상선기능저하, 갑상선기능亢진, 갑상선결절, 갑상선암, 임파선염, 임파선암, 신장염, 신증후군, 신우신염, 신부전, 요도암, 바르톨린선낭종, 바르톨린선암, 호르몬 관련질환의 뿌리도 신장이다. 이러한 호르몬 관련에는 백강잠, 산약,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생강, 대추, 감초, 대파,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건칠피(만약 옷을 안 타면, 그리고 수혈받은 적 없을 때만)

(3) 신장의 이수도 기능 질환에는 석위초,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생강, 대추, 감초, 대파,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건칠피(만약 옷을 안 타면, 그리고 수혈받은 적 없을 때만)

혈액형이 O형이면 석고 추가



간으로 전이되었으면 간 쳐방 시호, 인진, 황련, 자백목 추가

질문 : 다른 병원약과의 병행 여부, 수술 병행 여부

생명이 위험한 응급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수술과 합성약품을 써야 한다. 유황오리처방탕약은 수술 전후 의사가 금식시키는 그 며칠간만 중단한다. 그러나 난답반캡슐은 인체 필수미네랄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도 메스껍지 만 않다면 먹어도 된다. 다만 빈속에 메스꺼우니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기의 먹는 방법을 활용하여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먹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따라 본인이 해나가면 된다. 간을 보호하고 면역을 정상화하며 오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수술이나 합성약품치료의 성공률을 높여준다. 난답반은 향후 모든 의사가 빠른 회복을 돋기 위해 권장하는 식품이 될 것이다.

환자는 (1) 병원치료를 병행하면서 뼈, 오장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먹는 방법, (2) 병원치료없이 천연치료물질만으로 근골격계를 튼튼히 강화시켜나 가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질문: 수술, 항암 중에 먹어도 되나요? 방사선 중에는? 의사선생님이 아무 것도 못 먹게 해요.

수술, 화학항암, 방사선 중에- 난답반캡슐이나 탕약은 간을 보호하고 위장, 오장을 돋고 면역기능을 돋고 세포재생 촉진을 돋고 노폐물 배출기능을 돋고 생체내 모든 정상작동을 돋고 원기를 돋는 천연건강식이므로 병원치료를 더 잘 받기 위해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계속 병행하여 먹어주면 회복 촉진을 돋습니다.

수술상처가 더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며 자가면역문제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며 화학독성물질에 의한 중독과 손상을 감소시켜 간과 비장을 보호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전이를 막아 병원치료의 성공률을 올려줍니다. 먹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간과 오장에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암치료의 핵심입니다.

2) 강직성척추염 (21세 미국 남자 대학생)

20100920 000 미국환자 남 21세 AB형

대학 3학년에 재학중 강직성척추염 (2010년 7월 11일 진단 후 양약 복용 중), 통증 있음, 양약 부작용으로 피부질환. 존스홉킨스병원 / 탕약1차 캡슐 5병 사리장 6병 미국으로 발송. 모든 양약을 끊음.

20101021 탕약2차 /20101123 탕약3차, 난답반캡슐2개. 20101213 통증 레벨 7

20101220 머리카락 많이 빠진다. 살 빠진다. 허리 제끼면 아프다. 통증 레벨 지난번 7이었다가 현재 1 내지 3 /20110106 탕약4차 /20110207 탕약5차 난답반캡슐2병 자죽염2kg 사리장1병

20110310 탕약6차 난답반캡슐2병, 사리장2병 /20110404 탕약7차

20110506 탕약8차 난답반캡슐2병 사리장2병 /20110613 탕약9차 난답반캡슐2병 자죽염1킬로

20110711 탕약10차 난답반캡슐2병 사리장2병 /20110810 탕약11차

20110914 탕약12차 자죽염1킬로 /20111117 탕약13차 난답반캡슐1병 사리장2병

강직성척추염은 병원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염증이 높아져 매우 위험한 난치병인데 이 환자는 미국에서 유황오리탕약 복용 즉시 모든 양약 끊고 강직성척추염과 함께 피부질환도 치료함. 현대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실제로 이렇게 한국천연물질로 치료 가능함. 염증을 억제하고 건강한 피부 재생 촉진. 미국도 어떤 현대의학도 완치하지 못하는 현대난치병이라도 너



무 늦은 상태가 아니라면 천연물질로 치료가 가능.

3) 턱 관절 유방암 임파선암 당뇨 (53세 여)

091113 박OO 여 53세 O형

유방암 2기 2009년 11월 3일 수술 임파선 3개 전이. 08년 당뇨로 탕약 복용

현재 중단. 얼굴 턱관절이 아파 침 맞고 물리치료 중. 09년 4월 방광염 치료.

091116 몸이 차다. 옻 안 탄다. 아주대 수술 탕1차

091123 사리장1 난담반캡슐 1병 /091130 탕약2차 사리장1 난담반캡슐
1 자죽염1

설사 좀 한다. 턱 수술 자리, 오른 팔 통증. 당뇨 수치 조금 내려가는 중.

091130 왼쪽 무릎, 왼쪽 얼굴 턱 관절 수술 부위 오른 팔 통증 가스 나오
고 배 꾸룩

091211 난담반캡슐 2병 사리장4 자죽염1 /091214 탕3차 /100104 난담
반캡슐 1병 사리장1 자죽염1

100107 탕4차 사리장1 난담반캡슐1 /100120 사리장1 난담반캡슐1
/100129 탕5차+난담반캡슐1병+사리장1 /100209 사리장1 자분1 난담반
캡슐1 /100217 탕6차 난담반캡슐1 사리장1 죽염1

100226 사리장1 난담반캡슐2 /100309 사리장2 자죽염분말 1 난담반캡
술1 /100322 탕7차 사리장2 난담반캡2병 /100407 사리장1 난담반캡술2
병 /100410 탕8차 /100421 난담반캡술1병

100503 탕9차 사리장2 난담반캡술2 /100520 난담반캡술2병 사리장2
/20100601 탕10차

20100608 난담반캡술2병

상태가 양호해서 직장생활



5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뇌종양 임파선암 신부전 가이드

전립선염, 전립선비대, 신장염, 신증후군
신우신염, 요도암, 바르톨린선암, 바르톨린낭종
갑상선, 임파선, 뇌종양, 천연치료제 설명서

1) 뇌, 귀, 신경, 방광, 전립선, 갑상선, 임파선 등 모든 호르몬샘의 뿌리는 신장이다.

인산선생 신장암 처방은 신장암 텅약과 난답반캡슐이다.

여기서 난답반캡슐이 더 중요하다. 신장은 인체의 뿌리인 오장의 하나이다.

뿌리 자체가 좋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암 부위를 잘라내도, 화학항암제를 투여해도, 방사선으로 태워죽여도 재발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된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암덩이가 자라는 것을 막으려면 신장 자체가 좋아져야 한다. 신장이 튼튼해지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염증이나 암세포를 억제, 사멸시키니 완치되고 예방도 된다. 한의학에서 뇌, 귀, 신경, 정소, 방광, 전립선, 요도, 바르톨린선, 갑상선, 임파선 등 모든 호르몬샘의 뿌리는 신장이다. 뿌리인 신장에 좋은 것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양성뇌종양, 악성뇌종양, 임파선염, 임파선암, 방광염, 방광암, 전립선비대, 전립선염, 전립선암, 갑상선염, 갑상선기능저하, 갑상선기능항진, 갑상선결절,



갑상선암, 임파선염, 임파선암, 신장염, 신장암, 신증후군, 신우신염, 신부전, 요도암, 바르톨린선낭종, 바르톨린선암이 완치되려면 신장이 좋아져야 한다.

수술하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든 면역계가 강해져야 하고 신장, 오장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많은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환자들이 암종을 잘라내면 해결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화학독성물질(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면 치료된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으로 그 부위를 태워 없애면 암이 나을 거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뿌리인 신장이 좋아져야 암이 완치된다. 뇌종양의 뿌리가 신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가지에 불과한 뇌의 종양만 잘라내려 하니 재발할 수밖에 없다. 뇌종양처럼 치매, 파킨슨병같은 뇌질환도 뿌리인 신장 악화로 뇌신경세포에 노폐물질이 축적되어 신경세포를 죽여서 발생하는 병이다.

뿌리인 신장의 힘이 강해져 가지인 뇌에 필요한 물질이 원활히 공급되고, 필요물질 생성, 뇌로부터 노폐물질이 원활히 배출되면 뇌신경세포는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어 악화를 막을 수 있어 회복이 가능하다. 물론 너무 늦으면 안된다. 죽어가고 있는 뇌신경세포는 치료할 수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뇌신경세포를 살려낼 수는 없다. 중이염도 항생제만으로는 재발하고 계속 화학약품으로 억제하다 보면 다른 큰 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합성약품은 중이염의 뿌리인 신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간, 폐 등 오장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치료가 쉬운 표면의 병증을 해독, 배출시키지 않고 합성약품으로 억제하려다가 깊숙이 밀어 넣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게 만든다.

갑상선결절이나 갑상선염일 때 합성약품으로 계속 신장에 무리를 가하면 갑상선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임파선암도 신장에 좋은 천연물질을 복용하여 신장의 기능이 증강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사멸시켜 치료되고 재발하지 않는다. 바톨린선낭종이나 바르톨린선암도 마찬가지로 신장이 좋아지면



면역계가 활발해져 치료된다. 그러나 뿌리가 신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술이나 화학항암제로 해결하려 하니 결국 재발, 전이되어 신장뿐 아니라 오장이 다 손상되어 생명을 잃게 된다. 이렇게 단순한 자연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고통을 막을 수 없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력을 보관하는 생명금고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각자의 전 재산(신장의 힘, 정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살아가면서 계속 사용하여 정력은 점점 감소한다. 80년, 90년 살면서 갖고 온 정력을 다 써버려 신장이라는 생명금고 암이 0이 되면 우리 생명은 끝난다.

신장은 인체 내 모든 물에 관련된 작업을 담당한다. 몸이 붓는 것도 신장의 힘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만도 신장의 능력에 달려 있다. 신장기운이 약하면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뼈로 가지 않고 살로 가서 비만해진다. 신장 기능이 쇠약하면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의미다. 그래서 인산선생의 고도비만 처방은 신장을 강화시키는 처방이다.

복수가 차는 현상은 인체 수작업 담당을 맡은 신장이 손상을 입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물론 이때 신장이 사진상으로는 멀쩡하다. 이뇨제나 복수천자로 당장 눈앞의 복수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신장의 물 조절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복수는 다시 차오른다. 인체에 유해물질,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세포가 중독되고 기능 교란이 일어나고 불순물,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 오장 중에 특히 신장이 약화되면 신장, 뇌, 신경, 정소, 방광, 전립선, 요도, 바르톨린선, 갑상선, 입파선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 신장암환자는 신장의 기운이 이미 쇠하여 신장암이 발생하였기에 신장이 취약하니 당연히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조심해야 한다. 신장암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성물질, 화학물질과 스트레스나 과로로 발생한 인체내 유해물질, 노폐물 등이 쌓여 중독되거나 저하되어 면역계가 약화되고 세포가 파괴되는 병이다.



노폐물, 유해물질을 해독 배출하고 신장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해주어 면역계 정상화, 생체치유력을 강화시키고 정상세포가 빨리 자라게 도와주면 치료된다. (해독보원: 노폐물 배출,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하여 생체치유력 강화)

각종 암의 마지막 단계는 뿌리인 오장이 중독되고 쇠약해지는 것이다. 첫 시작이 어느 부위 암이든 상관없다. 초기 전립선암(전립선의 뿌리는 신장)으로 시작해 수술이나 화학항암 후에 뼈(뼈의 뿌리는 신장)나 폐로 전이되면 완치 가능성은 매우 적어진다. 시간을 지체하여 병독이 너무 깊게 침투한 때문이다.

모든 질병은 간, 오장의 해독기능, 청혈기능이 떨어져 독성물질, 유해물질에 의해 세포가 손상되어 병이 발생하였기에 당연히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조심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성물질, 화학물질 또는 스트레스나 과로로 발생한 인체내 유해물질, 노폐물 등이 쌓여 오장의 기능이 중독되거나 저하되어 면역계가 약화되고 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임파선암 뇌종양 전립선비대 신장염 신증후군 신부전 신장결석 요도암 바르톨린선암 바르톨린선낭종 치료〉

노폐물 배출, 면역강화 - 몸속 암유발인자, 세포를 썩게 하는 유해물질을 잘 배출해내고 면역계를 강화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또는 염증)를 억제하고 사멸시키고 건강한 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난답반캡슐 – 세포내 염증, 불순물, 노폐물을 뽑아낸다. 인산선생은 난답반캡슐이 죽염의 천배, 만배 높은 약성을 지녔다고 했다. 먹으면 위벽의 노폐물을 뽑아내고 뇌부터 발끝까지 세포에 영향을 주어 나쁜 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기능을 한다. 해독하면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된다. 1단계 염증이 억제되면 2단계 염증이 제거되고 그 후 3단계 새 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피부 아토피 아기환자를 통해 관찰된다. 암이든 피부병이든 뼈, 관절, 디스크든 노폐물이 배출되고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되면 치료된다. 뱃속에서 일어나는 암이나 피부표면에서 관찰되는 피부병의 발병원리,



치료원리, 진행과정은 동일하다.

유해물질 → 중독, 기능 저하 → 세포파괴 → 천연치료물질로 해독, 노폐물 배출 → 면역기능 정상화 → 중독된 오장의 기능이 원활해짐, 염증 억제, 비정상세포 사멸 → 새 세포 재생촉진 → 죽은 상처는 딱정이로 밀려나고 새 세포가 자라나 회복

자가면역질환 치료에서 면역기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하다.

화학약품으로 면역 과발현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화학약품은 반응을 높이거나, 반응을 억제하거나 둘 중 한가지 기능만 하지 높은 것은 내려주고 낮은 것은 올려주는 조절기능은 없다. 그러나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치료물질은 오장을 도와 생체 조절기능을 정상화한다. 난담반은 비정상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면역이 과발현되어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것을 조절하여 난치 자가면역질환을 다스린다.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 신장염 신증후군 신부전 신장결석 요도암 탕제: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건칠피 (만약 옷을 안 타면, 그리고 수혈받은 적 없을 때만), 백강잠, 산약, 석위초, 석룡자 등 갑상선암 임파선암 뇌종양 바르톨린선암 바르톨린선낭종 탕제: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건칠피 (만약 옷을 안 타면, 그리고 수혈받은 적 없을 때만), 백강잠, 산약 등

헬액형이 O형이면 석고추가

간으로 전이되었으면 간 처방 시호, 인진, 황련, 자백목 추가

뼈로 전이 되었으면 뼈 처방 우슬, 강활, 방풍 등 추가

붓거나 복수가 차면 통초, 호장근 등 추가

자연의 법칙은 매우 단순, 간단, 명료하다. 기능을 저하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독성물질의 양 A - 천연치료물질의 양 B = 0 이하가 되면 치료된다.



다른 병원약과의 병행 여부, 수술 병행 여부

생명이 위험한 응급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수술과 합성약품을 써야 한다. 유황오리처방탕약은 수술 전후 의사가 금식시키는 그 며칠간만 중단한다. 그러나 난답반캡슐은 인체 필수미네랄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도 메스껍지만 않다면 먹어도 된다. 다만 빈속에 메스꺼우니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기의 먹는 방법을 활용하여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먹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따라 본인이 해나가면 된다.

질문: 수술, 항암 중에 먹어도 되나요? 방사선 중에는? 의사선생님이 아무 것도 못 먹게 해요.

수술, 화학항암, 방사선 중에- 난답반캡슐이나 탕약은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오장을 돋고 면역기능을 돋고 세포재생 촉진을 돋고 노폐물 배출기능을 돋고 생체내 모든 정상작동을 돋고 원기를 돋는 천연건강식이므로 병원치료를 더 잘 반기 위해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계속 병행하여 먹어주면 회복 촉진을 돋습니다. 수술상처가 더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며 자가면역문제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며 화학독성물질에 의한 중독과 손상을 감소시켜 간과 신장장을 보호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전이를 막아 병원치료의 성공률을 올려줍니다. 먹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간과 신장에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암치료의 핵심입니다.

수술, 신지로이드 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백신, 화학항암제, 방사선 근본 의미는 동일합니다.

신지로이드: 몸에서 천연호르몬을 만드는 갑상선을 제거하고 합성신지로이드를 복용하면 된다는 주장:

공개된 신지로이드 부작용 정리



부작용이란 몸이 나빠져 질환의 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합성신지로 이드로 발생한 질환 정리가 맞는 표현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어떤 긍정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을 호도하지요.

간기능 장애, 발열, 권태감, 간기능 검사치의 이상, 근육통, 월경장애, 제중감소, 무력감, 피부과민증, 피부의 홍조 발진, 피부 반점, 가려움, 두드러기 등은 모두 간이 관련된 간 기능문제입니다. 간이 손상을 받아 해독, 청혈 기능이 쇠약해질 때 나타나는 병증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간의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기능 쇠약은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은 전신의 청혈작용을 담당하고 소화효소에도 관여하고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런 해독, 청혈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탁해져 갖가지 관련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이 병들었다' 입니다.

정신신경계, 진전, 불면, 두통, 어지러움, 발한, 신경과민, 흥분, 불안, 조울 등의 정신 질환, 경련 등은 모두 신장이 손상을 받아 신장기능이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의학에서 뇌호르몬 생성, 조절, 생체 수분 조절, 뼈 관련 질환은 모두 신장이 관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진을 찍어도 신장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이처럼 기능 문제는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한의학에서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기능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한마디로 '신장이 병들었다'입니다.

순환기계, 심계항진, 맥박 증가, 부정맥, 협심증, 맥압의 상승은 심장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심장이 병들었다'입니다. 소화기계, 식욕부진, 구토, 설사, 복부 경련 등은 비장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비장이 병들었다'입니다. 그 외 알려진 각종 부작용 및 수많은 증상은 모두 신장, 심장, 폐, 비장, 간 등오장이 손상을 입어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장이 병들었다'입니다.

환자는 수술로 제거하라고 지시받으면 수술 안 하자니 암이 커질까 두렵겠지만,



(1) 수술하면서 병행하여 신장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복용하여 치료율을 올리기

(2) 수술 안 하면서 천연치료물질만으로 자신의 면역세포를 증강시켜 암세포를 사멸시켜나가기,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학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하든, 안 하든, 화학항암제를 먹든, 안 먹든 생체치유력을 높여주는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여 간, 신장을 도와주면 완치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고 오장에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암치료의 핵심입니다. 환자는 처방받은 화학약품이 완치에 꼭 필요한 약인지, 아니면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약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거나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불안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치료효능은 화학약품만큼 강한 천연치료제가 있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로 간단합니다. ①천연치료제를 병원 화학약품과 같이 복용하거나 ②화학약품대신 천연치료제만 단독 복용할 수 있습니다.

2) 방광암 난소암 자궁암 골반 전이 (36세)

090106 김OO 36세 A형 여

난소암 수술. 자궁, 나팔관, 난소 다 절제함. 항암 4차 하고 검사하니 암세포가 다시 전이 확산하여 재수술 거부, 항암 거부 내원.

08년 9월 배가 아파서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에 가서 왼쪽 난소에 물혹이 있다고 하여 현미경 상에 악성은 아니어서 복강경 제거 수술(1차)을 했는데, 떼어내고 보니 수술 부위 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변하면서 순식간에 암세포가 확산되어 자궁, 방광 모두 다 암세포가 들어붙어서 다시 자궁 등을 모두 들어내는 수술(2차)을 하고 방광캡질도 약간 떼내었다. 순간적으로 암세포가 확산되어 항암 4차 하고 씨티 찍어 09년 1월 4일 확인한 결과 치료한 부위에



다시 암세포가 보이고 골반 근육쪽에도 암이 새로 생겼다.

병원에서 다시 수술(3차) 권하면서 항암도 더 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09년 1월 6일 인산한의원 찾아 옴.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암세포가 너무 빨리 전이 확산되어 희귀하다고 일산 국립암센터에 보고함. 식사 잘하고 아직 붓는 것 없음. 옷 안탈. 08년 12월 말 검사 시 골반근육에 2센티 크기로 보인다고 했다.

090108 탕약1차, 사리장 1, 자죽염 1, 난답반캡슐 1병 발송 /090110 유죽액, 관장기 발송 /090112 사리장 1 발송 /090116 난답반캡슐 1병 발송

090117 사리장 1 발송 /090120 탕약 2차 /090128 탕약 3차, 사리장 2, 난답반캡슐 2병

090211 탕약 3차, 난답반캡슐 2병 다리에 붉은 반점이 발등으로 내려온다고 함. 시커멓고 파랗게 발에 반점 생김.

090219 난답반캡슐 2병 /090214 유죽액 발송 /090303 탕약 4차, 사리장 2 /090320 탕약 5차 /090406 난답반캡슐 2병, 관장기, 유죽액 1 /090421 난답반캡슐 2병, 관장기

090422 탕약 6차 /090511 탕약 7차, 난답반캡슐 2병

090512. 2월경에 배주위 검은 반점 생기고 다리에서 발쪽으로 붉은 점이 내려가는 것이 보였으나 현재 다 사라지고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다. 현재 엄지발톱 뿌리 노랗게 새로 올라오고 있다. 탕약 먹고 자면 배쪽에 더운 것이 오르는 느낌. 땀이 많이 난다. 얼굴색 좋다고 한다.

090601 난답반캡슐 2병

090617 탕약 9차, 난답반캡슐 1병

090630 난답반캡슐 2병, 유죽액 1. 명 같은 것이 하나씩 생긴다. 대변 여러 번.

090806 난답반캡슐 2병. 명이 다 사라짐. /090810 탕약 10차 /090825 난답반캡슐 2병



090827 탕약 11차 /090912 난담반캡슐 2병 /090916 탕약12차, 사리장1,
자죽염1

090929 난담반캡슐 2병 /091001 탕약 13차 /091021 탕약 14차
난담반캡슐 2병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이지만 병원 검사 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염려되어 병원 검사는 안 함.

3) 급성 전립선염 52세

20121226 박OO 52세 남 B형

급성전립선염 2012년 11월 20일 급성전립선염으로 고열이 나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 주사 맞고 약을 복용했으나 염증이 치료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작용 심각. 어지럽고 가슴 두근거림 마비감. / 그 얼마 전에 감기로
양약 복용한 적 있다. 탕약 2개월치 한꺼번에 제조해서 보냄. 난담반캡슐1병
사리장1병

암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고 설득. 환자는 병원약을
병행하여 복용할지 병원약을 끊어야할지 고민하길래 만약 병원약을 끊으면
빨리 치료되고 병행하면 약품의 화학독 때문에 늦게 치료될 거라고 설명.

며칠 고민하다 병원약 끊고 탕약과 난담반캡슐만 복용 후 병원에서 검사하니
전립선염증 수치 사라짐. 항생제 부작용 증상 모두 사라짐.

4) 전립선암 81세

2021.11.4. 이OO O형 전립선암. 혈압. 2021년 10월 중순 전립선암 진단
서울아산병원 전립선암 3기. 그동안 전립선비대증약, 혈압약 꾸준히 먹고
있었다. 관상동맥 시술하고 약물치료했다. 맹장수술, 정관수술 받은 적 있다.
당뇨 살짝 있는편.



탕1차. 난담반캡슐 2병 /20211108 사리장 1병, 자죽염 3병 /20211202
탕2차

20220207 난담반캡슐 1병 /20220510 난담반캡슐 10병, 전립선암수치
정상

5) 갑상선암 34세 여 (수술 안하고 병원치료 안함)

20120326 혀OO 34세 A형 여자.

갑상선암 8mm 부산대병원 대림성모병원 진단.

탕1차 사리장1 자죽염1 캡슐1병

20120413 사리장1 자죽염1 /20120416 탕2차 캡슐1병 마늘환1

20120504 탕3차 캡슐2병 무엿1 /20120611 탕약4차 무엿1 사리장환1
캡슐1병

20120705 캡슐3병 /20120713 탕5차 /20120804 캡슐3병 /20120827
탕6차

20121016 탕7차 캡슐 2병 /20121122 탕8차 캡슐3병 /20130107 탕9차
캡슐2병 사리장2

20130222 캡슐4병 /20130422 캡슐2병 /20130930 캡슐3병

6) 악성뇌종양 5세

20120105 백OO 5세 O형 여자 악성뇌종양(상의세포종) 5cm 2011년 3
월 진단 수술 항암 5회. 뇌신경때문에 종양을 다 제거하지 못해 의사가 99%
재발한다고 말함. 식사 소량. 탕1차 사리장1 자죽염1 캡슐1

20120220 탕2차 /20120315 탕3차 사리장1 /20120406 탕4차 캡
슐1 /20120430 탕5차 사리장1/ 20120522 탕6차 /20120523 캡슐1
/20120615 탕7차 /20120621 자죽염1

20120706 탕8차 캡슐1 /20120801 탕9차 캡슐1 /20120823 탕10차
/20120917 탕11차, 캡슐1 /20121012 탕12차 사리장1 자죽염1 캡슐1



/20121112 탕13차 /20121203 캡슐1

20121226 감기 열, 감기탕 10봉지 자죽염1, 28일 세브란스 병원 검사 예정 20121231 탕약14차 몸이 통통해지고 성격 부드러워짐. 서울성모병원 -> 신촌세브란스 28일 검사결과 종양 줄어들고 흐려지고 주글쭈글해짐. 마취하고 검사한 후에 부작용으로 열이 나고 좀 안 좋은 것 같다.

20130118 사리장1 /20130125 호두기름1 무엿1 /20130218 탕약15차 자죽염1 캡슐1 20130627 사리장1 /20130819 자죽염1 /20131008 탕약 16차 (병원검사하느라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해독을 위해 한번 더 복용) /20140617 사리장1

7) 악성뇌종양 (41세 남)

100508 강OO 뇌종양 41세 O형 남자 . 악성뇌종양(교모세포종) 2010년 2월 진단 수술함.

크기 약 4cm 정도. 항암 방사선 치료 받음. 식사 못함. 현재 병원에 입원 중. 코로관으로 음식물 흡입. 탕약 1차 사리장1 자죽염1. 말이 어눌하고 오른쪽이 불편. 뇌종양 중에서 가장 악성이라 1년 안에 100프로 재발한다는 병원측 경고 받음.

20100526 탕약2차 주문. 퇴원 후 이제 말도 하고 걷고 화장실도 가고 밥을 반 공기 정도 먹는다. 설사. 음경 밑에 종기 난 것 사리장 빨라 두니 작아졌다.

20100609 난담반캡슐1병 자죽염1 구토증 변비 아직 있다.

20100630 탕약3차, 난담반캡슐1병

20100803 탕약4차 사리장2 자죽염1 변비있어 죽염관장 시켰다. 검사하니 신경절에 남아 있던 암이 많이 없어졌다.

20100831 난담반캡슐 2개, 사리장5병

2010년 12월 21일 6개월만에 탕약 5차 신청 난담반캡슐 2병 사리장 5병 신청



9월경 담낭결석으로 통증 심해 병원 입원하니 의사가 탕약과 난답반 못 먹게 해서 지금껏 못 먹었다고 함. 그동안 사리장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복용했다고 함. 담낭결석은 간의 청혈기능이 떨어지면 불순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담낭에서 결석으로 형성되는 증상이니 오히려 탕약으로 간을 도와주면 담낭결석 증세도 완화되니까 뇌종양 및 담낭결석 치료를 위해 부지런히 탕약과 난답반캡슐을 복용하라고 권하니 다시 탕약 먹겠다고 함.

20110110 탕약5차 난답반캡슐 9병 신청. 탕약은 돈 때문에 못 먹고 난답반캡슐은 더 복용하겠다고 함.

20110314 난답반캡슐2병 /20110705 탕약6차 난답반캡슐 2병.

7개월만에 다시 신청한 것. 1달 전 구안와사 와서 걱정스러워 다시 탕약 캡슐 복용.

뇌는 신장기능이 쇠약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뇌 부분의 수술로는 신장과 뇌의 독성을 해독하지 못해 치료된 것이 아니므로 신장기운을 회복시켜야 뇌종양이 치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수술이나 화학항암제로 암세포가 일시적으로 제거되거나 억제된 것을 치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방치하면 나중에 늦은 다음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뇌종양을 완치시키기 위해 난답반캡슐이라도 열심히 복용하라고 설득. 작년 오른쪽 소뇌 수술 후 오른쪽 어깨 및 견는 것이 불편하다. 소뇌쪽 암덩이는 자라지 않고 있다.

20110725 탕약 7차

8) 교통사고 뇌손상 시신경 손상 (40세 여)

20110927 장OO 40세 B형

여자 교통사고로 머리 다침.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기억을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함. 다리도 다쳐 훨체어 사용. 서울대학교 병원 입원. 죽을 먹고



있다. 탕약1차

20111017 인산한의원 탕약 먹은 후 아주 좋아졌다. 밥 먹고 물 삼키고 걷고 소변줄도 제거했다. 골절은 아주대병원에서 재활치료 준비 중. 왼쪽 시력 안구 신경 이상으로 상이 여러 개 보이는 증상 있음. 탕약 2차 난담반캡슐 2병 /20111125 탕약. 너무 많이 좋아졌다. 눈사시와 독시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왼쪽 눈 바깥 시야 좁은 느낌, 생각하고 말하는 속도는 아직 약간 느리다.

인산한의원 약으로 기적적으로 정신 상태는 일주일만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8군데 골절도 아주대병원 재활치료 1년 예상과 달리 빨리 치료됨. 교통사고로 뇌가 다쳐 단단한 머리뼈 속에서 뇌조직이 부풀어오르고 흘러나온 피나 체액에 주변 뇌신경세포가 잡겨 죽어갈 때 탕약과 난담반캡슐을 먹여서 머리뼈 속에서 뇌부종과 염증반응을 빨리 중단시키면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위급시 콧줄로도 공급하여 체내에서 흡수만 되면 약효는 발휘된다. 뇌신경세포는 죽으면 살릴 수 없으니 뇌신경세포가 하나라도 죽기 전에 신속히 복용시켜야 함.



6 유방암 가이드

유방암 천연치료제 설명서

1) 유방암의 뿌리는 80프로는 폐에서 시작하고 20프로는 간에서 시작한다.

인산선생 유방암 처방은 유방암 항약과 난답반캡슐이다. 여기서 난답반캡슐이 더 중요하다. 유방암의 뿌리는 80프로는 폐에서 시작하고 20프로는 간에서 시작한다. 뿌리인 간이나 폐가 좋아지지 않으면 유방암 부위를 잘라내도, 화학항암제를 투여해도, 방사선으로 태워죽여도 재발하거나 간, 폐, 뼈, 임파로 전이되는 이유이다. 유방의 정상세포가 파괴되어 암으로 돌변하는 것을 막으려면 뿌리인 간, 폐 즉 오장이 좋아져야 한다. 뿌리가 좋아지면, 간, 폐가 건강해지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암세포를 억제, 사멸시키니 완치되고 예방도 된다.

수술하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든 면역계가 강해져야 하고 간, 폐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암종을 잘라내면 해결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화학독성물질(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면 치료된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으로 그 부위를 태워 없애면 암이 나을



거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뿌리인 간, 폐가 좋아져야 암이 완치된다.

유방암환자는 폐 또는 간의 기운이 이미 쇠하여 유방암이 발생하였기에 간, 폐가 취약하니 당연히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조심해야 한다. 유방암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성물질, 화학물질과 스트레스나 과로로 발생한 인체내 유해물질, 노폐물 등이 쌓여 오장의 기능이 중독되거나 저하되어 면역계가 약화되고 세포가 파괴되는 병이다. 노폐물, 유해물질을 해독 배출하고 오장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해주어 면역계 정상화, 생체치유력을 강화시키고 정상세포가 빨리 자라게 도와주면 치료된다. (해독보원: 노폐물 배출,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하여 생체치유력 강화)

2) 유방암 처방

〈유방암 치료〉

노폐물 배출, 면역강화 - 몸속 암유발인자, 세포를 썩게 하는 유해물질을 잘 배출해내고 면역계를 강화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시키고 건강한 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난답반캡슐 - 세포내 염증, 불순물, 노폐물을 뽑아낸다. 인산선생은 난답반캡슐이 죽염의 천배, 만배 높은 약성을 지녔다고 했다. 먹으면 위벽의 노폐물을 뽑아내고 뇌부터 발끝까지 세포에 영향을 주어 나쁜 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기능을 한다. 해독하면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된다. 1단계 염증이 억제되면 2단계 염증이 제거되고 그 후 3단계 새 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피부 아토피 아기환자를 통해 관찰된다. 유방암은 유방의 노폐물이 배출되고 정상 유방세포 재생이 촉진되면 치료된다.

뱃속에서 일어나는 암이나 피부표면에서 관찰되는 피부병의 발병원리, 치료원리, 진행과정은 동일하다.



유해물질 → 중독, 기능 저하 → 세포파괴 → 천연치료물질로 해독, 노폐물 배출 → 면역기능 정상화 → 중독된 오장의 기능이 원활해짐, 암세포 사멸 → 새 세포 재생촉진 → 죽은 상처는 딱정이로 밀려나고 새 세포가 자라나 상처가 회복 또는 정상 대사 기능 회복 또는 암완치.

난담반캡슐 성분 : 소금(죽염), 달걀흰자, 황산동(인체 필수 미네랄, 전세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아기 분유에도 들어가는 성분). 이 세가지 평범한 성분이 전부인데 어떻게 해독보원(노폐물을 배출하고 정상세포 재생촉진하는 힘을 도와줌), 거악생신(나쁜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포 생기게 함)하여 암세포 사멸유도, 염증억제, 관절염, 피부염을 개선하는 결과가 실험으로 증명되고 논문으로 발표되었을까? (제1장 참조)

난담반 먹는 방법 (제1장 참조)

*외용제로 난담반 분말 사용할 때 주의사항 (제1장 참조)

상처에 뿌리면 고통이 심한 경우도 있어 잘 권하지 않지만 환자들이 스스로 실행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원리는 상처로부터 노폐물, 염증, 부패물질을 뽑아내어 새 세포를 재생하는 힘을 촉진시키는 원리다. 유방암으로 괴사된 부위에 뿌리거나 무좀이나 당뇨로 썩어가는 상처, 대상포진 피부염에 뿌리고 바르기도 한다. 물론 먹어서 밀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핵심 치료 원리는 노폐물, 부패물, 유해물질을 배출시키고 새 세포재생을 촉진하는 것이다. 해독하여 기능을 살려주면 회복될 수 있다.

유방암 탕제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생강, 대추, 감초, 대파,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건칠피 (만약 옷을 안 타면, 그리고 수혈받은 적 없을 때만), 백개자,



행인, 하고초, 별갑 등등

혈액형이 O형이면 석고 추가

간으로 전이되었으면 간 처방 시호, 인진, 황련, 자백목 추가

임파선으로 전이되었으면 임파선 처방 추가, 백강점, 산약, 산수유 등

뼈로 전이 되었으면 뼈 처방 추가, 우슬, 강활, 방풍 등

신장 전이는 신장 처방 추가, 석위초 등

붓거나 복수가 차면 석위초, 통초, 호장근, 차전자 등

다른 병원약과의 병행 여부, 수술, 화학항암제, 방사선 병행 여부

생명이 위험한 응급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수술과 합성약품을 써야 한다.

천연치료물질은 수술 전후 의사가 금식시키는 그 며칠간만 중단한다. 그러나 난담반캡슐은 인체 필수미네랄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도 메스껍지만 않다면 먹어도 된다. 다만 빈속에 메스꺼우니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기의 먹는 방법을 활용하여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먹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따라 본인이 해나가면 된다.

간을 보호하고 면역을 정상화하며 오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수술이나 합성약품치료의 성공률을 높여준다. 난담반은 향후 모든 의사가 회복을 돋기 위해 권장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질문: 탕약과 난담반캡슐은 항암 중에 먹어도 되나요? 수술, 방사선 병행 여부? 의사선생님이 아무 것도 못 먹게 해요.

수술, 화학항암, 방사선 중에- 난담반캡슐이나 탕약은 간을 돋고 오장을 돋고 면역기능을 돋고 세포재생 촉진을 돋고 노폐물 배출기능을 돋고 생체 내 모든 정상작동을 돋고 원기를 돋는 천연건강식이므로 병원치료를 더 잘 받기 위해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계속 병행하여 먹어주면 회복 촉진을 돋습니다. 수술상처가 더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며 자가면역문제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며 화학독성물질에 의한 중독과 손상을 감소시켜 간을 보호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전이를 막아 병원치료의 성공률을 올려줍니다. 먹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타목시펜, 폐마라 등 먹어야 할까요?

수술, 화학항암제, 방사선, 항호르몬제 등 모두 의사의 말을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하시는 겁니다. 의사가 항암 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면 본인이 검토하고 정체불명 건강식품 먹지 말라면 본인이 검토하고 타목시펜 먹으라면, 폐마라 먹으라면 본인이 검토하고 유익한지 해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코로나 백신, 화학항암제, 방사선, 항호르몬제 근본 의미는 동일합니다.

타목시펜: 여성호르몬을 방해하여 정상유방세포와 유방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주장: 유방암의 뿌리는 폐에 80%, 간에 20% 근원이 있습니다. 유방에서 암을 발견했다고 유방의 성장을 억제하면 암의 전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전신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주는 일이 우리 몸에, 우리 면역계에 악영향을 미칠지 아닐지 판단하십시오.

3) 공개된 타목시펜 부작용 정리

부작용이란 몸이 나빠져 질환의 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타목시펜으로 발생한 질환 정리가 맞는 표현입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어떤 긍정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을 호도하지요.

타목시펜의 부작용으로 자궁암 발생, 과도한 질 분비물, 질 출혈, 월경통, 시야 변화, 발적, 통증, 열감,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을 포함한 혈전 생성, 오심, 구역감, 월경 불순, 체중 감소 등 – 한의학에서 자궁, 혈액, 안과 문



제, 구역감(위장 벽을 물리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한)은 모두 간이 관련된 간 기능문제입니다. 간이 손상을 받아 기능이 쇠약해질 때 나타나는 병증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간의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기능 쇠약은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은 전신의 청혈작용을 담당하고 소화효소에도 관여하고 자궁에 깨끗한 피를 내려보내야 하는데 청혈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자궁에 턱한 피가 쌓이게 되어 갖가지 자궁, 난소 등 관련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이 병들었다’입니다.

다리 부종, 감정 변화, 성욕 상실, 우울감 (뇌호르몬의 변화), 관절통, 관절염 등은 모두 신장이 손상을 받아 신장기능이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의학에서 뇌호르몬 생성, 조절, 생체 수분 조절, 뼈 관련 질환은 모두 신장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신장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이처럼 기능 문제는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한의학에서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기능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한마디로 ‘신장이 병들었다’입니다.

새로 유방 종괴가 느껴짐, 안면 홍조, 그 외 알려진 각종 부작용 및 수많은 증상은 모두 심장, 폐, 비장 등 오장이 손상을 입어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장이 병들었다’입니다.

간을 보호하고 간에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암치료의 핵심입니다. 환자는 처방받은 화학약품이 완치에 꼭 필요한 약인지, 아니면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약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거나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불안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치료효능은 화학약품만큼 강한 천연치료제가 있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로 간단합니다. ①천연치료제를 병원 화학약품과 같이 복용하거나 ②화학약품대신 천연치료제만 단독 복용할 수 있습니다.

4) 유방암 임파선암 당뇨 관절염 (53세 여)

20091103 박OO 여 53세 O형

유방암 2기 아주대 수술, 임파선 3개 전이. 항암 예정이었으나 난담반캡슐과 탕약 복용으로 항암 안 함. 얼굴 턱관절 통증. 방광염. 당뇨 있음. 탕약, 난담반캡슐 1개월 복용 후 턱관절, 유방암 수술 자리, 오른 팔 통증, 당뇨 수치가 조금 내려가는 중. 6개월 복용 후 당뇨 수치 120 정도, 당뇨약은 끊은 상태. 방광은 아직 조금 안 좋다.

10개월 복용 후 모든 것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5) 유방암 57세, B형, 이OO

20140924 공격성 삼중음성유방암 0.9 미리 수술 항암 4차 예정 중 3차 까지 진행 /삼성의료원 예후가 안 좋은 공격성 삼중음성유방암 /항암, 방사선/ 가슴 불 나고 /열이 많이 난다 /땀 /호르몬제 1년 복용 /갱년기 증상/ 밤에 잠을 잘 못잔다/ 손 얼굴이 붓는다/ 항암 방사선받는중/ /가슴 통증, 관절통증, 기관지 약하다. 과민성대장염 설사 /고혈압약 5년 복용/항암치료 중에 캡슐 복용 시작/죽염은 반찬에 간을 하여 먹는다/ 붓는다.

탕1차, 난담반캡슐 1병

20141024 내원함 난담반캡슐 2병 호도기름1 사리장1 죽염1 가져감/ 설사로 많이 못 먹는다/

20141027 항암 3주 전에 끝났다. 손, 발, 눈이 부어 하루 캡슐 3개만 복용.

20141105 현재 방사선 중 탕약, 캡슐 계속 복용하고 있다. 아직도 몸이 붓는다.

20141203 탕2차 방사선 치료. 소화 안되고 트럼 나오고 식도염 더부룩하다

20141216 난담반캡슐 1병 호도기름2 이제는 설사 안해서 캡슐양을 늘린다.

20141226 양쪽 손이 아직 저리고, 식도염 여전하고, 목 가래 여전히 걸린



느낌, 다리 통증 여전히 심하다.

20141231 탕3차, 감기탕5봉지

20150109 호도기름2, 무엿1

20150110 식도염 증상 여전, 아직도 가슴 아프고 여전히 잠 들기 어렵고, 마른기침, 가래.

20150114 난담반캡슐 2병

20150121 조금 가렵다

20150212 탕4차 감기탕5봉지

20150304 난담반캡슐 2병 감기탕5

20150319 탕5차 아직도 잠을 못자고 힘들다. 아직도 열이 올라온다.

20150410 탕6차

20150506 난담반캡슐 2병 사리장1

20150520 탕7차 호도기름1 죽염1kg

20150609 난담반캡슐 2개 아직도 더부룩, 속이 부글부글.

20150622 탕8차

20150727 탕9차 난담반캡슐 2병 아직도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 갑갑.

20150902 난담반캡슐 1병 도라지엿1 호도기름1

20150907 탕10차

20150909 난담반캡슐 1병

20160329 탕11차

6) 유방암 (침윤성 유관암, 46세 여)

20190501 문OO 46세 여 AB형

유방암 (침윤성 유관암) 1.5cm, 가슴 살짝 통증. 자궁근종 2cm. 왼쪽 아랫배가 쑤시다가 지금은 아랫배 전체가 쑤신다. 등이 아프다. 재발성 류마티스 관절염 추정. 최근 감기, 기침 많이 하고 가래가 많다. 몸이 굉장히 차고 추위를 많이 탄다. 시력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진단 2019. 4. 29. 건대병원 안 좋은 암. 수술. 예전 자궁근종 치료받은 적 있음. 지금 감기약 먹고 있음. 변비. 소화 살짝 안 되고. 안 내려가는 느낌. 잔뇨감이 있음. 요즘에 좀 붓는다.

20190501 1차 탕약 난담반캡슐 2병

20190528 난담반캡슐2병 사리장 1

20190607 2차 탕약 12일부터 항암 4번, 방사선 20번, 1년간 표적추적, 잔기침, 가래

20190614 난담반캡슐 2병, 자죽염 1kg

20190628 난담반캡슐 2병

20190806 난담반캡슐 2병

20190812 난담반캡슐 2병

20190819 탕약 3차 항암때문에 쿡쿡 쑤시고 기운 없다. 나머진 고만고만하다

20190821 자죽염 2kg

20190917 난담반캡슐 2병

20190923 난담반캡슐 2병

5개월간 난담반캡슐 합 16병. 평균 하루 약 4g 난담반캡슐 11알씩 매일 복용.

20191021 탕약 4차 캡슐 6병 미국으로 발송 2019년 8개월간 22병 770g

20200219 난담반캡슐 6병 자죽염 1 미국발송

20200706 난담반캡슐 9병 21병

20210715 난담반캡슐 5병

이 분은 수술과 항암을 하며 동시에 탕약과 난담반캡슐을 병행한 환자 케이스다. 모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족에겐 절절한 현실이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환자인 딸이 한국에 들어와 6개월간 암치료하는 동안 매일 딸의 입원실에



서 탕약과 난담반캡슐 복용을 돌봤다. 항암 중에도 매일 난담반캡슐 11알씩 복용, 환자와 어머니 두 사람의 노력이 만들어낸 유방암 극복 결과이다.

6 난소암 자궁암 가이드

난소암, 난소혹, 난소염, 자궁암
자궁염, 자궁근종 천연치료제 설명서

1) 난소암의 뿌리는 간이다.

인산선생 난소암 처방은 난소암 텅약과 난담반캡슐이다.

여기서 난담반캡슐이 더 중요하다. 난소암의 뿌리는 간이다. 뿌리인 간이 좋아지지 않으면 난소를 잘라내도, 화학항암제를 투여해도, 방사선으로 태워죽여도 재발하거나 간, 복부, 폐, 뼈, 임파로 전이될 수 있다.

자궁암도 간에 배속되어 있어 난소암과 처방이 동일하다. 난소혹, 난소염, 난소암, 자궁염, 자궁근종, 자궁암이 모두 간의 청혈기능이 쇠약해지면 불순물, 노폐물이 자궁과 난소에 쌓여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간이 좋아져야 치료된다. 특히 난소는 간과 직결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기관이다. 다른 부위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여 악성 난소종양이 아닐 때 양성이라고 별 걱정없이 난소혹 제거 수술같은 것을 하다가 순식간에 주위 세포조직이 악성으로 돌변하거나 악화되어 복수가 차며 간으로 전이되어 생명이 위험해진 경우를 종종 본다.

난소와 간의 연결관계를 못보고 난소를 건드림으로써 난소와 직결된 간에



치명적 손상을 입혀 면역계와 간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복수는 인체 수작업 담당을 맡은 신장이 손상을 입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간이 큰 손상을 입으면서 그 여파가 신장까지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도 간이나 신장이 사진상으로는 멀쩡하다. 그러나 복수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신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복수는 다시 차오른다.)

난소암, 자궁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뿌리인 간이 좋아져야 한다. 뿌리가 좋아지면, 간이 건강해지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암세포를 억제, 사멸시키니 완치되고 예방도 된다. 수술하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든 면역계가 강해져야 하고 간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많은 난소암 환자들이 암종을 잘라내면 해결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화학독성물질(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면 치료된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으로 그 부위를 태워 없애면 암이 나을 거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뿌리인 간이 좋아져야 난소암이 완치된다. 여성암 중에서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이 제일 낮은 이유이다.

난소암(자궁암도 마찬가지다)은 간의 기운이 이미 쇠하여 난소암이 발생하였기에 간이 취약하니 당연히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조심해야 한다. 난소암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성물질, 화학물질과 스트레스나 과로로 발생한 인체내 유해물질, 노폐물 등이 쌓여 간과 오장의 기능이 중독되거나 저하되어 면역계가 약화되고 세포가 파괴되는 병이다. 노폐물, 유해물질을 해독 배출하고 오장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해주어 면역계 정상화, 생체치유력을 강화시키고 정상세포가 빨리 자라게 도와주면 치료된다. (해독보원: 노폐물 배출,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하여 생체치유력 강화)

각종 암의 마지막 단계는 뿌리인 오장이 중독되고 쇠약해지는 것이다. 첫 시작이 어느 부위 암이든 상관없다.

초기 자궁암으로 시작해(자궁의 뿌리는 간) 수술이나 화학항암 후에 뇌(뇌의



뿌리는 신장), 또는 뼈(뼈의 뿌리는 신장), 폐나 간으로 전이되면 치료는 힘들어진다. 시간을 지체하여 병독이 너무 깊게 침투한 때문이다.

2) 난소암, 자궁암, 난소혹, 난소염, 자궁염, 자궁근종 치료

노폐물 배출, 면역강화 - 몸속 암유발인자, 세포를 썩게 하는 유해물질을 잘 배출해내고 면역계를 강화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시키고 건강한 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난담반캡슐 - 세포내 염증, 불순물, 노폐물을 뽑아낸다. 먹으면 위벽의 노폐물을 뽑아내고 뇌부터 발끝까지 세포에 영향을 주어 나쁜 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기능을 한다. 해독하면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된다.

난소낭종, 난소암은 난소의 노폐물이 배출되고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되면 치료된다. 자궁암, 자궁근종, 자궁염도 같은 원리로 치료된다. (제1장 난담반복용법 참조)

난담반캡슐 성분 : 소금(죽염), 달걀흰자, 황산동(인체 필수 미네랄, 전세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아기 분유에도 들어가는 성분).

이 세가지 평범한 성분이 전부인데 어떻게 해독보원(노폐물을 배출하고 정상세포 재생촉진하는 힘을 도와줌), 거악생신(나쁜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포 생기게 함)하여 암세포 사멸유도, 염증억제, 관절염, 피부염을 개선하는 결과가 실험으로 증명되고 논문으로 발표되었을까? (제1장 참조)

외용제로 난담반 분말 사용할 때 주의사항

상처에 뿌리면 고통이 심한 경우도 있어 잘 권하지 않지만 환자들이 스스로 실행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원리는 상처로부터 노폐물, 염증, 부패물질을 뽑아내어 새 세포를 재생하는 힘을 촉진시키는 원리다. 암으로 괴사된 부위에 뿌리거나 무좀이나 당뇨로 썩어가는 상처, 대상포진 피부염에 뿌리고 바르기도



한다. 자궁암, 직장암에는 관장기로 주입하기도 한다. (제1장 참조)

3) 난소암, 자궁암, 난소혹, 난소염, 자궁염, 질염, 자궁경부암, 자궁이형성증, 자궁근종 탕제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생강, 대추, 감초, 대파,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건칠피 (만약 옷을 안 타면, 그리고 수혈받은 적 없을 때만), 백개자, 행인, 하고초, 별갑 등등

혈액형이 O형이면 석고 추가

간으로 전이되었으면 간 처방 시호, 인진, 황련, 자백목 추가

임파선으로 전이되었으면 임파선 처방 추가, 백강잠, 산약, 산수유 등

뼈로 전이 되었으면 뼈 처방 추가, 우슬, 강활, 방풍 등

신장 전이는 신장 처방 추가, 석위초 등

붓거나 복수가 차면 석위초, 통초, 호장근, 차전자 등

자연의 법칙은 매우 단순, 간단, 명료하다.

기능을 저하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독성물질의 양 A - 천연치료물질의 양 B = 0 이하가 되면 치료된다.

다른 병원약과의 병행 여부, 수술, 화학항암제, 방사선 병행 여부

코로나 백신, 화학항암제, 방사선, 항호르몬제 근본 의미는 동일하다.

생명이 위험한 응급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수술과 합성약품을 써야 한다. 유황오리처방탕약은 수술 전후 의사가 금식시키는 그 며칠간만 중단한다. 그러나 난답반캡슐은 인체필수미네랄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도 메스껍지만 않다면 먹어도 된다. 다만 빈속에는 메스꺼우니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기의 먹는 방법을 활용하여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먹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따라 본인이 해나가면 된다. 간을 보호하고 면역을 정상화하며 오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수술이나 합성약품치료의 성공률을 높여준다. 난답반은 향후 모든 의사가 회복을 돋기 위해 권장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환자는 수술로 제거하라고 지시받으면 수술 안 하자니 암이 커질까 두렵겠지만,

(1) 수술하면서 병행하여 간을 보호하고 간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복용하여 치료율을 올리기

(2) 수술 안 하면서 천연치료물질만으로 자신의 면역세포를 증강시켜 암세포를 사멸시켜나가기,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화학항암제도 마찬가지이다. 수술하든, 안 하든, 화학항암제를 먹든, 안 먹든 간을 보호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여주는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면 간, 오장을 도와 완치율을 올릴 수 있다.

질문: 수술, 항암 중에 먹어도 되나요? 방사선 중에는? 의사선생님이 아무 것도 못 먹게 해요.

수술, 화학항암, 방사선 중에- 난답반캡슐이나 탕약은 간을 보호하고 위장, 오장을 돋고 면역기능을 돋고 세포재생 촉진을 돋고 노폐물 배출기능을 돋고 생체내 모든 정상작동을 돋고 원기를 돋는 천연건강식이므로 병원치료를 더 잘 받기 위해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계속 병행하여 먹어주면 회복 촉진을 돋습니다. 수술상처가 더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며 자가면역문제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며 화학독성물질에 의한 중독과 손상을 감소시켜 간과 비장을 보호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전이를 막아 병원치료의 성공률을 올려줍니다. 먹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치 가능성은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간과 오장에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암치료의 핵심입니다.

4) 난소암 자궁암 방광암 골반 전이 (36세 여)

090106 김OO 36세 A형 여자

난소암 수술. 자궁, 나팔관, 난소 다 절제함. 항암 4차 하고 검사하니 암세포가 다시 전이 확산하여 재수술 및 항암 거부하고 내원.

08년 9월 배가 아파서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에 가서 왼쪽 난소에 물혹이 있다고 하여 현미경 상에 악성은 아니어서 복강경 제거 수술(1차)을 했는데, 떼어내고 보니 수술 부위 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변하면서 순식간에 암세포가 확산되어 자궁, 방광 모두 다 암세포가 들어붙어서 다시 자궁 등을 모두 들어내는 수술(2차)을 하고 방광캡질도 약간 빼내었다. 순간적으로 암세포가 확산되어 항암 4차 하고 씨티 찍어 09년 1월 4일 확인한 결과 치료한 부위에 다시 암세포가 보이고 골반 근육쪽에도 암 같은 게 새로 생겼다. 병원에서 다시 수술(3차) 권하면서 항암도 더 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09년 1월 6일 인산한의원 찾아 옴.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암세포가 너무 빨리 전이 확산되어 희귀하다고 일산 국립암센터에 보고함. 식사 잘하고 아직 붓는 것 없음. 옷 안탐. 08년 12월 말 검사 시 골반근육에 2센티 크기로 보인다고 했다.

090108 탕약(금은화, 유근피, 포공영, 유황오리) 1차, 사리장 1, 자죽염 1, 죽염난담반캡슐 1 발송

090110 유죽액, 관장기 발송

090112 사리장 1 발송

090116 죽염난담반캡슐 1 발송

090117 사리장 1 발송

090120 탕약 2차

090128 탕약 3차, 사리장 2, 죽염난담반캡슐 2

090211 탕약 3차, 죽염난담반캡슐 2



다리에 붉은 반점이 발등으로 내려온다고 함. 시커멓고 파랗게 발에 반점 생김.

090219 죽염난담반캡슐 2

090214 유죽액 발송

090303 탕약 4차, 사리장 2

090320 탕약 5차

090406 죽염난담반캡슐 2, 관장기, 유죽액 1

090421 죽염난담반캡슐 2, 관장기

090422 탕약 6차

090511 탕약 7차, 죽염난담반캡슐 2

090512. 2월경에 배주위 검은 반점 생기고 다리에서 발쪽으로 붉은 점이 내려가는 것이 보였으나 현재 다 사라지고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다. 현재 엄지발톱 뿌리 노랗게 새로 올라오고 있다. 탕약 먹고 자면 배쪽에 더운 것이 오르는 느낌. 땀이 많이 난다. 얼굴색 좋다고 한다.

090601 죽염난담반캡슐 2

090601 지난번 편두통으로 머리 쿡쿡 찌르고 입술 물집 잡혔는데 괜찮다. 앉았다 일어나면 잡깐 어지럼증 마치 빈혈기 약간 있는 것처럼.

090617 탕약 9차, 죽염난담반캡슐 1

090630 죽염난담반캡슐 2, 유죽액 주문. 명 같은 것이 하나씩 생긴다. 대변 여러 번.

090806 죽염난담반캡슐 2. 명이 다 사라짐.

090810 탕약 10차

090825 죽염난담반캡슐 2

090827 탕약 11차

090912 죽염난담반캡슐 2

090916 탕약12차, 사리장1, 자죽염1

090929 죽염난담반캡슐 2



091001 탕약 13차

091021 탕약 14차 죽염난담반캡슐 2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이지만 병원 검사 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염려되어 병원 검사는 안 함.

8 간암 가이드

간 전이, 간암, 간경화, 간염, 담도암
담낭암 천연치료제 설명서

각종 암의 가장 어려운 단계인 간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간에 좋은 천연물질로
간 보호를 당부하며 모든 암환자들에게 드리는 글

1) 간은 인체의 뿌리인 오장의 하나이다.

인산선생 간암 처방은 간암 향약과 난담반캡슐이다. 여기서 난담반캡슐이 더 중요하다. 간은 인체의 뿌리인 오장의 하나이다. 뿌리 자체가 튼튼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암 부위를 잘라내도, 화학항암제를 투여해도, 방사선으로 태워죽여도 재발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된다. 한의학에서 간, 담낭, 담도는 간에 배속되어 동일한 간처방을 쓴다. 간염, 간경화, 간암, 담도암, 담낭암이 모두 간의 청혈기능이 쇠약해지면 불순물, 노폐물이 쌓여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간이 좋아져야 치료된다.

또한 간은 우리 몸의 혈액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한다. 빈혈, 고혈압, 고지혈증, 임신, 백혈병 모두 간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간에 메여있는 자궁암이나 난소암, 만성백혈병, 급성백혈병, 재생불량성 악성빈혈 등등이 간이 좋아지지 않으면 치료가 안된다.

간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면 간 자체가 좋아져야 한다. 간이 좋아지면,



간이 건강해지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암세포를 억제, 사멸시키니 완치되고 예방도 된다. 수술하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든 면역계가 강해져야 하고 간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많은 간암 환자들이 암종을 잘라내면 해결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화학독성물질(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면 치료된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으로 그 부위를 태워 없애면 암이 나을 거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뿌리인 간 자체가 좋아져야 암이 완치된다. 결국 수십번 계속 색전술, 재발을 반복하는 환자도 있다.

간염보균자나 간경화, 간염환자가 간암 발병율이 높은 이유는 간 자체가 이미 취약하기 때문이고 간염환자가 다른 암이 걸렸을 때 치료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당뇨 등 기저질환자의 암 완치율이 통계적으로 낮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미 독성물질에 취약한 간염환자가 간암으로 진행되었을 때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완치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특히 이들 만성난치성환자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후유증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한 경우가 많다. 치료되고 있던 각종 암환자들이 악화 또는 재발된 경우는 무수히 많다. 멀쩡하던 건강한 사람이 단기간에 급성 말기 암환자가 되기도 한다.

사람의 몸, 우리 면역계는 매우 취약하고 섬세하여 화학물질에 손상되기 쉬운데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튼튼한 타인들과 자신이 동일하다고 착각한다. 특히 암병력자들, 기저질환자들은 살얼음판에 선 것처럼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 백신같은 것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면역취약자, 노쇠약자, 기저질환자들이 먼저 코로나백신을 맞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따라서 간염보균자의 간염바이러스가 활성화되거나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간암환자는 간의 기운이 이미 쇠하여 간암이 발생하였기에 간이 취약하니



당연히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조심해야 한다. 간암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성물질, 화학물질과 스트레스나 과로로 발생한 인체내 유해물질, 노폐물 등이 쌓여 간의 기능이 중독되거나 저하되어 면역계가 약화되고 세포가 파괴되는 병이다.

노폐물, 유해물질을 해독 배출하고 간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해주어 간을 보호하여 면역계 정상화, 생체지유력을 강화시키고 정상세포가 빨리 자라게 도와주면 치료된다. (해독보원: 노폐물 배출,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하여 생체지유력 강화)

2) 각종 암의 마지막 단계는 뿌리인 오장이 중독되고 쇠약해지는 것이다.

첫 시작이 어느 부위 암이든 상관없다. 유방암으로 시작해 (유방의 뿌리는 간, 폐) 수술이나 화학항암 후에 뼈로 전이되든지(뼈의 뿌리는 신장), 간(인체의 뿌리인 오장)으로 전이되면 오장이 다 고갈되어 완치 가능성성이 희박해진다. 신장, 간은 오장 중에서도 가장 깊은 단계이다. 시간을 지체하여 병독이 너무 깊게 침투한 때문이다.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치료 가능성이 높을 때 간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천연 간영양물질을 복용하여 우리 몸의 면역계를 도와줘야 한다. 시간이 가는 만큼 치료는 어려워진다.

3) 간 전이, 간암, 간경화, 간염, 담도암, 담낭암 치료

노폐물 배출, 면역강화 - 몸속 암유발인자, 세포를 썩게 하는 유해물질을 잘 배출해내고 면역계를 강화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시키고 건강한 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난담반캡슐 - 세포내 염증, 불순물, 노폐물을 뽑아낸다. 인산선생은 난담반캡슐이 죽염의 천배, 만배 높은 약성을 지녔다고 했다. 먹으면 위벽의 노폐물을 뽑아내고 뇌부터 발끝까지 세포에 영향을 주어 나쁜 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기능을 한다. 해독하면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된다. 1단계



염증이 억제되면 2단계 염증이 제거되고 그 후 3단계 새 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피부 아토피 아기환자를 통해 관찰된다.

간 전이, 간염, 간경화, 간암은 간의 노폐물이 배출되고 간의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되면 치료된다. 담도암, 담낭암도 마찬가지 원리이다. 뱃속에서 일어나는 암이나 피부표면에서 관찰되는 피부병의 발병원리, 치료원리, 진행과정은 동일하다.

유해물질 → 중독, 기능 저하 → 세포파괴 → 천연치료물질로 해독, 노폐물 배출 → 면역기능 정상화 → 중독된 오장의 기능이 원활해짐, 암세포 사멸 → 새 세포 재생촉진 → 죽은 상처는 딱정이로 밀려나고 새 세포가 자라나 상처가 회복 또는 정상 대사 기능 회복 또는 암완치.

난답반캡슐 성분 : 소금(죽염), 달걀흰자, 황산동(인체 필수 미네랄, 전세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아기 분유에도 들어가는 성분).

이 세가지 평범한 성분이 전부인데 어떻게 해독보원(노폐물을 배출하고 정상세포 재생촉진하는 힘을 도와줌), 거악생신(나쁜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포 생기게 함)하여 암세포 사멸유도, 염증억제, 관절염, 피부염을 개선하는 결과가 실험으로 증명되고 논문으로 발표되었을까? (제1장 참조)

4) 간암, 간염, 담도암, 담낭암 탕제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시호, 인진, 황련, 자백목, 백개자, 행인, 하고초, 별갑 등등

혈액형이 O형이면 석고 추가

당뇨면 당뇨 처방 추가

임파선으로 전이되었으면 임파선 처방 추가, 산약, 산수유 등



뼈로 전이 되었으면 뼈처방 추가, 우슬, 강활, 방풍 등
 신장 전이는 신장 처방 추가, 석위초 등
 봇거나 복수가 차면 석위초, 통초, 호장근, 차전자 등

자연의 법칙은 매우 단순, 간단, 명료하다.

기능을 저하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독성물질의 양 A - 천연치료물질의 양 B = 0 이하가 되면 치료된다.

인체의 모든 기관은 오장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간과 담낭, 담도, 난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담도암, 담낭암, 난소암을 잘라내면 결국 간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요즘 대장용종이다, 혹이다, 자궁근종이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별 생각없이 혹 제거 수술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근본인 오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인가를 심사숙고 판단해야 한다.

난소혹 제거 수술같은 경우 순식간에 주위 세포조직이 악성으로 돌변하거나 악화되어 복수가 차며 간으로 전이되어 생명이 위험해진 경우를 종종 본다. 난소와 간의 연결관계를 못보고 난소를 건드림으로써 난소와 직결된 간에 치명적 손상을 입혀 면역계와 간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담낭제거수술, 난소, 자궁 수술 시 각종 화학약품, 마취제 등등이 간으로, 신장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몸에 작용하는 모든 치료는 득과 실을 계산하며 꼭 필요한지를 냉철히 판단하여 선택해야 한다. 한의학에서 간, 담낭, 담도, 난소, 자궁은 간에 배속되어 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복수는 인체 수작업 담당을 맡은 신장이 손상을 입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간이 큰 손상을 입으면서 그 여파가 신장까지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도 간이나 신장이 사진상으로는 멀쩡하다. 그러나 복수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신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복수는 다시 차오른다.)



다른 병원약과의 병행 여부, 수술, 화학항암제, 방사선 병행 여부

코로나 백신, 화학항암제, 방사선, 항호르몬제 근본 의미는 동일하다.

생명이 위험한 응급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수술과 합성약품을 써야 한다.

유황오리처방탕약은 수술 전후 의사가 금식시키는 그 며칠간만 중단한다.

그러나 난답반캡슐은 인체 필수미네랄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도 메스껍지만 않다면 먹어도 된다. 다만 빈속에 메스꺼우니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기의 먹는 방법을 활용하여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먹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따라 본인이 해나가면 된다. (제1장 참고)

간을 보호하고 면역을 정상화하며 오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수술이나 합성약품치료의 성공률을 높여준다. 난답반은 향후 모든 의사가 회복을 돋기 위해 권장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환자는 수술로 제거하라고 지시받으면 수술 안 하자니 암이 커질까 두렵겠지만,

- (1) 수술하면서 병행하여 간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먹는 방법,
- (2) 수술 안 하면서 천연치료물질만으로 자신의 생체치유력을 증강시켜 암세포를 사멸시켜나가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화학항암제도 마찬가지이다. 수술하든, 안 하든, 화학항암제를 복용하든, 안 하든 생체치유력을 높여주는 좋은 천연치료제를 먹어 간, 오장을 도와주면 완치율을 올릴 수 있다.

질문: 항암 중에 먹어도 되나요? 수술, 방사선 병행 여부? 의사선생님이 아무 것도 못 먹게 해요.

화학항암, 방사선 중에- 난답반캡슐이나 탕약은 간을 돋고 오장을 돋고 면역기능을 돋고 세포재생 촉진을 돋고 노폐물 배출기능을 돋고 생체내 모든 정상작동을 돋고 원기를 돋는 천연건강식이므로 병원치료를 더 잘 받기



위해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계속 병행하여 먹어주면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수술상처가 더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며 자가면역문제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며 화학독성물질에 의한 중독과 손상을 감소시켜 간을 보호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전이를 막아 병원치료의 성공률을 올려줍니다. 먹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치 가능성은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5) 항바이러스제, 비리어드, 타목시펜, 페마라 등 먹어야 할까요?

항바이러스제, 수술, 화학항암제, 방사선, 항호르몬제 등 모두 의사의 말을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하시는 겁니다. 의사가 항암 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면 본인이 검토하고 정체불명 건강식품 먹지 말라면 본인이 검토하고 비리어드 먹으라면 본인이 검토하고 유익한지 해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코로나 백신, 화학항암제, 방사선, 항바이러스제, 항호르몬제 근본 의미는 동일합니다. 인공합성약품의 부작용은 결국 오장과 면역계를 손상시켜 전신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 공개된 비리어드 부작용 정리

부작용이란 몸이 나빠져 질환의 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리어드로 발생한 질환 정리가 맞는 표현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어떤 긍정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을 호도하지요.

간, 담낭 장애, 혈액학적 이상, 안과적 이상, 면역계 장애, 알레르기 반응 (헬관부종 포함),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는 간의 병 – 한의학에서 간, 담낭, 면역계, 혈액, 안과 문제, 피부 알레르기 문제는 모두 간이 관련된 간 기능문제입니다. 간이 손상을 받아 기능이 쇠약해질 때 나타나는 병증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간의 결모습은 그대로지만 기능 쇠약은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은 전신의 청혈작용을 담당하여 온몸에 깨끗한 피를 보내야 하는데 청혈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갖가지 관련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이 병들었다’입니다. 간염을 억제하려다 간암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골다공증, 골감소증, 신장, 갑상선 기능 장애 등은 모두 신장이 손상을 받아 신장기능이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의학에서 뇌호르몬 생성, 조절, 생체 수분 조절, 신장, 요도, 전립선 및 뼈관련 질환은 모두 신장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신장의 결모습은 그대로인데 이처럼 기능 문제는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한의학에서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기능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한마디로 ‘신장이 병들었다’입니다.

위장장애는 비장, 위장이 병든 증상이며 호흡장애는 폐가 병든 증상입니다. 그 외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 및 수많은 증상은 모두 심장, 폐, 비장 등 오장이 손상을 입어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장이 병들었다’입니다.

간을 보호하고 간에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암치료의 핵심입니다. 환자는 처방받은 화학약품이 완치에 꼭 필요한 약인지, 아니면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약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거나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불안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치료효능은 화학약품만큼 강한 천연치료제가 있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로 간단합니다. ①천연치료제를 병원 화학약품과 같이 복용하거나 ②화학약품대신 천연치료제만 단독 복용할 수 있습니다.

7) 김종열 78세 A형 간암 16mm 크기

간암, 비형간염, 간경화, 당뇨 (78세 남) 수술도 방사선도 항암도 안 한 환자

20140105 진단. B형간염, 간경화에서 진행됨. 당뇨약 12년. 40년 전 증풍으로 반신마비. 장출혈 혈변. 소화는 잘된다.

1차 탕약(노나무, 시호, 금은화, 유근피, 포공영, 유황오리) 신청. 죽염난담 반캡슐 1, 사리장 1, 자죽염 1 당일 가져감.



20140204 탕약 2차, 죽염난담반캡슐 2, 사리장 1

20140310 탕약 3차, 죽염난담반캡슐 3, 자죽염 1, 사리장 1. 수술도 항암도 안 함. 의정부성모병원 2014년 1월 처음에 간암덩이 16mm -> 탕약과 난담반캡슐 복용 3개월만에 병원 검사에서 4mm로 줄어든 것 확인.

의정부성모병원 진단 당시 1월에는 의사가 수술하자고 했는데 아들이 반대. 현재는 의사가 “무슨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좋아졌으니 지금 하는 대로 하리”고 하면서 6개월 후에 검사하자고 함.

20140423 탕약 4차, 죽염난담반캡슐 2, 자죽염 1, 사리장 1

20140529 탕약 5차, 죽염난담반캡슐 2, 자죽염 1. 많이 좋아졌다고 함.

2014년 6월 탕약과 난담반캡슐 복용 6개월만에 병원검사에서 간암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 확인.

20140707 탕약 6차, 죽염난담반캡슐 3.

20140811 탕약 7차, 죽염난담반캡슐 2, 자죽염 1.

20140916 탕약 8차, 죽염난담반캡슐 2, 자죽염 1.

보호자의 편지 발췌

“2014년 3월 불과 3개월 유황오리탕약과 난담반캡슐을 복용했는데 병원검사결과 암의 크기가 4mm로 작아졌습니다. 2014년 6월 6개월 뒤 병원검사에서는 암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무덤덤하게 얘기해 주더군요. 깨끗하다고... 그 뒤 세 달 정도 더 탕약과 난담반캡슐을 복용하게 한 뒤 적당한 운동에 신경을 쓰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일년 후 병원검사를 다시 해 보았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우선 아버님의 혈색과 안색이 이제 환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8) 간암 B형간염 당뇨 (57세 남)

20130805 조OO 57세 남 O형 간암 11센티 크기 / 임파선 췌장쪽 전이/ 간염보균자/ 당뇨약 1년째 복용중 /고혈압약 1년째 복용중 / 과음 2007년 알콜성 췌장염 치료/ 부친과 모친 양쪽 다 간암으로 병원 치료 받다가 사망 / 형도 B형간염보균자로 간암 진단받고 병원 치료받다가 사망 / 소화는 되고 /통증 없음 / 농사 / 처음에 서울 중앙대병원 진단 간암 7센티-> 점차 진행되어 서울 삼성병원 11센티로 최종 진단, 임파선 췌장쪽 전이/ 수술도 항암도 색전술도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 치료 대신 천연물질로 치료하기로 선택.

B형간염에서 간암으로 발전한 것이라 간 상태가 쇠약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제를 쓰면 약품독으로 간이 중독되고 약해져 암이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신장이나 다른 장기까지 중독되어 쇠약해질 가능성이 많다. 간 속에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당연히 췌장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쳐 당뇨 상태도 더 나빠질 수 있다. 간에 좋은 천연물질을 복용하여 치료하면 간이 개선되고 면역계가 활발해져 암세포가 억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기로 함.

하루에 죽염난담반캡슐 0.35g짜리 30알씩 복용 (하루 10g 정도)

20130805 탕약(노나무, 시호, 금은화, 유근피, 포공영, 유황오리) 1차 + 죽염난담반캡슐 1병

20130902 탕약 2차 + 죽염난담반캡슐 2병

20130923 죽염난담반캡슐 5병 /20130925 죽염난담반캡슐 1병

20131002 탕약 3차 /20131030 탕약 4차 죽염난담반캡슐 5병

20131204 탕약 5차 죽염난담반캡슐 4병 /20140107 탕약 6차 죽염난담반캡슐 4병

20140210 탕약 7차 죽염난담반캡슐 4병 /20140313 탕약 8차 죽염난담반캡슐 4병



20140414 탕약 9차 / 20140619 탕약 10차 / 20140624 죽염난담반캡슐 5병

20140625 몸이 다 좋아졌다. 농사일로 중노동하느라 잠을 많이 못 잔다.

20140722 탕약 11차, 죽염난담반캡슐 5병.

삼성병원 검사 결과 간암세포 11센티가 다 전멸하고 동전 크기 하나만 남았음. (7월 7일 검사 후 7월 14일 결과 확인)

탕약과 죽염난담반캡슐 먹은 후로 정신 맑고 피로 없고 몸 가쁜해졌다. 가뭄으로 농사 때문에 과로하고 있음. 하루 3~4시간 잔다. 5킬로 빠짐. 죽염난담반캡슐 하루 30개씩 먹었다.

이 환자는 현재 식사도 잘 하고 통증도 없다.

7월 14일 삼성병원 간암 권위자 유OO 박사가 확인 후 암세포 거의 다 괴사 전멸되었다고 하면서 한의원에서 먹는 재료 성분을 알려달라고 함.



9

폐암 가이드

폐암, 폐렴, 폐섬유화, 폐결절, 천식, 늑막염
기관지염, 기관지암 천연치료제 설명서

1) 암으로 손상된 폐의 일부를 잘라내도 나머지 폐가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된다.

인산선생 폐암 처방은 폐암 탕약과 난담반캡슐이다. 여기서 난담반캡슐이 더 중요하다. 폐는 인체의 뿌리인 오장의 하나이다. 암으로 손상된 폐의 일부를 잘라내도 나머지 폐가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된다. 뿌리 자체가 튼튼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암 부위를 잘라내도, 화학항암제를 투여해도, 방사선으로 태워죽여도 재발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된다.

한의학에서 기관지는 폐에 배속되어 동일한 폐처방을 쓴다. 폐암, 폐렴, 폐섬유화, 폐결절, 천식, 늑막염, 기관지염, 기관지암이 모두 폐의 기운이 쇠약해지면 불순물, 노폐물이 쌓여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폐가 좋아져야 치료된다.

폐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면 폐 자체가 건강해져야 한다. 폐가 건강해지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암세포를 억제, 사멸시키니 완치되고 예방도 된다.



수술하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든 면역계가 강해져야 하고 오장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많은 폐암 환자들이 암종을 잘라내면 해결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화학독성물질(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면 치료된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으로 그 부위를 태워 없애면 암이 나을 거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뿌리인 폐 자체가 좋아져야 암이 완치된다.

작고 사소한 증상일 때 오장을 튼튼하게 하여 면역계를 강화시켜 면역계가 스스로의 힘으로 치료하도록 도와주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계속 인공합성약품, 유해물질, 노폐물 등이 쌓이게 하여 폐의 기운을 고갈시키면 점점 큰 병으로 발전하여 결국 암이 된다.

폐는 한의학에서 기운을 관장하는 곳이다. 과로하여 기운이 없어지면 목소리가 쉰다. 기운을 축적시키기가 암세포를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간암보다 폐암 성공률이 더 낮다.

각종 폐질환에는 옛날부터 원기 보충, 보양을 중시했다. 그래서 오래 병석에 누워있던 노쇠약자, 각종 암환자, 고령 환자는 병명이 무엇이든 간에 마지막에는 폐렴이 오고 회복이 어려워진다. 기운이 쇠잔해졌기 때문에 폐세포가 상하는 것이다.

이 때 폐렴이라는 현상은 하나의 병명이라기보다 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노쇠약자에게는 폐렴이란 이미 전신 생명력이 소진하여 폐기운이 고갈된 상태, 즉 폐가 상하기 시작했다는 표시라서 장기 고령환자 폐렴은 약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백혈병 등 약품치료를 오래 받아 기운이 쇠잔한 중환자에게 폐렴, 폐곰팡이균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생명력이 왕성한 어린이의 폐렴과 고령자 노환 폐렴은 폐의 염증이라는 병명은 같으나 의미와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생명력이 충만한 어린 환자는 조금만 폐치료영양물질을 보충해주면 간단히 나을 수 있는데 노쇠약자는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한의학의 자연면역 치료원리를 몰라서 치료가 간단한 어



린 환자에게 그 소소한 폐치료영양물질을 보충해주지 않아 시간을 놓치고 생고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폐렴에는 난담반캡슐을 찍어 먹이면서 국산 호도살을 밥에 세 번 쪘서 법제 후 기름을 내어 먹이는 방법이 있다.)

천식, 폐섬유화 등 기저질환을 오래 앓다가 폐암 진단을 받으면 폐기운이 고갈되어 폐자체가 이미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간염, 당뇨 등 기저질환자의 암 완치율이 통계적으로 낮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체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폐암환자와 달리 이미 다른 암이나 질병으로 화학약품치료를 많이 받아 쇠약해져 있는 환자가 폐암으로 진행되었을 때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완치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폐암환자는 폐의 기운이 이미 쇠하여 폐암이 발생하였기에 간과 폐가 모두 취약하니 당연히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조심해야 한다. 폐암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성물질, 화학물질과 스트레스나 과로로 발생한 인체내 유해물질, 노폐물 등이 쌓여 폐의 기능이 중독되거나 저하되어 면역계가 약화되고 폐세포가 파괴되는 병이다. 노폐물, 유해물질을 해독 배출하고 폐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해주어 폐기운을 충전시키며 면역계 정상화, 생체치유력을 강화시키고 정상세포가 빨리 자라게 도와주면 치료된다. (해독보원: 노폐물 배출,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하여 생체치유력 강화)

특히 폐는 인체에서 외부 독의 피해를 가장 파괴적으로 받는다. 먹는 독보다 호흡으로 들어오는 독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 공기, 옷, 이불, 화학섬유, 새 가구, 새 기계, 인공향, 살균 소독제는 모두 석유화학제품이라 유해한 화학물질이 무방비상태의 코로, 폐로 들어간다. 호흡은 간이라는 인체해독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2) 폐암, 폐렴, 폐섬유화, 폐결절, 폐결핵, 천식, 늑막염, 기관지염, 기관지암 치료

노폐물 배출, 면역강화 - 몸속 암유발인자, 세포를 썩게 하는 유해물질을 잘 배출해내고 면역계를 강화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시키



고 건강한 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난담반캡슐 – 세포내 염증, 불순물, 노폐물을 뽑아낸다. 인산선생은 난담반캡슐이 죽염의 천배, 만배 높은 약성을 지녔다고 했다. 먹으면 위벽의 노폐물을 뽑아내고 뇌부터 발끝까지 세포에 영향을 주어 나쁜 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기능을 한다. 해독하면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된다. 1단계 염증이 억제되면 2단계 염증이 제거되고 그 후 3단계 새 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피부 아토피 아기환자를 통해 관찰된다.

폐암, 폐렴, 폐섬유화, 폐결절, 폐결핵, 천식, 각종 폐질환, 늑막염, 기관지염, 기관지암은 폐, 늑막, 기관지세포의 노폐물이 배출되고 폐기운이 보충되고 각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되면 치료된다. 뱃속에서 일어나는 암이나 피부표면에서 관찰되는 피부병의 발병원리, 치료원리, 진행과정은 동일하다.

유해물질 → 중독, 기능 저하 → 세포파괴 → 천연치료물질로 해독, 노폐물 배출 → 면역기능 정상화 → 중독된 오장의 기능이 원활해짐, 암세포 사멸 → 새 세포 재생촉진 → 죽은 상처는 딱정이로 밀려나고 새 세포가 자라나 상처가 회복 또는 정상 대사 기능 회복 또는 암완치.

난담반캡슐 성분 : 소금(죽염), 달걀흰자, 황산동(인체 필수 미네랄, 전세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아기 분유에도 들어가는 성분).

이 세가지 평범한 성분이 전부인데 어떻게 해독보원(노폐물을 배출하고 정상세포 재생촉진하는 힘을 도와줌), 거악생신(나쁜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포 생기게 함)하여 암세포 사멸유도, 염증억제, 관절염, 피부염을 개선하는 결과가 실험으로 증명되고 논문으로 발표되었을까? (제1장 참고)

폐암, 폐렴, 폐섬유화, 폐결절, 폐결핵, 천식, 늑막염, 기관지염, 기관지암
탕제: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생강, 대추, 감초, 대파, 금은화, 포공



영, 유근피, 건칠피 (만약 옷을 안 타면, 그리고 수혈받은 적 없을 때만), 과루인, 석룡자 등등

혈액형이 O형이면 석고 추가

간으로 전이되었으면 간 처방 시호, 인진, 황련, 자백목 추가

당뇨면 당뇨 처방 추가

임파선으로 전이되었으면 임파선 처방 추가, 산약, 산수유 등

뼈로 전이 되었으면 뼈처방 추가, 우슬, 강활, 방풍 등

신장 전이는 신장 처방 추가, 석위초 등

붓거나 흉수, 복수가 차면 석위초, 호장근, 통초, 차전자 등

자연의 법칙은 매우 단순, 간단, 명료하다.

기능을 저하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독성물질의 양 A - 천연치료물질의 양 B = 0 이하가 되면 치료된다.

다른 병원약과의 병행 여부, 수술, 화학항암제, 방사선 병행 여부

코로나 백신, 화학항암제, 방사선, 항호르몬제 근본 의미는 동일하다.

생명이 위험한 응급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수술과 합성약품을 써야 한다. 유황오리처방탕약은 수술 전후 의사가 금식시키는 그 며칠간만 중단한다. 그러나 난담반캡슐은 인체필수미네랄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도 메스껍지 만 않다면 먹어도 된다. 다만 빈속에 메스꺼우니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기의 먹는 방법을 활용하여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먹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따라 본인이 해나가면 된다. (제1장 참고)

간을 보호하고 면역을 정상화하며 오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수술이나 합성약품치료의 성공률을 높여준다. 난담반은 향후 모든 의사가 회복을 돋기 위해 권장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환자는 수술로 제거하라고 지시받으



면 수술 안 하자니 암이 커질까 두렵겠지만,

(1) 수술하면서 병행하여 간을 보호하고 폐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복용하여 치료율을 올리기

(2) 수술 안 하면서 천연치료물질만으로 자신의 면역세포를 증강시켜 암세포를 사멸시켜나가기,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화학항암제도 마찬가지이다. 수술하든, 안 하든, 화학항암제를 먹든, 안 먹든 간을 보호하고 생체치유력을 높여주는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여 폐를 도와주면 완치율을 올릴 수 있다.

질문: 수술, 항암 중에 먹어도 되나요? 방사선 중에는? 의사선생님이 아무 것도 못 먹게 해요.

수술, 화학항암, 방사선 중에 - 난답반캡슐이나 탕약은 간을 보호하고 위장, 오장을 돋고 면역기능을 돋고 세포재생 촉진을 돋고 노폐물 배출기능을 돋고 생체내 모든 정상작동을 돋고 원기를 돋는 천연건강식이므로 병원치료를 더 잘 받기 위해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계속 병행하여 먹어주면 회복 촉진을 돋습니다. 수술상처가 더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며 자가면역문제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며 화학독성물질에 의한 중독과 손상을 감소시켜 간과 비장을 보호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전이를 막아 병원치료의 성공률을 올려줍니다. 먹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간과 폐에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암치료의 핵심입니다.

3) 폐암 재발, 62세 O형 여 화학항암 안 하고 병원 치료 안 받은 환자

100408 임OO 62세 O형 여

폐암 2003년 6월 초기로 진단받고 수술함. 6년 후 2009년 7월 재발. 재발한 부위가 수술이 어려운 부위라서 아산병원에서 항암 권하지만 항암 거부.



병원 치료 안받음. 피곤하다. 소화는 잘된다.

1차 탕약, 사리장 1, 자죽염 1, 난담반캡슐1, 무엿1 당일 가져감

100430 사리장 1, 자죽염 1 /100504 난담반캡슐 1 /100512 호두기름 1

100513 탕약 2차, 감기탕 10봉지

20100610 탕약 3차

20100709 탕약 4차

2009년 재발 진단 이후 항암 등 병원치료를 한번도 안했다. 서울 아산병원 5월 20일 검사, 6월 3일 결과 크기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00814 난담반캡슐 1

20100816 탕약 5차, 난담반캡슐 1

20110304 탕약 6차, 난담반캡슐 1

20111031 탕약 7차. 아산병원 검사 크기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21101 탕약 8차, 난담반캡슐1

20130107 탕약 9차, 난담반캡슐1, 무엿1

20130228 무엿 2

20130314 탕약 10차, 난담반캡슐 1

20140714 무엿 1

20170315 7년째 잘 지낸다. 소개해주기 위해 다른 암환자를 데리고 인산한의원에 직접 방문.

4) 대장암 수술 후 폐전이 화학항암 안 하고 병원 치료 안 받은 환자

20121231 조OO 55세 남 O형 교수

대장암 2년전 수술/ 현재 폐전이 삼성병원 항암예정 취소/ 골프 전공/ 1년 전 임플란트 /어릴 때부터 기관지 장 약하고 설사



탕1차 캡슐1병 사리장2 자죽염1

20130102 캡슐3병 /20130114 캡슐5병 사리장1 /20130121 탕2차 자죽염1

20130131 캡슐 10병 사리장 1병 /20130201 탕3차 /20130219 탕4차
사리장1

20130318 탕5차 병원 검사 결과 폐의 암부위가 희미해졌다.

20130410 탕6차 /20130509 탕7차 캡슐5병 자죽염1 /20130529 탕8차

20130618 탕9차 캡슐5병 /설사 줄었다. 혓바닥 갈라지고 목 쪘한 느낌과
허리 무릎 통증 그대로 /20130711 탕10차 가끔 설사 /허리 다리 무릎 통증
그대로. 얼굴빛 여전히 안 좋다

20130731 탕11차 캡슐 5병 /20130820 탕12차 양쪽팔 두드러기 약간,
컨디션 좋다

20130902 가슴에 붉은 반점 /무릎 허리 통증/ 무른변 설사는 안한다 목
이 쪓한 느낌 그대로

20130902 탕13차 캡슐10병 /20131004 탕14차 /20131028 탕15차 캡
술10병 /20131118 탕16차

20131210 탕17차 /20140109 탕18차 캡슐10병 /20140325 탕19차

5) 대장암 폐암 뼈암(경추암) (57세 남)

2005년 3월 9일 전병만 57세 남 O형 대장암, 폐암, 뼈암(경추암)

탕약 2개월치 + 죽염난담반캡슐

2005년 5월 탕약 2개월치 + 죽염난담반캡슐

2005년 8월 탕약 2개월치 + 죽염난담반캡슐

2005년 10월 통증이 사라져 진통제 중단

2005년 11월 탕약과 죽염난담반캡슐 복용한지 9개월만에 병원 검사 결과
완치 판정받고 현재 정상.

병력



2003년 대장암이 폐암으로 전이 수술(당시 배뇨 문제로 검사하니 방광은 이상 없으나 신경 눌러 방광 일부 약간 절제) → 2004년 9월 척추로 전이 항암치료 6회. 통증 극심

경추암, 9번 척추 암균이 파먹어서 몰타르를 채워 넣었는데 다시 빠져서 찌그러져 갈비신경 눌러 통증 심함. 진통제 복용 중. 얼굴이 겸게 변색

화학항암치료를 계속해도 종양은 줄지 않고 몸상태만 극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병원의사에게 아무 소용 없는 병원치료를 그만 받겠다고 “선생님, 이대로 죽겠습니다.”하면서 병원문을 나섰다. 수혈과 진통제로 연명하며 죽기만을 기다리던 중 부인이 마지막 소원이니 한번만 인산한의원 탕약을 먹어보자고 애원하여 마지못해 2005년 3월 9일 내원. 의사와 지인들이 한약 치료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대하여 온갖 불안과 갈등에 시달리며 유황오리탕 약과 죽염난담반캡슐, 사리장, 죽염 복용

수많은 초기암환자가 진단받는 순간은 완치율이 높은데 단순히 외과적으로 암세포를 잘라내거나 긁어내고 독성물질로 암세포를 죽이는 화학항암제 치료만 받다가 마취제, 약품들로 인해 면역계가 손상되어 세포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전이나 재발이나 다른 후유증이 오는 것을 방지해버린다. 항암 중이나 후에 또는 수술 전이나 후에도 유황오리탕약과 죽염난담반캡슐을 복용해주면 병원치료를 돋고 손상된 부위를 더 빨리 아물게 하고 암세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고 얼마든지 세포상태를 개선하여 재발, 전이를 예방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학항암 중에 병행하면 오히려 치료를 돋는 천연치료물질을 복용 못하게 막아버려 많은 환자들이 완치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안타깝다.

10 위암 췌장암 대장암 직장암 식도암 복막암 크론병 가이드

후두암, 위염, 위궤양, 식도염, 십이지장, 소장 천연치료제 설명서

1) 위암의 뿌리는 오장의 하나인 비장이다.

인산선생 위암 처방은 위암 탕약과 난답반캡슐이다. 여기서 난답반캡슐이 더 중요하다. 위암의 뿌리는 오장의 하나인 비장이다. 뿌리인 비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위장을 잘라내도, 화학항암제를 투여해도, 방사선으로 태워죽여도 재발하거나 간, 복부, 폐, 뼈, 임파로 전이되는 이유이다.

위장의 정상세포가 파괴되어 암으로 돌변하는 것을 막으려면 뿌리인 비장과 간, 오장이 좋아져야 한다. 뿌리가 좋아지면, 비장, 간이 건강해지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암세포를 억제, 사멸시키니 완치되고 예방도 된다.

수술하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든 면역계가 강해져야 하고 간, 비장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많은 위암 환자들이 암종을 잘라내면 해결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화학독성물질(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면 치료된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으로 그 부위를 태워 없애면 암이 나을



거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뿌리인 비장, 간이 좋아져야 암이 완치된다.

한의학에서 위장, 식도, 체장, 대장, 후두, 직장, 십이지장 등 소화기관은 모두 비위장에 배속되어 있어 같은 비위장 처방을 쓴다. 또한 궤양이나 염증이나 암이나 세포가 파괴되는 원리는 동일하여 위궤양이나 위암은 위장을 좋게 하는 같은 비위장처방을 쓴다.

위암환자는 비장의 기운이 이미 쇠하여 위암이 발생하였기에 간, 비장이 취약하니 당연히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조심해야 한다. 위암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성물질, 화학물질과 스트레스나 과로로 발생한 인체내 유해물질, 노폐물 등이 쌓여 중독되거나 저하되어 면역계가 약화되고 세포가 파괴되는 병이다. 노폐물, 유해물질을 해독 배출하고 오장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해주어 면역계 정상화, 생체치유력을 강화시키고 정상세포가 빨리 자라게 도와주면 치료된다. (해독보원: 노폐물 배출, 천연치료물질을 보충하여 생체치유력 강화)

〈위암, 체장암, 대장암, 식도암, 직장암, 크론병, 복막암, 후두암, 위염, 위궤양, 식도염, 십이지장, 소장 치료〉

노폐물 배출, 면역강화 - 몸속 암유발인자, 세포를 썩게 하는 유해물질을 잘 배출해내고 면역계를 강화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시키고 건강한 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난답반캡슐 - 세포내 염증, 불순물, 노폐물을 뽑아낸다. 인산선생은 난답반캡슐이 죽염의 천배, 만배 높은 약성을 지녔다고 했다. 먹으면 위벽의 노폐물을 뽑아내고 뇌부터 발끝까지 세포에 영향을 주어 나쁜 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기능을 한다. 해독하면 정상세포 재생이 촉진된다. 1단계 염증이



역제되면 2단계 염증이 제거되고 그 후 3단계 새 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피부 아토피 아기환자를 통해 관찰된다. 위암은 위장의 노폐물이 배출되고 정상 위장세포 재생이 촉진되면 치료된다.

난담반캡슐 성분 : 소금(죽염), 달걀흰자, 황산동(인체 필수 미네랄, 전세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아기 분유에도 들어가는 성분).

이 세가지 평범한 성분이 전부인데 어떻게 해독보원(노폐물을 배출하고 정상세포 재생촉진하는 힘을 도와줌), 거악생신(나쁜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포 생기게 함)하여 암세포 사멸유도, 염증억제, 관절염, 피부염을 개선하는 결과가 실험으로 증명되고 논문으로 발표되었을까? (제1장 참조)

위암, 췌장암, 대장암, 식도암, 직장암, 후두암, 위염, 위궤양, 식도염, 십이지장, 소장 탕제 :

유황먹인 오리, 다슬기, 밭마늘, 생강, 대추, 감초, 대파,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건칠피 (위벽의 상처가 크지 않을 때, 만약 옷을 안 타면, 그리고 수혈받은 적 없을 때만), 백개자, 행인, 하고초, 별갑 등등

혈액형이 O형이면 석고 추가

간으로 전이되었으면 간 쳐방 시호, 인진, 황련, 자백목 추가

임파선으로 전이되었으면 임파선 쳐방 추가, 산약, 산수유 등

뼈로 전이 되었으면 뼈 쳐방 추가, 우슬, 강활, 방풍 등

신장 전이는 신장 쳐방 추가, 석위초 등

붓거나 복수가 차면 석위초, 통초, 호장근, 차전자 등

질문 : 다른 병원약과의 병행 여부, 수술, 화학항암제, 방사선 병행 여부

코로나 백신, 화학항암제, 방사선, 항호르몬제 근본 의미는 동일하다. 생명



이 위험한 응급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수술과 합성약품을 써야 한다. 유황오리처방탕약은 수술 전후 의사가 금식시키는 그 며칠간만 중단한다. 그러나 난답반캡슐은 인체필수미네랄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도 메스껍지만 않다면 먹어도 된다. 다만 빈속에 메스꺼우니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기의 먹는 방법을 활용하여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먹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따라 본인이 해나가면 된다. (제1장 참고)

간을 보호하고 면역을 정상화하며 오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수술이나 합성약품치료의 성공률을 높여준다. 난답반은 향후 모든 의사가 회복을 돋기 위해 권장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환자는 수술로 제거하라고 지시받으면 수술 안 하자니 암이 커질까 두렵겠지만,

(1) 수술하면서 병행하여 간에 좋은 천연치료물질을 복용하여 간을 보호하는 방법,

(2) 수술 안 하면서 천연치료물질만으로 자신의 면역세포를 증강시켜 암세포를 사멸시켜나가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화학항암제도 마찬가지이다. 수술하든, 안 하든, 화학항암제를 먹든, 안 먹든 간을 보호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여주는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면 간, 오장을 도와 병원치료하더라도 성공률을 올릴 수 있다.

질문: 항암 중에 먹어도 되나요? 수술, 방사선 병행 여부? 의사선생님이 아무 것도 못 먹게 해요.

수술, 화학항암, 방사선 중에 - 난답반캡슐이나 탕약은 간을 보호하고 위장, 오장을 돋고 면역기능을 돋고 세포재생 촉진을 돋고 노폐물 배출기능을 돋고 생체내 모든 정상작동을 돋고 원기를 돋는 천연건강식이므로 병원치료를 더 잘 받기 위해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계속 병행하여 먹어주면 회복 촉



진을 돋습니다. 수술상처가 더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며 자가면역문제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며 화학독성물질에 의한 중독과 손상을 감소시켜 간과 비장을 보호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전이를 막아 병원치료의 성공률을 올려줍니다. 먹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간과 오장에 좋은 천연치료제를 복용하여 생체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암치료의 핵심입니다.

2) 위암 2기~3기 (39세 여) 수술도 방사선도 항암도 안함

090423 윤OO 여자 39세 O형 위암. 수술도 항암도 하지 않고 내원.

서울 성모병원 위암 2기에서 3기 사이. 자궁근종 2002년 신우신염 2주 정도 양약 치료받았다. 오른쪽 신장 부어 있어 헐거워져 있다.

탕약 1차, 난담반캡슐 1, 사리장 4, 자죽염 1

090511 탕약 2차, 난담반캡슐 1 /090525 난담반캡슐 2 /090624 탕약 3 차, 난담반캡슐 1

090711 난담반캡슐 2 /090721 탕약 4차 /090727난담반캡슐 2, 자죽염 3kg /090824 탕약 5차, 난담반캡슐 2 내시경 검사 악화된 것 없다. 이전에는 병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병원에서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

090925 난담반캡슐 2 /090926 탕약 6차 /091021 난담반캡슐 2.

병원 검사하니 암세포 조금 줄었다고 함.

091102 탕약 7차 /091109 난담반캡슐 2 /091214 탕약 8차, 난담반캡슐 2 /100107 난담반캡슐 3 /100112 탕약 9차 /100204 난담반캡슐 3, 자죽염 2 /100208 탕약 10차

100304 탕약 11차, 난담반캡슐 4 /100405 탕약 12차, 난담반캡슐 3



100510 탕약 13차, 자죽염 2, 난담반캡슐 3 /20100616 탕약 14차, 난담반캡슐 3, 사리장 2

20100715 난담반캡슐 3 /20100720 탕약 15차 /20100907 탕약 16차,
난담반캡슐 3

몸이 좋아져 정상 생활하고 직장 다시 나감.

3) 췌장암, 위암, 비장, 복막 전이, 65세 남

2021.8.23. 강OO 췌장암, 위암, 비장, 복막 전이, 65세 남 B형

30년 통풍약 복용. 혈압약 5년 복용. 갑상선저하증 약 복용 중.

20210824 탕1차, 난담반캡슐1 /20211012 탕2차 난담반캡슐1
/20211028 난담반캡슐1 /20211101 난담반캡슐1

20211111 탕3차 난담반캡슐1 /20211124 난담반캡슐2 /20211206 탕4
차 /20211227 탕5차, 난담반캡슐3

20220117 탕6차, 난담반캡슐5 /20220208 탕7차, 난담반캡슐5
/20220222 탕8차

20220310 탕9차, 난담반캡슐5 /20220324 탕10차 /20220407 난담반
캡슐5 /20220411 탕11차 /20220425 탕12차, /20220510 난담반캡슐5

4) 복막암 60세 O형 남자 091218 서OO

아산병원 진단. 당뇨 10년째 복용 중.

2006년 담석으로 담낭 제거. 11일 항암 1회 했음.

탕1차, 자죽염1 난담반캡슐1 /091230 사리장1, 캡슐1 /100119 난담반캡슐
1, 사리장1

100125 탕 2차.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피검사 정상. /100201 난담반캡슐
2, 사리장1 /100218 난담반캡슐2



100302 탕3차 자죽염1 난담반캡슐1 /100401 캡슐2 /100405 탕4차, 사리장1 /100405 많이 좋아졌다 /100526 탕5차 /20100702 탕6차, 사리장1 /20100805 탕7차 /20100809 사리장1
 20100908 탕8차, 사리장1 /20101012 탕9차, 사리장1 /20101025 난담반캡슐2 /20101123 사리장2
 20101204 난담반캡슐2 /20110224 난담반캡슐2 /20110405 사리장2 /20110608 캡슐2 /20110614 사리장1 /20111020 난담반캡슐2

5) 크론병 난치항문농양 19세 남 모든 양약치료 중단

20161124 윤OO 19세 B형 남자 대장염증 항문지루로 발병 2016년 6월 크론병. 항문농양치료. 항문옆 구멍 뚫어 배농시켰다. 체중 감소. 항생제 먹다가 끊고. 상담시 난담반캡슐과 유황오리탕약으로 염증을 시급히 잡아야 함을 강조

1차 유황오리탕약 난담반캡슐2 /20161210 염증이 안 나온다 /20161214 난담반캡슐2 20161219 난담반캡슐2 /20161226 난담반캡슐6 /20170102 유황오리탕약 2차
 20170110 난담반캡슐1 /20170216 난담반캡슐4 /20170523 난담반캡슐3
 20170731 난담반캡슐2

보호자의 편지 발췌

〈처방 전 상태〉

- 하루 3장 이상의 패드(생리대)가 염증 배농으로 엉망진창 상태
- 배농 구멍 상처 통증으로 상시 구멍 뚫린 방석 이용
- 방안 구석 구석, 이불, 옷가지 역한 배농 냄새 도배
- 좌욕 후 심한 비린내로 세제 이용 매회 목욕탕, 좌욕기 청소
- 매끼 식사 후 항생제용 알약 6개 복용 (무척 먹기 힘들어함)



항생제 복용은 더 이상 악화만 안되는 상태로 호전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처방 후 상태〉

- 11월 28일 처음 난담반캡슐 복용하고 30일 유황오리탕약 시작
- 3일 정도 지나 아이가 몸이 좋아진 것 같아 솔직히 두렵기도 했지만 병원약을 끊기로 감행.
- 12월 10일 강한 난담반캡슐 시작했고 이때부터 염증 농이 현저히 줄어듬
- 12월 14일 하루 3장 이상 사용하던 패드를 하루 1장만으로 종일 사용
- 컨디션도 매우 좋아지고 2주 전부터 운동(헬스)도 시작
- 무엇보다 병원 약을 안 먹어도 악화가 안 되고 오히려 호전되니 신기할 따름.

6) 민OO 57세 B형 남 직장암 2기 혈압약 복용(20181015)

탕약1차 난담반캡슐1병 사리장1

약간의 혈변이 보여서 김도하 내과 내원. 혈변 이외의 증상은 트림이 많이 나왔음. 울산 남구 삼산 김도하 내과 직장암 진단. 울산대학교 병원 항암 방사선 25회. 손끝 발끝이 새까맣게 됐다. 20181002 직장암 수술 10~15cm 절제. 4주 후 항암 (2박3일 총 8회 목이 많이 가라앉는다.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10kg 빠짐)

20181017 난담반캡슐 1병. 혈압약 끊음. /20181025 난담반캡슐3병 자죽염1킬로 1개

캡슐은 보호자(부인)가 드셔도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되어 너무 좋다고 함

20181031 탕2차 난담반캡슐3병 발 뒤꿈치 아프다. /20181221 탕3차 난담반캡슐3병 /20190116 탕4차

20190212 탕5차 난담반캡슐3병

20190313 탕6차 난담반캡슐3병 자죽염1kg 머리 밑이 발그스럼하다가 조금 가라앉았다.



20190415 탕7차 /20190422 자죽염2, 사리장1 /20190507 탕7차 난
담반캡슐 5병. 두피에 뭐가 난다

20190604 탕8차 난담반캡슐3 자죽염1kg /20190710 탕9차 난담반캡
술3병

20190820 탕10차 난담반캡슐3병 자죽염1kg

20190930 탕11차 난담반캡슐3병 머리 밑에 뭐가 나서 가렵다

20191101난담반 캡슐4병 /20191112 자죽염2kg /20191216 탕12차
캡슐4병

20200114 탕13차 /20200224 탕14차 난담반캡슐3병 /20200416 난
담반캡슐5병 자죽염1kg

20200501 탕15차 난담반캡슐3병 /20200612 탕16차 난담반캡슐
4병 /20200806 탕17차 난담반캡슐5병 20201116 난담반캡슐5병
/20201207 탕18차 /20210118 탕19차 난담반캡슐7병

20210323 난담반캡슐6병 자죽염1kg /20210414 탕20차 난담반캡슐3
병 /20210701 난담반캡슐6병

20210910 탕21차 난담반캡슐8병 자죽염1kg /20211110 캡난담반술
10병 /20220103 탕22차 난담반캡슐5병

20220307 난담반캡슐10병 /20220513 탕23차



11

코로나 가이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코로나 후유증 치료 및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후유증 천연치료제 설명서

1) 세계 최초 미국에서 한국 천연치료물질 난담반캡슐로 코로나 완치한 환자

(2020년 4월 20일)

2020년 4월 당시 신종 독감의 일종인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매우 컸다. 실제로 초창기에 중국, 미국, 유럽에서 많이 사망했다. (면역계 문제, 사이토카인 폭풍, 대처방법 문제)

미국 뉴저지 멜라웨어 남자 코로나 환자

2020년 4월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때라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이 격리된 상태. 간호사가 매일 산소포화도만 검사. 다른 약품 안 먹고 병원치료도 없이 한국 천연치료물질 난담반캡슐만 먹고 완치. 난담반캡슐의 30년 수많은 환자 통계와 대학논문들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은 2~3일이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복용하자 산소포화도가 매일 올라가서 3일만에 산소포화도가 정상, 치료됨.

난담반캡슐을 미국으로 전달한 사람과 격리실로 몰래 그 캡슐을 반입한 환



자 어머니는 아들의 코로나 완치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울었다.

환자 어머니는 샌드위치나 김밥 등을 직접 만들어 몰래 음식 속에 난담반캡슐을 까 넣어 집과 격리실까지 몇 시간 걸리는 먼 거리를 지극정성으로 매일 왕복하여 아들에게 반입했다. 혹시 격리실 직원이 반입된 난담반캡슐음식대신 단체급식을 배급할까 불안한 환자 어머니는 매일 아들이 집음식 먹는 것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확인했고 직원은 꼬박꼬박 난담반캡슐음식을 환자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하여 2020년 4월 20일 미국 뉴저지 멜라웨어 코로나 환자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다른 약품 일체 쓰지 않고 3일만에 코로나가 완치되었다.

2020년 코로나는 한국 천연치료물질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림, 증명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코로나 확진자에게 무료 공급 캠페인

2021년 코로나 백신에 대한 위험성 알림 (면역계 손상, 암 및 각종 난치병 발생 가능성)

2022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후유증을 치료해야 하고, 코로나 백신이 야기하는 각종 암, 난치병을 한국천연치료물질로 빨리 예방 및 치료해야 한다고 알림

2020년 한국 천연치료물질 난담반캡슐로 코로나 환자들이 완치되면서 유튜브에 인터뷰하여 영상을 올렸으나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이라 언론 통제에 의해 계속 삭제됨. 여러 언론에 코로나는 한국 천연물질로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보했으나 기자들 왈, “정부 눈치를 봐야 합니다.” 라며 외면. 정부 R&D에 계속 신청했으나 번번히 떨어짐.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지자체장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논문 자료와 실제 치료 사례 정리하여 제공했으나 모두 외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한국의 코로나 천연치료물질을 알리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님. 그 후 코로나 백신 부작용 후유증 경고, 최소 청소년 만이라도 접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

2021~ 2022년 현재: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후유증 치료 및 코로나 백신으로 더욱 심각해진 각종 암, 난치병을 한국 천연치료물질로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노력 중. 그 일환으로 기록함.

2) 한국최초 코로나 확진자 난답반캡슐 완치 기록 2020년 12월 10일

난답반캡슐로 치료된 한국 최초 코로나 환자 문선생: 폐염증 보통사람의 46배, 당뇨.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난답반캡슐 유튜브 소개 방송.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문선생 연락옴. 접근 금지라 문앞에 놓고 감. 엠블런스 오기 전에 (오후 6시) 오후 5시에 빈속에 한꺼번에 난답반캡슐 3개 (1.8g) 복용 (처음에는 식후 1개씩 시작해야 하는데 간호사에게 뺏길까 걱정되어서) 무리하게 처음부터 공복에 너무 많이 먹어 구토했음.

격리실로 이송될 때 난답반캡슐을 숨겨서 갖고 감.

12월 12일 아침 3캡슐. 점심 2캡슐. 저녁 2캡슐 복용

12월 13일 일요일 한 끼 2캡슐씩 하루 3회 6캡슐 복용.

12월 14일 하루 6캡슐 복용 3.6g

4일째 기침이 사라지고 낫는 느낌

12월 15일 화요일 하루 6캡슐

혀 미각이 사라졌었는데 짠맛, 단맛 돌아오고 기침도 줄어들었다. 코로 시키면 이물질이 나왔는데 코가 뻥 뚫린 느낌.

“퇴원할 때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문선생 기록〉 2020년 12월 11일 서울의료원에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의 기록

“맛을 잃은지는 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당뇨 21년.

한 달 전부터 맛도 냄새도 못 맡고 상실했습니다.



밥을 못 먹은지는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쌀로 만든 밥과 딱딱한 음식을 1년째 못 먹고 있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에서 두 달 동안 다니면서 검사를 했지만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감기 몸살기가 있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체온을 재보니까 38.2°C였습니다.

12월 2일 약을 먹고 체온을 재보니 39.5°C, 3일도 4일도 계속 기침을 하면서 체온을 재보니 40.2°C.

또 약국에 가서 감기 몸살약을 지어와서 해열제도 같이 먹었는데 열은 더 육 심해서 41°C까지 올라갔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12월 10일 오후에 강남보건소에 검사받으러 갔습니다.

12월 11일 입원: 확진자라고 통보받고 저녁 6시에 서울의료원 여기로 온 것입니다.

의사의 말씀은 일반인들은 폐에 염증이 0.3인데 저는 폐에 염증이 14라서 46배의 염증이 폐에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12월 17일 현재 열은 36.3°C입니다

혈압은 107/72이고요

기침은 간혹 한 번씩만 하고, 거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12월 18일: 다 나은 것 같은데요. 기본이 15일은 지나야 내보내주나 봐요.”

화학약품이 찔찔매는데 인산선생의 천연치료물질이 코로나를 쉽게 치료하는 것은 접근법이 달라서입니다. 화학약품은 내 면역군대를 돋지 않고 독 단적으로 강제로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천연물질은 내 면역군대에 힘을 실어주어 내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물리치도록 하



기때문에 치료가 쉽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종으로 바뀌어도 상관없고 사이토카인 폭풍같은 것도 쉽게 제어됩니다. 왜냐하면 천연치료물질은 내면역군대의 능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돋기 때문입니다.

암은 치료가 어렵고 약효가 금방 표시나지도 않고 치료되기까지 몇달이 걸리고 모든 분이 다 치료되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함부로 떠들 수 없지만 코로나는 고작 독감 바이러스의 일종일 뿐이고 70, 80대 기저질환자만 아니라면 바로 효과가 보이고 3~7일이면 간단히 치료되는 쉬운 질병이니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한국의 천연치료물질의 탁월한 가치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작성)

미국 사례 질문: 3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코로나로 진단받아 바로 난답반캡슐을 5일 동안 먹었는데 대학생 2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고등학생 1명만 아직 양성이라네요.

3명이 한방에서 지내면서 꼼짝도 안하면서 밥먹고 난답반캡슐 먹고 똑같이 했는데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나아도 양성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는 남아 있어도 무력해지면 사람을 해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양성이라도 나으면 퇴원시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요. 암세포의 숫자가 많아지면 질병이고 증상을 일으키고 생명을 해치지요. 바이러스도 존재하지만 무력해지면 증상을 일으키지 못하고 세포를 해치지도 못합니다.

질문: 코로나 치료받고 퇴원 후 후유증에는 어떤가요? 후각, 미각 잃고 기억력 감퇴, 탈모, 폐 섬유화 등

답변: 당연히 효과있지요. 빨리 복용할수록 치료가 쉽고 빠릅니다. 왜냐하면 다 망가진 것을 복구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빠르



게 코로나 후유증 치료를 시작하느냐 그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요양원 장기입원 와병환자에게는?

답변: 난답반캡슐은 자기 면역을 도와서 치료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면역군대가 너무 없으면 별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즉, 80대 90대 너무 연로하고 쇠약하시거나 수십 년 병상에 누워계시던 기저질환자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환자라면 복용해도 큰 도움이 못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어느 정도 면역군대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하시는 고령 기저질환자, 너무 쇠약한 환자에게는 별 소용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 그런 분이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제가 죄송하지요. 드셔보고 도움이 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이 난답반캡슐은 자연의 힘을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난답반캡슐 원료는?

미네랄 즉, 9회 구운 자죽염, 아기 분유에도 들어가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구리, 달걀 흰자.

이 물질이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에 좋은 이유는?

30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논문에는 항염, 항암, 폐암, 관절염, 알러지 아토피 피부에 효과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거악생신(去惡生新) 즉,

1. 불순물(노폐물) 배출, 독성배출, 해독
2. 건강한 새 세포재생 촉진

코로나가 치료되는 원리는 면역군대가 강해지면 바이러스는 쫓겨나갑니다. 죽염 발명가, 한방암의학 창시자 인산선생이 “앞으로 지구에는 괴질이 나타



나 사람들이 마구 죽어갈 것이다. 그때 이 물질이 많은 지구인을 구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발명하여 수많은 난치병 치료사례가 있습니다. 면역으로 코로나 환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먹어서 난치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계의 정상작동을 도와줍니다. (오장육부의 기능회복) 그것뿐입니다.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훌륭한) 면역계를 조금 도와줌으로써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팔이 없어진 것을 새로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가고 있는 팔의 악화를 중단시켜 팔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을 때 빨리 구하기를 바랍니다.

안되는 것, 무리한 것, 환상, 요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거한다는 대진실을 기억하면서 난담반캡슐의 임상을 관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는 오히려 쉽습니다. 정상적인 일반 체력,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우연히 갑자기 코로나바이러스에 맞닥뜨린 것이므로 면역계를 조금만 도와주면 (불순물 노폐물 배출, 세포 신호전달 체계 정상화) 자신의 면역력 강화로 바이러스의 세력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80대 장기 와병환자, 이미 면역계가 너무 고갈되어 있는 기저질환 노쇠약자는 워낙 기존 면역력이 극소하므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정도의 힘을 만들어낸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코로나는 간단히 치료되지만 암같은 난치질환은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난치질환은 악화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중단되면 대부분 치료됩니다.

암이든 피부병이든 증상의 진행이 중단되면 치료에 성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순물, 노폐물, 독성이 배출되고 나가면 정상적인 세포 생장이 일어나거나 세포의 정상 기능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면역계가 원활히 정상

작동됩니다. 난담반캡슐의 일차적 기능은 항염증입니다.

3)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완치자 난담반캡슐 복용기록

2020년 12월 10일 ~2021년 1월

1. 문OO 당뇨 21년. 한달간 후각, 미각, 사라진 상태, 고열, 코로나 확진. 폐염증 정상인의 46배. 4일만에 미각 돌아옴. 서울의료원.

2. 염OO 3. 이OO 남 4. 이OO 여 O딸 5. 이OO 여 O딸

6. 김OO 아무 약도 먹지 않았다. ~~흉통~~, 콕콕 찌르는 아픔, 뼈근함, 가슴 답답. 나아서 퇴원.

7. 김OO (김OO조카) 8. 민OO 9. 최OO 최OO아버지인데 많이 도움되었다.

10. 홍OO (최OO 처) 11. 최OO (최OO 자) 12. 우OO 13. 우OO 14. 최OO 파주시립병원

15. 신OO 코로나 확진자 여성 당뇨 “기관지는 조금 아직 안 좋은데 당뇨 수치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적십자병원에 보름동안 입원하면서 난담반캡슐을 하루 아침 2알 저녁 2알을 계속 먹으면서 당뇨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전에 115~125정도 나오던 수치가 90~9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감사했습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6 조OO 후유증 없이 효과가 좋다고 감사 표시. 17 강OO 18 배우자 19 강OO 20 배우자

21 박OO 조카 외 등등

미국 코로나 확진자 난담반캡슐 기록

1. 성우 엄마 고OO 2. 고등학생1 3. 학생2 4. 학생3 5. 신OO

6. 미국 박목사님의 처남은 4일만에 나았고 (46세 남성. 힘이 없고 몸살감



기 증세 며칠 앓아누워 있다가 난답반캡슐 하루에 6알씩 복용한지 4일 후 좋 아짐)

7. 장모님은 연세 많으시고 고혈압, 폐렴, 폐기종이셨는데 코로나 깨끗이 나으셨다고 합니다.

박목사님 장모님, 고혈압, 폐렴, 폐기종

4) 코로나 후유증 폐농양, 폐섬유화, 기흉 환자 조OO 복용 기록

코로나 위중증 환자 기록 조OO 50대 남성 기저질환 없음 코로나 후유증.

2020년 12월 5일부터 감기몸살 증상

2020년 12월 8일 병원 검사 코로나 음성

계속 감기몸살약 복용. 계속 심한 두통과 열. 전신 몸살로 끙끙 앓다가 차 도가 없어 12월 15일 보라매병원 코로나 양성판정.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 병원 배정 못받고 기다리길 2일간 극심한 두통, 몸 살, 기침 그리고 이젠 설사, 호흡곤란까지

12월 17일 증상 심해 구급차로 밤 9시경 서울의료원 실려감. 렘데시비르 5일간 투여, 바리시티닙 2알씩 하루 3회 그리고 항생제 투여까지 매일.

약 2주 후 병원 약품 치료 14일만에 코로나는 치료되었으나 이후 후유증 즉 폐섬유화, 기흉, 폐렴으로 폐의 80 프로가 손상되어 (왼쪽 폐는 석회화가 군데 군데, 오른쪽 폐는 1/3로 찌그러지고 기흉) 약품 치료받고 다시 폐가 펴져 정상 크기 돌아오고 기흉도 없어졌는데 이번엔 폐농양이 폐의 반 크기 정도로 발생 함. 항생제 치료받던 중 (총 40일째 입원 투병 중) 1월 27일부터 미라클캡슐 복 용. 하루 6알 (3.6g) 3일간 합 18알 복용 후 폐농양이 줄어들기 시작. 즉 3일간 18알 복용 후 증상 호전. 2021년 2월 5일 60일 한 병 다 먹고 계속 복용 중.

〈조선생의 사례를 정리하면〉

1. 코로나 감염으로 증상, 두통, 고열, 몸살, 기침 등으로 아프나 병원검사 코로나 음성일 경우가 많다. 12일간 병증을 방치함으로서 치료시기를 놓친다. 따라서 간단한 감기 증상이 있을때 재빨리 난담반캡슐을 복용하여 병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코로나 치료하기 위해 렘데시비르(에볼라치료제)와 바리시티닙(항염제) 14일간 투여로 바이러스는 사라졌으나 → 그 대신 폐가 손상됨. (폐석회화, 폐 찌그러짐, 기흉) 다시 약품치료로 → 폐농양이 폐의 절반 크기로 발생. (장장 40일간 입원 치료 결과로)

결론은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약품 치료를 받으며 폐가 망가진 결과를 얻게 됨. 이것은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바이러스 치료의 개념인데 작은 증상을 공격 치료하느라 멀쩡한 내 아군 면역군대까지 손상시킨다. 객관적,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정상 폐가 손상되어버린 것.

3. 해결방법: 악화, 진행되도록 방치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열 나고 아프고 기침 나면 코로나 양성 음성 따지지 말고 인산선생의 난담반캡슐 먹고 면역력을 올려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건 상관말고 가급적 빨리 물리친다. 증상의 진행을 막아 폐손상을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한다. 코로나 양성이라 하더라도 수입의약품 렘데시비르나 바리시티닙대신 한국천연식품 난담반캡슐로 바이러스도 치료하며 폐손상도 막아 나가야 한다.

바이러스나 화학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폐석회화, 기흉, 폐농양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5) 코로나 후유증 흉통 환자 황00 복용 기록 (2021. 1. 27)

"난담반 캡슐 식후 1일씩(0.6g) 하루 3알씩(1.8g) 이제 60알 1병을 다 먹



었습니다. 먹으면서 느낀 점 몸의 변화에 대해 몇 자 적어봅니다.

가슴 통증이 심했었는데 처음 먹기 시작한 후로 10일 동안은 중간 중간에 가슴 통증이 어떤 날은 3번 어떤 날은 1번 이렇게 2~3일 간격 후 차츰 감소 하더니 10일 후부터는 거의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다 먹고 1개 남았을 때 가슴 압박 통증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꿈치 안쪽이 많이 아팠는데 처음 먹고 며칠 지나서 지금은 거의 괜찮아졌습니다. 가슴통증은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후유증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한 경우가 많다. 관절염, 신경통, 당뇨 등 아픈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암이 아닌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악화되어 암진단을 받기도 한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던 사람들이 전립선암진단을 받게 되거나 치료되고 있던 각종 암환자들이 악화 또는 재발된 경우는 무수히 많다. 멀쩡하던 건강한 사람이 단기간에 급성 말기 암환자가 되기도 한다.

사람의 몸, 우리 면역계는 매우 취약하고 섬세하여 화학물질에 손상되기 쉬운데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튼튼한 타인들과 자신이 동일하다고 착각한다. 특히 암병력자들, 기저질환자들은 살얼음판에 선 것처럼 모든 유해물질, 화학물질, 백신같은 것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면역취약자, 노쇠약자, 기저질환자들이 먼저 코로나백신을 맞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12 당뇨 가이드

천연치료제 설명서

인산선생 당뇨 처방은 당뇨 탕약과 난담반캡슐이다. 여기서 탕약만큼 난담반캡슐이 중요하다. 세포의 뿌리는 오장이다. 뿌리인 오장이 중독, 고갈되면 당뇨병이 발생한다. 뿌리인 오장이 좋아지면 치료가 된다.

모든 병이 그러하듯 당뇨도 독소가 혈관에 쌓여 오장을 침범하여 발생한다. 한의학에서 심장은 불의 장부이다. 모든 독소의 성질은 생명을 태워 죽이는 불이다. 독소가 쌓이면 심장화기와 합하여 독소를 함유한 심장화기가 폐, 비장, 간, 신장, 오장을 병들게 한다. 혈액내 독소가 함유된 심장화기가 간을 침범하면 간과 연결된 눈이 피해를 입어 안과질환이나 시력감퇴가 오고 신장을 침범하면 신장이 쇠약해져 신부전 등 신장장애가 일어나거나 관련 질환인 신경통, 요통이 생긴다. 눈의 뿌리는 간이고 뼈, 관절, 신경의 뿌리는 신장이다. 이렇게 독소의 화기가 오장의 기능에 해를 끼쳐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 만병 중의 하나가 당뇨이다.



- ①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 기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당뇨병도 있고
- ② 당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 안되는 당뇨병도 있다.

① 이미 없어진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나가는 것, 또는 조금씩 조금씩 0.01%씩 일지 모르나 기능을 살려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천연물질은 생체기능을 살리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준다.

② 혈액 속의 당이 필요한 용도로 쓰여야 하는데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 못 쓰인 잉여 당이 계속 쌓여 혈액이 탁해지는 당뇨병은 당을 처리하는 대사 기능을 치료하면 된다.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여야 하는데 에너지로 못 쓰니 기운이 없고, 또는 근육에 쓰여야 하는데 못 쓰인다. 결론은 포도당이라는 좋은 원료가 혈액이라는 통로에서 못 쓰여 폐기물로 변해서 혈액을 더럽히는 것이다.

좋은 영양물이 제때 알맞은 곳에 쓰이지 못하면 쓰레기로 변하고 독소가 제때 알맞게 쓰이면 유익한 영양물로 변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당을 잘 쓸 수 있도록 오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면 된다. 오장의 기능은 인공합성물질로 강제로 한 방향으로 조종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천연물질로 오장 자체를 도와줘야 한다.

당뇨는 인슐린만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인슐린 분비를 강제로 촉진하거나 또는 포도당 합성이나 포도당 배출을 강제로 막아 혈액 속 포도당의 양만을 강제로 줄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장이 좋아져 당을 쓰는 각 기관이 당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그 기능을 개선시켜야 한다. 오장이 곳곳에서 필요한 양의 포도당을 사용하게끔 오장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주면 된다. 당이 제대로 쓰이면 혈액 속 당의 양은 적어지고 당화혈색소는 저절로 내려간다.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지 못하게 해독 배출하는 기능을 올려줘야 한다. 간, 신장, 비장, 오장의 기능이 좋아지게 도와주면 된다. 인체시스템을 강제로



관여하는 합성약품에만 메달리지 말고 오장의 기능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장에 좋은 천연물질을 복용해야 한다.

천화분, 백모근은 당뇨에 쓰이는 주 천연재료이다. 난담반캡슐은 해독, 청혈, 소염 효능이 뛰어나다.

당뇨가 오래되어 독소가 함유된 심장화기가 간을 침범하여 (1)안과 질환, 당뇨성 망막증이 나타나면 천연 눈 치료물질인 목적, 결명자, 황련을 추가하여 눈을 치료해야 한다. (2)당뇨가 진행되어 혈관이 탁해지며 피부질환이 나타나면 청혈제인 익모초, 천궁, 당귀를 쓰고 (3)다리가 붓거나 신장 장애가 나타나면 신장 치료제인 석위초 백강잠 산약 산수유 오미자를 쓴다. (4)당뇨로 관절염이 오면 우슬, 강활, 방풍을 쓴다.

백개자, 행인은 당뇨나 오장에 쓰는 공통 천연물질이다. 당뇨 공통 필수물질은 천화분, 백모근이다.

장OO 53세. 남. 당뇨 30년(20210730)

수술 4회. 전신마취. 무기력. 가슴 두근거림. 걷는 게 힘듬. 시력이 계속해서 나빠짐. 발에 부종 있고 다리 검푸름.

탕약1차, 난담반캡슐 5병 복용 후 다리 힘 좋아지고 체력, 얼굴 좋아짐. 당화혈색소 수치 좋아짐.

20210928 탕약2차 난담반캡슐 5병

인간의 생명도 타인의 돈벌이 대상인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인산의학 INSAN MEDICINE
한방암의학 치료 가이드

암, 난치병, 코로나 천연치료제 설명서

발행일 2022년 5월 25일

발행인 **최 은 아** 한의학 박사 (인산선생 셋째며느리)

발행처 도서출판 **인산한방암센터**

ISBN 978-89-969429-0-0

값 10,000원

www.insan.co.kr

인산한의원 (서울) / 인산선생 손자 **김 흥 근** 원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29 오성빌딩 3층

전화 **02-568-3933**

인산한의원 (경남)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107-1

전화 **055-964-1191**

인산죽염(주)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다별길 99-25

함양본사 **055-964-1688**

서울지점 **02-568-5333**

난담반 발명가

죽염발명가, 한방암의학창시자, 인산 김일훈선생 (1909~1992)

인산선생 일대기 | 일생동안 무료로 수많은 암 및 각종 현대난치병 환자를 완치시켰고 인산의학을 정립

- 1909년 3월 25일 함남 흥원 한의사 가문에서 신동으로 출생
- 1915년 7세 때 의학의 원리 깨닫고 난치병 환자 치료 시작.
- 1917년 9세 때 세계 최초 죽염 발명
한의학 연구, 죽염, 유황오리, 약간장 사리장 등 천연동 식광물을 이용한 천연바이오 의약품 건강 기능성식품 발명
- 1924~1945 독립운동하면서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해준다.
- 1945년 해방 후 서울에서 성혜한의원 운영
- 1971년 대한화보에 한방암의학 원리 및 암치료법 연재, 세계 최초 유황오리 제조법 공개,
- 1980년 불멸의 의서 “우주와 신약” 출간
- 1986년 “신약”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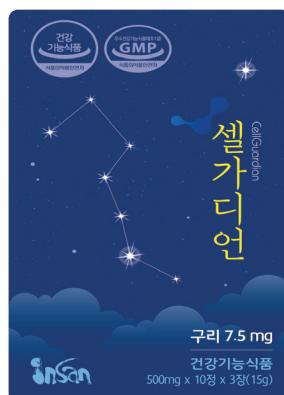
저서

『우주와 신약』1980, 『구세신방』1981, 『신약』1986, 『신약본초』1992, 『인산암처방집』1994, 『신의원초』1996, 『의사여래』1997, 『의약신성』1998, 『활인구세』2002, 『신약본초3』2004



난담반 발명가
인산 김일훈 선생

“향후 인류역사 500년간 이보다 더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
“내 사후 지구에 닥칠 괴질로부터 인류를 구할 것이다.”



www.insan.co.kr

5개월 갓난아기 아토피

스테로이드 없이, 일체의 약품 없이 난담반캡슐만 복용



2021년 2월 18일



2021년 2월 19일



2021년 2월 21일



2021년 6월 15일
행복한 아토아기



2021년 3월 14일
25일간의 기적



2021년 3월 2일

인산선생은

**“향후 인류역사 500년간
이보다 더 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

“앞으로 전세계에서 한국의 난담반캡슐을 찾게 될 것”이라고 확인하셨습니다.

전세계 아토피로 고통받는 아기들이 난담반캡슐을 알게 되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미라클캡슐”을 참고하세요! (미라클캡슐의 새이름 '셀가디언')
최은아 한의학 박사 한방암의학 치료가이드**



인산한의원(서울)
인산선생 손자 김홍근 원장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29 오성빌딩 3층
전화 02-568-3933

인산한의원(경남)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107-1
전화 055-964-1191

E-mail : insan@insan.kr

인산죽염(주)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다별길 99-25
함양본사 055-964-1688
서울지점 02-568-5333

값 10000 원
03510

9 788996 942900
ISBN 978-89-9694290-0